

라싸 종교회의 : 서기 8세기 인도와 중국 불교도들의 돈頓/정적靜寂주의 논쟁(VI)*

폴 드미에빌 (Collège de France, 1894~1979)
(중국학 및 중국문학 교수)

역자_김성철 (금강대 불문연 HK교수)
배재형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차상엽 (금강대 불문연 HK교수)

티베트 점령기 둔황의 어느 중국인 절도사가 쓴 필사본 단편들

[1] [티베트 왕에게 올리는] 상서上書. 금관과 은곽에 담긴 사리 도합 137

“두”가 사주의 모某 불교 사원에서 왔음을 왕에게 고하기 위함.¹⁾

“신하”²⁾라 자칭하는 글쓴이는 성스러운 유골들(“사리śarīra”)에 전적인 존

* 이 번역은 「라싸 종교회의: 서기 8세기 인도와 중국 불교도들의 돈頓/정적靜寂주의 논쟁(V)」(『불교학리뷰』 17(2015. 6), 171~188)에 이어지는 번역이다. 이 책과 번역의 의의에 대해서는 『불교학리뷰』 9(2011. 06), 267 참조. 이번 호에는 티베트 점령기 둔황의 절도사가 티베트 왕과 재상들에게 보내는 편지 18편을 번역한 부분을 실었다.

경을 포함으로써 글을 시작한다. 그는 이 유골들을 붓다 샤까무니의 유해로, 붓다의 몸이 바뀐 결과³⁾로 규정한다. 총 84두斗⁴⁾를 헤아리는데 그 중 일부는 천룡天龍들의 사원에 모셔졌던 것이고 나머지는 재가자와 성자들이 건립한 탑들 안에 보존돼 있던 것이다. 그 모양이 쌀이나 곡식의 낱알처럼 둥글고 빛깔은 마치 금분金粉처럼 반짝이며, 아주 단단해서 망치로도 불로도 물로도 부술 수 없다.⁵⁾ 사리에는 온갖 영험한 속성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수나 양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인다. 크게 상서로운 특성이 있어 사리의 발굴은 특히 왕들에게 길조로 여겨진다.

이어 글쓴이는 사주가 세워진 지 천년이 되었건만 부처님의 사리가 사주에 나타난 것은 겨우 100년 전이라고 말한다. 한 송이 연꽃의 이름을 딴 어느 사원에 이 사리의 명칭을 그대로 갖다 쓴 탑이 있고,⁶⁾ 사원 본전本殿과 성소의

1) (문서 제목) 謹啓沙州寺舍利骨一百三十七粒并金棺銀槨盛全. 문서의 연대는 794년으로 추정된다.(본서 256, n. 2)

2) 臣.

3) 化而爲之. 이 유골들이 화신(化身, *nirmāṇakāya*)의 결과라는 이야기다. 다른 한편 극동지역에서는 이 유골에 어떤 효험과 영험한 속성이 있다고들 여긴다.

4) 都八斛四升. “파인트pint[액체의 양을 재는 옛 단위로 0.93리터에 해당하지만 이 수치는 영미권의 경우 나라마다 상이하다.(역자)]”에 상당하는升은 “브와소boisseau[곡물의 양을 재는 옛 단위(역자)]”에 해당하는 斗의 오식이고, 이 숫자는 84두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84는 『佛母般尼洹經』(『대정신수대장경』, no. 145, 870c)이 아쇼카왕의 8만 4천개 탑 안에 안치된 유골 사리를 가리켜 쓴 숫자이기 때문이다.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대정신수대장경』, no. 1451, 제39권, 402b)에 따르면 붓다의 사리는 106두를 헤아리는데, 그 중 7개 부분은 남섬부주Jambudvīpa에 나뉘어 보내졌고 8번째 부분은 라마그라마Rāmagrāma의 용왕nāgarāja들의 궁전에 보존되어 있다.

5) 形圓粟粒, 色映金砂. 堅勁不碎於鉗鋸, 焚漂罔滅於水火. 극동에서 통상 붓다의 사리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이 구절에 요약돼 있다. 붓다의 사리들은 항상 “과顚”(매끈한 작은 알갱이들)로 그 수를 헤아린다. 나가이 고토長井古藤는 사리 숭배에 대한 한 연구(『宗教研究』, II, iv, 1925년 7월, 94 이하)에서 이 표현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śarīra* —사망했되 부패되지 않은 “시신” —와 *dhātu*, 즉 화장하고 남은 시신의 “꽃망울 같고 매끈한 진주 같고 금분 같은” “조각들”을 구분하는 『長部經典注』*Sumaṅgala-vīlāsīnī*를 예로 든다.

6) 분명 현대사蓮臺寺의 사리탑舍利塔을 말하는 것이다. 현대사는 슈타인 필사본 2729번의, 티벳 점

영향이 달과 별처럼 주zhou 전역에 두루 미치는 동안 사리가 담긴 금관은 다시 은곽에 담겨⁷⁾ 이 탑 아래 땅 속 깊이 묻혀 있었다.⁸⁾ 그런데 근자에 요새를 수비하는 병사들이 어느 날 아침 단순한 연기煙氣가 아닌 어떤 상서로운 기운을 보는가 하면, 어느 날 밤에가는 성벽에 오른 관속들이 기이한 빛을 목격하기도 했다. 상서로운 전조가 나타난 마을을 기리고저 고승 한 명이 멀리서 왔다.⁹⁾ 우리는 성심으로 (티벳의 왕을 위해) 고승에게 사리를 한 “두”도 빠뜨리지 않고 전한다. 이런 자연적 기적은 왕의 덕치를 기리기 위해 일어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런 성스러운 유물은 되살아난 법法의 햇살을 더욱 빛나게 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토록 희유한 일이 이 후미진 곳에서 일어났을 것이며, 어찌 불교가 바다 안쪽에 (티벳 깊숙이까지) 널리 퍼졌겠는가?¹⁰⁾

글쓴이의 말은 계속된다. 둔황이 티벳 왕의 위세에 부복한 지 8년이 흘렀고

령기 둔황 사원들의 목록 가운데 언급된 사원이다.(L. Giles, *B. S. O. S.*, IX, 23과 1039 참조.) 천불동의 한 석굴 벽면에 그려진 벽화에 “窟禪蓮臺寺釋門法律福遂...”(부수, 한 석굴 안[에 자리한] 선[찰] 린대사의 부처님 법과 율의[대가])라는 봉헌 비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원은 천불동 중 한 곳 안에 있었던 것 같다. 石岩, 『敦煌石室書象題識』(본서 161, n. 3), 5a 참조. 석암이 이 책의 서문 16a에서 이 사원의 조성 연대를 오대五代로 추정했던 이유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

7) 819년 장안에 도착해 한유韓愈의 유명한 고언을 샀던 사리(붓다의 손가락 뼈 여덟 “두”)도 금과 은으로 만든 이중 “관” 속에 담겨 있었다. 이 관들은 붓다의 사리를 위해 660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어느 황후가 그 비용을 냈다.(『法苑珠林』, 『대정신수대장경』, no. 2122, 제38권, 587a)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신에서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는 수식어들은 문체상의 관용어구일 공산이 크다.

8) 且沙州置經千祀, 舍利出纔百年. 寺因蓮花而建名. 塔從舍利而爲號. 金棺銀槨, 葬於九地之中. 月殿星宮, 鎮乎一州之內.

9) 昨者官軍壓壘, 朝見非煙之祥. 人吏登陴, 夜觀毫光之異. 果得高僧, 遠降象駕來儀. 멀리서 온 고승이란 물론 티벳의 왕궁에서 온 승려를 말한다.

10) 表以精誠, 無遺[遺로 읽음]顆粒. 自然靈物, 應代照 贊普德化之年. 聖迹呈祥, 明像法重興之日. 不然, 希有之事, 豈現於荒陬? 無爲之宗, 流行於海內? “바다 안쪽”이란 이 세계(天下)다. 티벳의 군주에게 올리는 서신이니, 그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새 둔황 백성들은 입술에 피를 바르면서 맹세를 거듭하길 세 번,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의심과 우려가 일었으니 그때마다 군대가 움직였다.¹¹⁾ 감히 하늘에 맞서는 자는 결국 땅에 쓰러질 것이다. 그리하여 항복과 저항 사이에서 머뭇거린 탓에 우리가 겹겹이 포위당했던 것이고,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탓에 1만이나 되는 사망자가 났던 것이다.¹²⁾

앞드려 아뢰길, 우리를 진흙탕과 불타는 숲 속에 던져 넣지¹³⁾ 않으려는 (티벳) 재상들의 선의를 믿는다. 폐하의 위대한 나라에서 백성들은 생명을 사랑한다.¹⁴⁾ 우리 역시 포승줄과 감옥을 면하길 바란다. 성스럽고 신성한 티벳 왕께서 그 명을 어겼던 자들의 처형을 면해주시고 왕궁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길! 바로 이것이 앞드려 절하기를 거듭하며 죽을 죄를 참회하는 이 서신의 작자가 소망하는 바다.¹⁵⁾

작자는 유골 사리를 세 명의 비구 — 그 중 한 명의 이름은 사자후Simhanāda —에게 맡겨 왕에게 바치도록 한다고 밝힌다. 그리고는 왕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왕이 정복한 지역에 베푸는 호의로서 완전한 사면령을 내려달라고 간청한다. 작자는 왕에게 복의 한없는 증장이 있을 것이라며 승니들의 여러 수계식에 왕립해 수계를 해달라고 왕을 초대하기도 한다. 이로 말미암아 왕은 위로

11) 입술에 피를 바르는 이 맹세는 불교 도입 이전 티벳의 의식에 따른 것이었다.(본서 229, n. 6) 여기서 둔황 절도사가 에둘러 말한 무장 반란은 분명 787년으로 추정했던 둔황의 공식적 항복(본서 177) 이후의 일이었다. 이 항복이 8년 전의 일이니, 이 서신의 연대는 794년으로 봐야 한다.

12) 自燉煌歸化, 向歷八年. 歃血尋盟, 前後三度. 頻招猜忌, 屢發兵戈. 豈敢違天, 終當致地? 仿徨依拒, 陷在重圍. 進退無由, 甘從万死.

13) 도탄에 빠진 백성의 모습. 『書經』, Couvreur 옮김, 104. Maspero, *Ml. posth.*, II, 159, n. 2 참조.

14) 생명에 대한 사랑은 중국에서 군주의 덕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그것은 특히 역도들에 대한 관용으로 나타난다. 『書經』, Couvreur 옮김, 38 참조. “중하다고 의심되는 죄를 가버이 다루고 그 경중이 분명치 않은 공로를 크게 다루십니다. 자칫 무고한 자를 처형하게 되느니 차라리 법의 집행을 소홀히 하십니다. 이렇듯 생명을 아끼시니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15) 伏賴宰相守信, 使無塗炭之憂. 大國好生, 庶免繫囚之苦. 伏惟 聖神贊普[...], 寬違 命之誅, 捨不庭之罪. 臣△誠歡誠喜, 頓首頓首, 死罪死罪.

는 부처님의 뜻과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과 같음을 보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자는 자신이 “사막의 관문”의 절도사라는 미천한 임무에 붙들려 있어 왕궁에 하례를 드리러 갈 수 없음에 용서를 구한다. 작자는 왕에 대한 찬사와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하고, 존경과 두려움과 죄스러움을 담은 예의 근언으로 상서를 마친다.¹⁶⁾

[2] [티벳의 모 재상에게 보내는] 출가 허락을 얻기 위한 청원서.¹⁷⁾

작자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채식을 해왔는지 상기시키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청년이 되어서는 불가의 전적들, 경經과 논論을 암송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재계齋戒를 지켜왔다. (불사佛事에 동참하기 위해) 가족과 일신의 몸을 희생했다. 계속해서 그는 인생살이의 환멸을 묘사한다. 그는 자신의 큰 열망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고향에서, 갑옷에 눌러 희미해진 왕도를 일구는 데 힘쓰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조정¹⁸⁾과 백성에 대해, 맡았던 공무를 다하기엔 자신이 한참 부족했으니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¹⁹⁾

16) 其舍利骨, 先付僧師子吼等三人進. 伏乞大赦所獲之邑, 冀以永年之優. 廣度僧尼, 用益無疆之福. 庶得上契佛意, 下協人心. 持望天恩允臣所請. 臣△限以守官沙塞, 不獲稱慶闕庭. 無任喜慶, 爲國祈福之至. 謹附表, 陳賀以聞. 臣△誠歡誠懼, 頓首頓首, 死罪死罪. 謹言. “限以守官”, 즉 “지방 수령의 임무에 묶여”라는 문구는 이 시기에 상급 기관에 올리는 공문서들 속에서는 일종의 의례적 관용구였던 것 같다. 이 문구는 약간 변형된 형태들로 이 문서의 다른 곳에서도 재발견된다.(색인의 守 항목 참조) 여기서는 守官(守는 상성자上聲字)을 “맡은 바 직분을 다한다.”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보다는 당대唐代에 주州를 다스리던 자들의 호칭들 중 하나인 태수太守 같은, 지방 통치자를 가리킬 때 쓴 문어적 호칭인(거성자去聲字) 守, 즉 “수령직職”의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des Rotours, 『통보』, XXV, 263, 264, n. 1) 『遊仙窟』(서기 약 700년경), 루 싰본魯迅本(1929), 62의 “王事有限, 不敢稽停…” 참조.

17) (제목:) 狀請出家.

18) 여기서는 중국의 조정을 말하는 것 같다.

19) 右△年在襁褓, 不食薰羶. 及乎佩觿觿로 읽음], 每誦經論. 持齋持戒, 積有歲年. 捐室捐軀, 累移星紀. 豈期弘志未立, 王道驅馳? 空使黃髮於鄉關. 實慙紫綬於朝野.

이 글의 수신자인 티벳의 재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를 얼마 전 사주에서 일을 돕는 자로 삼아주었다.²⁰⁾ 하지만 그도 어언 “이순耳順”의 나이, 예순에 이를 것이다.²¹⁾ “수레를 매달아 놓는”(懸車) 때, 즉 물러나야 할 때가 머잖아 그에게 올 것이다. 그는 이미 일개 늙은이일 뿐, 나라에 바칠 것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²²⁾

허나 불교의 흥포는 왕조의 거룩한 번영에 이로울 수밖에 없다. 그가 담曇이라는 한 화상²³⁾을 모신 지 이십년, 그 문하에서 그는 오랜 세월 경론을 공부했다. 그는 인생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인지 안다. 이들 중 하나가 얼마 전 부당한 해를 입은 탓에 그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버려져 혼자 남았다. 그런 고로 출가하기 위해 사직을 청하니, 그가 가려는 경건한 길을 절대 막지 말아달라고 재상에게 간청한다. 그는 재상 자신은 물론이고 해탈이란 대의를 위하는 것이 될 조처에 감사함을 보이고자 몸을 바치고 만 번의 죽음을 감내할 각오가 돼 있다고 선언한다.²⁴⁾

[3] 사직과 출가 승낙을 청하기 위해 티벳 왕에게 올리는 글

전편과 똑같은 목적을 내걸면서도 티벳 왕에게 올리는 공문서²⁵⁾ 형식을 띤

20) 近日相公, 不以庸鄙, 令介沙州. 相公은 宰相을 일컫는 호칭이다. 介는 (관리를 돕는) “조수”나 (중국인과 티벳인들 사이의) “중재자”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의미는 여기서는 너무 엄격한 것 같다. 그보다는 차라리 이 글의 작자가 둔황에서 티벳의 통치를 돕는 데 호출됨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사실을 뜻하는, 단순한 공손함의 표현이다.

21) 『논어』, Couvreur 옮김, 『四書』, 77.

22) 將登耳順之年, 漸及懸車之日. 老夫耄矣. 誠無於[以로 읽음]供國用.

23) 曇和尚. 曇은 다르마(dharma)의 통상적인 트랜스크립션으로, 어느 중국인 승려의 범명梵名의 약칭일 것이다.

24) 佛法興流, 庶裨益於聖祚. 厶便事曇和尚廿年. 經論之門, 久承訓習. 緬維生死之事, 迅若駛流. 昨緣愚子枉被某害, 一身單獨, 舉目无依. 今請捨官出家. 伏相公无障聖道, 則小人與身報賀, 万死酬恩. 解脫之因, 伏望哀察.

25) 表, 奏.

이 단편의 완전한 제목은 이렇다. “사원 건립을 위해 집과 재물과 보화, 우마와 전답 등등을 불교 공동체의 지속적 안녕을 위해 보시하면서 사직하고 출가하기 위함.”²⁶⁾

고령의 독거노인, 공무상의 무능력, 불교에 대한 오랜 경험 등등, 이 글의 논지 일부의 용어는 전편과 똑같다. 작자는 종교에 귀의할 뜻을 내보이면서 자신이 스승의 지도로 선禪을 닦으며 불가의 절식節食 규정[때가 아닐 때 음식을 취하지 않는 것, 역자]과 도덕률을 항상 지켜왔음을 상기시킨다. 그는 자신의 집을 사원으로 바꿔도 좋다는 허락이 내려지면 티벳이 그에게 베푼 호의를 결코 잊지 않고 티벳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겠노라 서원한다. 그는 “자줏빛 점토”로 짓고 있는 어떤 건축물이 머잖아 완공되리라 기대하나 아직 그 이름을 받지 못했으니,²⁷⁾ 왕에게 자신의 요청에 호의적인 성지聖地를 내려주십사 간청한다.

[4] 전편과 비슷한 상서

이 단편의 제목에 따르면 작자는 둔황의 절도사다.²⁸⁾ 그는 화상 한 명 또는

26) 捨官出家, 并施宅充寺, 資財馱馬田園等, 充爲常住. 승가 전체에 귀속하는 것으로, 개인이 양도할 수 없는 승가의 재산(常住僧物)에 대하여, 모치즈끼望月信亨, 『불교해설사전』, 2693 참조. 常住僧物은 『小品』Cullavagga, VI, 15의 avissajjiya sanghika들이다.

27) 伏望紫雲修造向終, 名額未到. 이 글의 작자가 자신의 집 옆에 신축 중이었던 어떤 불교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거나, 혹은 자신의 집을 사원으로 개조 중인데 중국 풍습에 따라 현판에 써넣을 이 사원의 공식적 이름을 미처 하사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28) 沙州都上表. 특히 자사刺史들을 감독하는 무관이었다가 후에 절도사란 명칭으로 바뀐 도독都督(“총독”)의 경우처럼, 많은 관직명에 都라는 단어가 보인다.(『辭海』, des Rotours, *Traité des fonctionnaires*, 820) 이 단편의 좀 더 뒤(이어지는 하단의 주 참조.)에서 작자는 자신을 牧守流沙, 즉 티벳인들을 대신해 “퀵샌드quick sand”(沙州, 사막의 관문)를 다스리는 자라고 밝힌다. 牧守는 그가 자신을 태수太守나 자사로 여겼다는 이야기다. 都督이란 말은 아마 투르크어를 거쳐서 왔지만 티벳어(to-dog)가 되었으니, 한 중국인이 티벳인에게 소청의 글을 보내면서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都督의 약어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본서 197, n. 2 및 273, n. 2 참조.

여럿이 티벳 왕의 전언을 갖고 와 그(들)편으로 하례 인사와 자신의 소망을 표하는 것이라 고한다. 이어 그는 자신의 기력이 다했음을 하소연한다. 이 지역이 티벳 “황제”의 위세에 굴복한 지 10년이 흘렀고, 그가 이 “류사流沙” 지역을 다스린 지는 고작 2년 남짓이다.²⁹⁾ 황제가 그를 관직에 임명하면서, “백성百城”의 임무, 즉 한 지역의 통치를 맡기면서 베푼 호의를 받을 자격이 그에겐 없었다.³⁰⁾

이어서 그는 “널리 백성을 구제하면서 사까śākya의 가르침을 현양한” 티벳 왕의 불교적 덕행을 기린다.³¹⁾ 그는 앞서의 단편들이 그렇듯 불자佛者로서의 자기 이력을 상기시킨다. 이제 그의 나이 57세다. 머리털이 빠지고 고독하며 가족도 후손도 없다. 분에 넘치게도 많은 녹봉과 높은 지위를 받아 이를 항상 부끄럽게 여겼다.³²⁾ 그는 “먹물 옷을 걸치게 해주십사” 왕의 허락을 간청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뜻을 과장된 말로 미리 표한다.³³⁾

[5] 자수로 만든 도상 외 다른 [선물들]을 바치고자 [티벳 왕에게 쓴 글]³⁴⁾

작자는 자신의 주주가 산물이 빈약한 (중국의) 아주 먼 변경에 위치해 있음을 밝힌다. 그는 군주에게 바칠 것이 조출한 선물들밖에 없음에 용서를 구한다. 공덕을 얻길 바라면서 그가 왕에게 보내는 것들은 지역 토산물이 아니라 멀리서 그에게 온 것으로,³⁵⁾ 여러 색의 자수로 만든 (성스러운) 도상이거나 목각상

29) 自歸皇化, 向歷十年. 牧守流沙, 纔經兩載[稔의 오기]. 流沙는 둔황 지역의 모래사막 지대를 말한다. 연대에 관해선 본서 275 참조.

30) 承乏備員, 實將尸素. 爲政之道, 字養無方. 虛蒙萬里之恩. 猥忝百城之任. “百城”이란 100개 성城의 도독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고 말해진 한 인물, 북량北涼 왕조의 어느 지방 도독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南史』, 제56권, 8a)

31) 伏維 聖神贊普, 弘揚釋教, 大濟蒸人.

32) 彌慙重祿, 尙荷崇班. 處官位, 乃知策无能. 効駟馳, 則以筋[筋의 속자]力不逮.

33) 伏望矜臣老朽, 許臣披緇. 剖心銘肌, 萬死之誠….

34) (제목:) 進繡像等.

들이다. 이미 약간 오래된 것이지만 그 솜씨는 훌륭하다. 작자는 한 통의 상서와 함께 이것들을 궁으로 돌아가는 어떤 승려(일행)편에 왕에게 보내려 한다.³⁶⁾

[6] 모 (티벳인) 상관에게 보내는 서한³⁷⁾

절기상의 의례적 인사말³⁸⁾에 따르면 이 서한을 쓴 시기는 8월이다. 그렇다면 이 서한이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시기 순으로 보아 좀 더 뒤에, 8번째와 9번째 필사본 사이에 있어야 했다. (필사본 자체에는 일련번호가 없다.)

작자는 당일 전령이 갖고 온 서한을 받았다고 알린다. 그 서한의 발신자는 주(돈항)의 실정을 물었다. 백성의 먼 앞일을 우려하고 부지런히 관료들을 살피는 것은 추호도 악의에서가 아니라 모든 반란의 진압을 독려하고 주민들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³⁹⁾ 이에 대한 회답으로 작자는 자신의 충절과 열성을 맹세하고 몸을 낮춰 무능함을 부각시킨다. 작자는 모 (티벳인) 절도사에게 알리니 그 절도사가 백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신임 티벳인) 유후사留後使 한 명을 파견했다고 고한다. 주주는 (지금) 지극히 평온하다. 주민들이 수확에 열중하니 더 이상의 소란은 없다. 편지 말미의 인사말에서 작자는 자신을 자사로 칭한다.⁴⁰⁾

35) 중국 내지內地에서 온 것이란 이야기가 틀림없다. 右臣州居極邊, 素無物產. 雖心効葵藿, 願欲獻芹, 徒懷萬里之誠, 難辜九重之聖. 前件功德等, 皆自遠而來, 非當土所有. 보시를 가리키는 공덕(功德, *guṇa*)이란 말은 공덕주(功德主, *dānapati*)나 공덕료(功德料, 삼보에 봉헌한 물건들) 같은 용어들 속에도 보인다.

36) 輒煩天聽, 用表愚誠. 謹因僧歸朝, 奉進以聞. 謹進, 厶年厶月厶日, 臣厶進.

37) 제목은 없다. 서한문書翰文이고 공식적 보고서는 아니다.

38) 仲秋漸涼.

39) 今月 日使至奉書慰問, 遠念黎庶, 知不附邪, 早察官寮, 以順討逆, 俾四人康業, 一州權安.

40) 尋申留後使, 蒙節兒至. 安存百姓, 州府底寧. 勉力收穫, 更無驚擾. 伏維昭察. 卑守有限. 拜奉. 謹奉啓起居. 謹啓. 유후사留後使는 당나라 말 무렵(777년 이후) 군軍 절도사들의 명칭으로, 정식 임명된 절도사(도도의 군사 통수권자)들이 공식일 때 그 직위를 대신하는 자들로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후사들은 제멋대로이기 일쑤였고 승인을 받을 것이란 기대 속에서 스스로 절도사라 여

[7] 벗에게 쓴 편지

공무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 단편에서 작자는 수취인에게 “황제의 일”(皇事)이 언제 자신을 “옛집으로” 돌아가게(返故居) 해줄지 묻는다. 그는 수취인에게 둔황의 기후가 몸에 해롭고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8] 티벳의 재상에게 올리는 보고서⁴¹⁾

7월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절기상의 의례적 인사와 복의 기원으로 시작한다. 작자는 말한다. 수취인(또는 왕)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사주는 그동안 수차례 거듭해서 “[풍속을] 바꾸려는 왕의 위력”에, 다시 말해 티벳의 통치에 저항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겨우 끝났고 백성들은 다소나마 마음을 놓았으며 여러 관리들은 정성으로 백성을 돌보았으니, (티벳의 통치) 덕분에 2년이 채 안 되어 각자 생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지난 해 범국충汭國忠이란 자와 그 무리들이 한해瀚海⁴²⁾ 사막으로 도주할 궁리를 했습니다. 일전에 이를 아뢰니 대신

졌다.(des Rotours, *Traité des Examens*, 25, n. 1과 355. *Traité des fonctionnaires*, 825, n. 2 참조) 이 글에서 유후사로 불린 티벳인은 과주에 주재해 있었다.(본서 264, n. 1) 節兒는 “정식 인가 받은 전권사절”인 使持節 또는 持節의 약칭일 것이다. (使)持節은 자사나 지방 군정을 담당한 여타 관리들에게 추가로 부여되는 직함(加號)들이었다. 『辭海』(『卯集』, 114)는 이 직함들이 절도사 제도가 만들어지는 8세기 초반 이후 폐지되었다고 밝힌다. 그러나 894년의 어느 비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 각각 사주와 과주와 감주의 자사였던 이들의 관직명 첫머리에 여전히 使持節이란 형용어가 보인다.(Chavannes, *Dix inscriptions...*, 92~94) 여기 나온 節兒란 용어는 상급자인 과주 절도사가 둔황에 파견한 티벳인 사절의 존칭일지도 모른다.(본서 264, n. 1 참조) 하지만 단순하게, 중국인들이 몇몇 티벳인 군정 관할자에게 붙인 직함인 절도사의 약칭으로 보는 편이 더 그럴듯하다.(본서 264, n. 2 참조) 節兒蕃使에서 使의 용법도 바로 그럴 것이다.(본서 272, n. 1) 卑守有限, 즉 “자사로서 미천한 소인의 직무에 매여”란 표현에 대해선 본서 257, n. 1을 참조.

41) 무제.

42) 瀚海라는 명칭은 일찍이 바이칼 호를 가리켰던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몽골사막 일대, 또는 더 구체적으로 그 중 위구르족이 점령한 북서부 지역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당태종(627~649)은 이곳에 부府를 설치했었다.(Chavannes, *Documents...*, 21, n. 1, 91) 663년부터 669년까지 중국

께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 주천(酒泉, 肅州)으로 유배 보낸 일이 있습니다.⁴³⁾ 하지만 천 리⁴⁴⁾ 밖 그곳에서 그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리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마른하늘에 날벼락 치듯 (그들이 사주성을 습격했으니) 야심한 밤 겹겹이 쌓은 성벽⁴⁵⁾을 넘어와 티벳인 관원들을 도륙했고, 가짜 (옥관玉關) 역호驛戶⁴⁶⁾인 형흥邢興을 세워 탁발拓拔 왕자를 자처했습니다.⁴⁷⁾

인들이 위구르족 거주 지역에 설치한 도호부都護府도 이 이름으로 불렸다.(des Rotours, 『통보』, XXV, 252) 703년부터 한해군瀚海軍이라 불린 군대는 북정北庭(투르판 지역 구청古城子 인근의 Bechbalik[우름치Urumchi 부근. 그러나 오늘날엔 비슈발릭Bishbalik 또는 別失八里로 읽고 표기한다. 역자]. des Rotours, *Traité des fonctionnaires*, 803, n. 2)에 주둔했었다. 자일즈 Giles가 펴낸(*B. S. O. S.*, VI, 934) 9세기의 지리 관련 필사본 단편 역시 이 군대를 언급하는데, 이 단편에서 한해군은 정주(庭州, Bechbalik)에 위치해 있다. 범국충(본서 269~272)과 관련해서, 필사본에는 汜忠國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

- 43) 遠申相府, 罰配酒泉. 配(流配)는 추방형이다. 최근에 그 옛 이름을 되찾은酒泉은 만청시대의 속주肅州로, 둔황에서 300km 정도 떨어져 있다.
- 44) 사주에서 숙주까지의 거리를 어렵잡아 표현한 것이다. (『원화군현지』, 제40권, 8b에 따르면 사주와 숙주의 거리는 780리다.)
- 45) 重城. 본서 271, n. 2 및 Pelliot, 『유고』*Ceuvres posthumes*, III, 126, n. 2 참조.
- 46) 본서 269, n. 1 참조.
- 47) 豈期千里爲謀, 重城夜越, 有同天落, 戕殺蕃官. 僞立驛戶邢興, 揚言拓拔王子. 탁발拓拔이란 성씨 姓氏는 선비鮮卑 혈통의 한 부족의 이름으로, 그 투르크어 명칭(Tabyač)과 후위後魏 왕조(386~534)를 중국에 전해주었고 당대唐代에도 중국 서북면 일대에 두루 퍼져 있었다. 탁발씨 선비의 한 지파支派는 4세기 말부터 중국 서북면으로 이주했었는데 남량南涼(397~414) 왕조를 세운 독발부禿髮部가 바로 그들이다.(P. A. Boodberg, “The Language of the T’o-pa Wei”, *H. J. A. S.*, I, 168 참조.) 『五代史記』, 제74권, 1b에 따르면 탁발족은 감숙과 청해호에 정착한 선비족의 또 다른 부족 토욕혼吐谷渾의 명문대가족들 중 하나가 되었다. 9세기 중반 감숙과 청해호 일대에서 티벳인들 간의 내전에 참여했던 무장들 중 한 명으로, 론공열論恐熱에 반대한 상비비尙婢婢 휘하에서 싸우다 866년에 론공열을 죽였고, 중국과 맹약을 맺은 뒤 그 수급을 장안에 보냈던 자는 탁발회광拓拔懷光이라 불렸다.(『당서』, 제216권하, 7b. 버셀역, 524. 『자치통감』, 제248권, 27b~28a와 제249권, 29b, 30b와 제250권, 47b) 이 자는 십중팔구 토욕혼인이었다. 730년 윤양雲陽(지금의 섬서성 빈현鄜縣, 장안 북서쪽) 태생인 유명한 순례자 오공悟空은 자칭 후위 탁발씨의 후손이라던 차씨차 가문 출신이었다.(Lévi-Chavannes, *J. As.*, 1895, II, 342) 786년 또는 787년에 티벳인들은 섬서성 북쪽 어얼뒤쓰Ordos 지역의 하주夏州에서 당나라 자사 한 명을 내쫓았

그들이 백성을 핍박하여 그 위력에 대한 공포심을 퍼뜨렸으니, (형체와) 빛깔을 분간할 수 없고 깊은지 얕은지도 가늠 안 되는 야심한 밤이면 군졸과 주민들은 겁에 질려 저마다 몸을 숨겼습니다.⁴⁸⁾ 마침 나라⁴⁹⁾의 대덕**bhadanta**께서 성내에 계셔 부상이나 해를 입으셨을까 두려워, 소인이 달려가 이를 알렸고 죽든 살든 같이 있을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또는 그리 할 것을 권했습니다.) 새벽녘에 소인이 나와 뿔뿔이 보루로 내려온 수하들을 불러 모았고, 흩어지지 말 것을 명하면서 군졸들을 규합했습니다. 맹세컨대 소인은 (티벳인) 관원들을 구했습니다. 저희가 아문衙門에 당도했을 때 그곳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곧장 발길을 돌린 저희는 소요를 일으킨 주모자들을 잡기 위해 매복했습니다. 이 비적 떼들 중 일곱은 하늘이 친 그물을 한 발자국도 빠져나가지 못했고, 대덕 마하연 앞에서 추문을 당했습니다. 저희는 본거지⁵⁰⁾에 대해 낱알이 캐몰어 과주에 고했습니다. 어제 저희는 이 비적들을 밧줄로 길게 묶고⁵¹⁾ 칼을 씌워 관원 한 명을 붙여 보내면서 삼엄한 감시 하에 인솔하도록 했습니다.⁵²⁾

는데, 그 자사의 이름이 탁발건휘拓拔乾暉(『구』, 제196권하, 4a. 버셀역, 493. 버셀은 이 이름을 빠뜨렸다. 『당서』, 제216권하, 2b) 또는 탁발조요拓拔朝曜(『당회요』, 제97권, 9a)였다. 대대로 하주를 다스려온 이 어얼뒤쓰의 탁발씨들은 당항족(黨項族, 탕구트족. 언어학적으로 티벳족과 유사함)에 속했었다. 당항족은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다.(『당서』, 제221권상, 1b) 송대宋代에 서 하夏 왕국을 세웠던 이들이 바로 당항족이다. 몇몇 계보학자와 역사가들은 이 왕국을 후위 탁발씨의 후예들이 세운 것으로 본다.(Chavannes, *Dix inscriptions*, 13, n. 1) Eberhard, *Das Toba-Reich Nordchinas*, 332~382와 Stein, “Mi-ñag et Si-hia”, *Actes du XXIe Congrès Int. des Or.*, Paris, 1949, 266도 볼 것.

48) 迫脅人庶, 張皇兵威. 夜色不分, 深淺莫測. 卒人芒怕, 各自潛藏.

49) 國이란 글자 앞에 경의를 표하는 공백을 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나라는 티벳을 가리킨다. 德은 *bhadanta*의 번역으로 “높은 덕을 지녔다”는 뜻의 大德이다.

50) 具中衙帳. 中은 마땅히 申자여야 한다. 衙帳은 틀림없는 일종의 군사령부일 것이다. 摩란 글자 뒤에 더해 訶衍이란 문자가 (필적은 같고) 더 작은 크기로 적혀 있다.

51) 索은 과주의 행정 당국이 사주에 사람을 보내 죄인들을 찾게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52) 爲 國德在城, 恐被傷害, 么走報迴避, 共同死生. 及至天明, 么出招集所由, 分頭下堡, 收令不散, 誓救諸官. 么比至衙門, 已投烈火. 遂即旋踵, 設伏擒姦. 其賊七人不漏天網, 並對大德摩訶衍推問. 具

이런 일들이 있는 후 (과주의 티벳인) 유후사는 사주에 (암살당한 전임자를 대신하기 위한 티벳인) 신임 전권사절을 파견하려 했습니다.⁵³⁾ 백성들은 전적으로 평온합니다. 저마다 농사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동도東道”의 “군주軍州”에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격식을 갖춘 의례적 문구로 끝난다.⁵⁴⁾

中衙帳, 并報瓜州. 昨索賊釘枷, 差官銅送. 銅은 鋼의 오식이다.(본서 267, n. 2 참조) 鋼는 禁鋼나 鋼身 같은 표현들 속에서 “감옥에 넣다, 가두다, 칼을 씌우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53) 訖已, 蒙留後使差新節兒到沙州. 본서 261, n. 2 참조.

54) 百姓具安, 各就豐[農으로 읽음]務. 其東道軍州, 不報消息. 伏惟昭[照로 읽음]察, 卑守有限. 군주軍州란 용어는 아마 티벳의 군부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당서』, 제67권, 1a에 하서의 절도사가 710년에 만들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명칭 안에 군주란 용어가 복수 형태로 들어 있다.(河西諸軍州節度) 그러나 이와타Hwata(『동양학보』, 제23권, ii, 116a)에 따르면 이 경우 軍州는 “하서의 군대와 주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서의 절도사는 양주, 감주, 속주, 이주伊州, 과주, 사주, 서주西州 등 하서의 일곱 개 주들 외에도 여러 군대를 관장했기 때문이다.

동도東道란 티벳 제국의 거대 행정구역 내지 군사구역들 가운데 어느 한 중심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도도는 당나라 시대에 중국 지방들의 명칭이었다. 이 지방들 중 일부는 예컨대 산남도山南道처럼 동도東道와 서도西道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룡우와 하서 같은 북서부 지방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동도”란 말은 마땅히 티벳 제국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지, 티벳인들이나 그들의 중국인 신하들이 중국의 행정지역 용어를 갖다 쓴 것으로 봐선 안 된다. 이 도란 단어는 8세기 초 무렵부터 중국에서, 절도사들이 다스린 변경에 위치한 군사 지역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 이 지역 국경 수비대를 통솔한 자들이 절도사였다. 글자의 발음이나 형태가 같긴 하지만 이 군사 지역들(道)은 적어도 얼마 동안은 행정 지역명(道)과 구별됐던 것으로 보인다.(des Rotours, *Traité des fonctionnaires*, 786 이하 참조)

한문 전적들이 도라 일컫는 티벳의 지역들은 군주 관부들로 나뉘어 있었던 것 같고, 이 관부들을 가리키는 말이 한문 전적들에 나온 節度(使)인 것 같다.(본서 240, n. 6 참조) 『책부원귀』, 제961권, 吐蕃傳, 17a에 따르면 송젠감빠가 티벳을 통일했던 당시(吞併諸蕃) 그 영토가 평방 천리에 달했는데, 그는 열 곳의 절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매 단위마다 고위급 대신들에게 그 통치를 맡겼다 한다.(每十節度置一上相統之) 768년 직전에 아마 유명한 상결심아(상 티숨제. 본서 288, n. 3 참조)의 부친이었을 상찬마尙贊摩는 상실결尙悉結을 이어 東面節度使專河隴이 되었다.(『당서』, 제216권하, 1a. 버셀 번역, 482) 762년 무렵 속주(지금의 감숙성 주천酒泉)의 중국인 자사가 상찬마에게 쓴 어느 서신에서는 이 인물을 일컬어 “동쪽 도도의 여러 절節(度使)들을 쥐고 있었던, 티벳 왕의 중요한 신하들 중 한 사람”(본서 299, n. 2 참조)이라고 했다. 789년 당나라 군대는

휴주瓜州 지역(지금의 사천성)에서 청해와 엽성獵城의 “티벳인 절도” 두 명에게 패전을 안겼다. (吐蕃青海獵城二節度. 『구』, 제196권하, 7a. 버셀 번역, 503. 엽獵 대신 납臘을 쓰기도 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 발견된 명칭은 그렇다.) 800년에 당나라 무장 위고韋臯는 티벳인 수장 마정덕馬定德의 항복을 받았는데, 마정덕의 직함은 영롱관嬰龍官으로 낭공[.] 남성 등 아홉 개 절도사를 다스리던 자였다. (吐蕃酋師[帥로 교정]兼監統囊貢臘城等九節度使?龍官馬定德. 『구』, 제196권하, 8b. 버셀 번역, 509. 『당』, 제216권하, 4b. 『구』, 제140권, 위고전傳, 2a 및 『당』, 제158권, 2a 참조. 『자』, 제236권, 36a) 龍字 앞의 鬚자는 오식일 공산이 크고, 쓸데없이 덧붙여진 글자임에 틀림없다. (백납본 『구당서』, 열전列傳, 제146권하, 11b, 14~12a, 1에는 또 다른 글자 하나,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이해할 수 없는 글자 두 개가 나온다. 이 글자들 역시 오식으로 봐야 할 것이다.) 龍官龍官이란 용어는 한문 문헌들 속에서 티벳인 관리들을 가리키는 말로 재차 등장하곤 한다. 776년 “대룡관大龍官” 한 명이 포로로 잡힌다. (『당서』, 제216권하, 1b. 버셀 번역, 484) 789년에는 45명(『구』, 제146권하, 7a. 버셀 번역, 503)을, 797년에는 7명(『구』, 제216권하, 8a. 버셀 번역, 507. 『당회요』, 제97권, 10b. 『책부원귀』, 제987권, 4b)을 생포한다. 거기다 티벳인들에 맞선 21년간의 원정 중 1,500명의 절도節도와 도독都督과 성주城主와 龍官을 포로로 잡거나 죽였다는 위고의 말도 있다. [『당서』, 제158권, 2b] 어쨌거나 마정덕에 관한 이야기에서 관련 인물은 버셀의 번역이나 『구당서』 백납본에 따르면 마치 두 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단 한 명일 것이다. 802년에 위고는 사천성 유주維州 앞에서 “내정을 담당한 대상 겸 동쪽 변경 지역 다섯 개 도의 절도병마사이자 유목민들의 통솔자”(內大相兼東境五道節度兵馬使都統羣牧大使)란 직책에 있던 티벳인 수령 론망열(論莽熱, 璽莽세르Blon Man-bzer)을 생포하기도 했다. (『구』, 제196권하, 9a. 버셀 번역, 510. 『구』, 제140권, 2b. 『당서』, 제158권, 2a. 『자』, 236권, 37b. 『책』, 제987권, 6a. Laufer, 『통보』, XV, 82, n. 3에 따르면 론망열은 인명人名이 아니라 內大相, blon man-bzer이란 직함의 트랜스크립션이다. 과연 『당서』, 제216권상, 1a에서 중국어로 內相인 낭원첸보 nan-blon che[n]-po[囊論掣逋]의 직함들 중 하나를 옮겨적을 때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이 트랜스크립션, 論莽熱이다.) 『당서』, 제216권하, 4b, 11에는 “동쪽 변경” 대신 “松州”라는 다른 형태로 나온다. (兼松州五道節度 운운) 송주는 감숙성의 경계 부근, 지금의 사천성 서북면 송반현성松潘縣城 내에 자리하고 있었다. 티벳의 동쪽 “도절도(사)道節度(使)”는 바로 여기에 주재했을 것이다. 821년의 어느 표문表文에서 왕예王涯는 그 옛날 송松이란 중국의 주가 있었던 성城이 오래 전부터 “티벳 절도”의 소재지였다고 고한다. (故松州城, 是吐蕃舊置節度之所, 『구』, 제169권, 4a, 1. 『책』, 제993권, 21b) 809년과 814년 사이에 (세랑드의) 사진 및 북정(北庭古城 지역)의 행군과 (감숙甘肅의) 경주, 원주 등지의 중국인 절도사 주충량(四鎮北庭行軍涇原等州節度使 … 朱忠亮)이 이웃한 티벳인 론걸도리論結都離에게 보낸 한통의 서한(『백씨장경집』, 제40권, 30a~31b. 이 서한의 막연한 연대는 주충량의 전기에서 어림잡은 것이다. 『당서』, 제170권, 2b. 『구』, 제151권, 3a)에서, 이 티벳인은 “大蕃東道節度使”란 직책으로 불린다. 『책부원귀』, 제980권, 15b는

812년 론고도論誥都(여기서 誥는 詰의 오식일 수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는 앞선 서한 속 인물과 동일인일지 모른다.), “티벳의 동도 절도, 재상(이기도 했던?) 상기심아(상 티쑤제)”(吐蕃東道節度論誥都宰相尙綺心兒)의 편지 한 통이 당나라(장안 서쪽) 봉상鳳翔의 절도사 이원수李惟蘭에게 발송된 일을 언급한다. 822년 유원정劉元鼎이 티벳에서 당번唐蕃 회맹조약을 체결하고 돌아올 때, 하주河州(지금의 감숙성 임하臨夏, 청대清代의 난주蘭州 남서쪽)를 지나는 길에 어느 티벳 도원수都元帥의 영접을 받은 일이 있다. 이때 유원정에 대한 예우로 동쪽의 절도(사)들인 티벳 장수들 100인 이상이 대하천大夏川에 운집해 있었다.(『책』, 제981권, 19a, 東節度使. 『당』, 제216권하, 6b. 버셀 번역, 521, 東方節度.) 『책부원귀』에 따르면 상탑장(尙塔藏, 상딱상Zaṅ Stag-bzan. 『당서』의 표기는 尙塔藏)이라 불린 이 도원수는 재상 상기심아(상 티쑤제)와 다른 인물이 아니었다.(即蕃宰相尙綺心兒也) 『구당서』, 제196권하, 11a(버셀 번역, 519)에 따르면 유원정이 하주에서 티벳의 상서령尙書令이자 도원수인 상기심아(본서, 283 참조)를 만난 것은 그보다 앞서(初) 티벳에 갔을 때가 아니었나 싶다. “東道節度”란 직함은 849년, 중국이 북서지역을 탈환하기 직전에 재등장한다. 이 해 벽두에 티벳의 동도절도사가 항복(『구』, 제196권하, 11b. 버셀 번역, 524)하거나 죽임을 당했다.(『자치통감고이』, 제22권, 7a-b에 인용된 사료들. 『자』, 제248권, 28b) 당시 중국에 항복했던 주들로 아마도 티벳의 이 동도절도가 다스렸을 지역들, 즉 진주秦州(지금의 감숙성 천수天水현)와 원주原州(감숙성 고원固原현)과 안락주安樂州(녕하寧夏성 중위中衛현)는 오늘날의 감숙성과 녕하성 남동부에 위치해 있었다.

토마스가 연구(J. R. A. S., 1933, 380. *Tibetan Literary Texts*...; I, 282 이하)한 티벳 문헌들에 따르면 티벳 제국은 네 개의 루ru 또는 “뿔(角)”(이것이 티벳 관련 한문 문헌들에 등장하는 도일까?)로 나뉘었고, 이들 각각은 다시 퉁뽀stōn-dpon, 즉 천호千戶의 우두머리들(이들이 한문 문헌에 등장하는 節度[使]들일까? 둔황 연보와 바코Bacot..., *Documents*..., 63과 69는 755년 둔황 지역 퉁사르(Stōn-sar, 東薩爾)에 세 명의 퉁뽀를 임명했다고 언급한다.)이 통솔하는 퉁데stōn-sde, 즉 “천 개의 부락(千戶縣)”으로 나뉘어 있었다. 당나라와의 국경은 왼쪽 지역(ru), 즉 남쪽 지역(ru) 관할이었다. 793년 사천성 북서 지역에서 위고가 티벳인들에게 안건 패배를 언급한 문헌이 티벳인 수령 론망열(blōn mañ-bzer)을 “南道元帥”란 직함으로 부른 것(『구』, 제196권하, 8a, 1. 버셀 번역, 506. 『구』, 제140권, 2a, 3. 『당』, 제216권하, 4b, 1과 제158권, 1b, 13)은 제국의 이 편제를 암시하는 것일까?

하지만 어쩌면 여기서 道는 어떤 지리적 구역이 아니라 그 본래의 뜻인 길(또는 진로chemin)의 의미로 쓰인 것일지 모른다. 道란 말은 중국에서도 군사용어로 길을 뜻한 경우가 간혹 있었다. 635년 당나라는 코코노르의 토욕혼인들에 대한 군사원정을 개시했다. 당시 코코노르 지역의 서해도西海道, 적석도積石道, 선주도鄯州道 등 모든 이동로(道)마다 “행군대총관行軍大總管”들이 임명되었다.(『당』, 제193권, 5a, 토욕혼에 관한 장) 이는 물론 전쟁에 군대를 나누어 배치하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조금 후인 670년 토욕혼인들은 티벳인들의 공격을 받자 당나라에 도움을 청

[9] 모 (티벳인) 상관에게 고향

이 단편이 작성된 때는 9월로 돼 있다. 서두와 말미의 정형구는, 그 수신자

했다. 당시 무장 한 명은 “라싸 원정길(道)에 오른 군대의 최고 지휘관”(邏娑道行軍大總管)으로, 다른 한 명은 “양주 원정길에 오른 군대의 최고 지휘관”(涼州行軍大總管)으로 임명되었다.(『구』, 제196권상, 3b. 버웰 번역, 448. 『당』, 제216권상, 3a) 두 직함들 중 첫 번째에서 “邏娑道”의 道는 “길, 이동로”란 의미 외엔 달리 읽을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676년에도 당나라 장수들이 “조주 원정길에 오른 군대의 원수들”(洮州道行軍元帥)로 임명되었고, “양주로의 원정길”(涼州道)에서도 역시 그랬다.(『당』, 제216권상, 3a-b와 4a, 690년과 691년 참조.) 더욱이 『당서』의 『兵志』(des Rotours 번역, 786)는 道란 군사용어로, 역시 道로 불리던 지방들의 조직과는 다른, 별개의 조직을 가리켰다고 설명한다. 앞에서 인용한 문헌에 따르면 이들 군사적 道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띤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위고의 전기를 읽노라면 사천에서 운남雲南에 이르는 통로, 즉 南道(“남쪽 길”)라 불린 길이 있었고, 위고가 793년 티벳인들과 싸워 승리한 뒤에 이 길이 다시 열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당』, 제158권, 2a, 3) 앞에서 이미 인용한 펠리오 장서 2555번 필사본에는 770년에 숙주의 중국인 자사가 그 이웃의 티벳인으로 “동도東道の 여러 절도節度を 쥐고 있던” 상찬마에게 보낸 한 통의 서한이 담겨 있다. 이 서한의 제목은 “남쪽의 티벳(관리)에게 답함”(본서 292 이하)이다. 지금 보고 있는 여덟 번째 필사본이나 열 번째 필사본에 나온 道의 경우, “길”과 “행정구역”이란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쪽인지를 가려내기란 어렵다.

티벳어 루루에 관해선 중국어 旅(“군사들의 무리brigade”. 500명을 하나의 부대로 묶는, 고대 중국의 군대 편제 단위)의 차용어로 생각해볼 수 있고, 토마스도 旅를 보통 “brigade”로 번역한다. 하지만 旅에는 어떤 영토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고, *Documents de Touen-houang relatifs au Tibet*의 번역(40, n. 3)에서 바코Bacot는 旅를 “깃발(旗)들bannires”로 옮기곤 “영토상의 구역”이라고 해설했다. 아마 이 용어는 차라리 알타이인altaique들의 정치 용어에서 “뿔角”을 뜻하는 단어들에 가까운 용어인 것 같다. P. A. Boodberg(“Marginalia to the Histories of the Northern Dynasties”, 3, The Altaic Word for Horn in the Political Nomenclature of the Steppe”, *H. J. As. St.*, IV, iii-iv, déc. 1939, 230~239)에 따르면 한나라 시대에 흉노족은 십각十角을 갖고 있었는데 모두 선우單于의 아들과 형제들이었다. 또 당나라 시대에 서위吐르크족은 좌우로 다섯 개씩 열 개의 oq(화살箭이란 뜻)을 두었는데, 이는 흉노족의 옛 조직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에 비춰 본다면 투르크어 oq의 어원적 의미는 뿔이며 거기서 부족들이나 유목민 무리들이란 의미가 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oodberg의 추측들 — 그야말로 추측들의 연속이다 — 이 맞다면 티벳의 루루는 투르크인들에게서 차용한 말일 것이다. 뚜쨈Tucci 역시 티벳 제국의 루루 조직이 투르크인들(과 더 나중의 몽골인들)의 것과 비슷했다고 믿는 쪽으로 기울다.(*Tibetan Painted Scrolls*, 737~738)

가 모 국무대신으로 적시돼 있는 여덟 번째 단편에 나온 것과 같다.⁵⁵⁾ 작자는 고한다. 불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은 이미 아뢰 대로 처형되었고, 강압에 못 이겨 그들을 좇았던 자들은 호의를 베푸신 덕분에 삼엄한 감시 아래 과주로 보내졌습니다.⁵⁶⁾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생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신임 티벳인) 절도가 당도했습니다. 포세布稅⁵⁷⁾와 맥세麥稅는 당연히 전부 거둬들일 겁니다. 작자는 감히 청하길, 하지만 더운 바람이 새순을 썩게 만들었으니 절반만 감면해 달라 한다. 그리하면 백성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면서,⁵⁸⁾ 앞서 백성들은 쟁기를 끌 소는 물론이고 강철로 만든 농기구들도 없이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했다. 작자는 소와 농기구가 필요하다는 청원(들)을 이미 했으나 아직도 후속 조치가 없음을 상기시킨다. 겨울부터 손쓰지 않으면 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한다.⁵⁹⁾

[10] 서한

9월에 쓴 이 서한에서 작자는 편지를 주고받기에도 너무 멀리 있어 한동안 소원했던 수취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밝힌다.⁶⁰⁾ 그는 수취인의 건강을 기원하고는, 장청張淸이란 자와 그 일당이 사람들(간수들)을 죽이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동쪽의 옥관 역호⁶¹⁾에서 달아난 경위를 고한다. 말을 흠치고 갑옷을 탈취

55) 季秋已冷. 伏惟 尊體動止萬福. △蒙恩, 운운. 말미의 문구는 이렇다. 伏惟照察. 卑守有限. 謹回.

56) 叛逆之人, 已聞伏法. 脅從之類, 錮送瓜州. 伏法, 즉 “형벌을 달게 받다”란 표현은 “처형되다”란 뜻이다.

57) 피륙으로 바치는 공납은 조調라 불렀다.

58) 百姓具安, 各就生計. 節兒到上訖. 所稅布麥, 誠合全輸. 屢熱風損苗, 犯顏申訴尙論仁造, 半放半徵. 凡厥邊氓, 不任胥悅. 邊氓이 아니라 邊民이 맞을 것이다.

59) 又緣種蒔, 例乏耕牛. 豐[農으로 읽음]器之間, 苦無鏹鐵. 先具申請, 未有處分. 冬不預爲, 春事難濟. 伏惟照察. 卑守有限.

60) 執別稍久, 傾注良多. 尺素間然, 方寸何解? 季秋霜冷, 伏惟 動止康愈.

61) 본서 269, n. 1 참조.

한 그들은 전속력으로 천릿길을 달려 사주로 향했고, 삼수(三宿, 자정 무렵)에 당도했다. 동도東道(또는 구역)의 봉화대⁶²⁾에선 눈곱만큼의 경고도 없었다. 반역자들은 한밤중에 중성重城을 넘어와 수비군을 도륙했다. 마을 장정들은 모두 들만에 있었고 집안엔 노인과 아이들뿐이었다. 방비를 소홀히 한 티벳인 관원들은 화禍를 예견하지 못했다. 아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여하한 대항도 하기 힘들 뻔 했다. 새벽녘에야 비로소 작자는 수비병들을 소집해 역도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고 그 태만함 여부를 가리 고자 진영에 이를 고했다.⁶³⁾

[11] 옥관 역호를 나온 범국충 등 역도 여섯 명의 의복과 갑옷과 무기에 대해 사주(둔황)에서 고함.⁶⁵⁾

이제 보신 물건들은 도적놈들 것입니다. 이들이 대성大城을 넘어 자성子

62) 망루에서 밤에 신호로 올렸던 불을烽이라 한다. 낮엔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냈는데 이를燧라 한다. 티벳인들의 이 망루에 대해서는 『당서』, 버셀 번역, 441과 토마스, *J. R. A. S.*, 1933, 381을 참조.

63) △推免. 玉關驛戶張清等, 從東煞人聚徒逃走. 劫馬取甲, 來赴沙州. 千里奔騰, 三宿而至. 東道烽鋪, 煙塵莫知, 夜越重城, 損[害를 뒤틀어야 할까?]官守. 丁壯適野, 老幼在家. 蕃官慢防, 不虞禍至. 人吏散亂, 難與力爭. 稍禽[惟로 교정?]天明, 招誘擒獲. 具申牙帳, 冀表忠貞. 披豁未從[?], 空勞寐寤. 珍重珍重. 推免은 필시 推恩(『孟子』, Couvreur 역, 『四書』, 317)으로 읽어야 한다. 推恩은 “(소인에게까지) 베푸신 은혜 덕분에”란 뜻으로, 서한문 첫머리에 쓰는 관용구다. 앞 필사본들의 蒙恩에 해당한다.

64) 沙州狀逆賊玉關驛戶汜國忠等六人衣甲器械全. 이 보고서는 범국충 무리의 의복이나 무기 등과 함께 전달됐음이 분명하다. 이 필사본은 옥관역玉關驛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적시하지 않는다. 슈타인 필사본 2669번은 둔황현縣의 12개 향鄉들 중 하나로 옥관향玉關鄉을 언급(Giles, *B. S. O. S.*, VII, 551)하고, 슈타인 필사본 6454번의 간기(761년. Giles, 상동, IX, 12)에도 옥관역의 소재지는 마찬가지로 둔황현과 둔황군郡에 속했다고 적혀 있다. 옥관은 (본서 273, n. 5에서 말한 것처럼) 아마 옥문관玉門關의 약칭일 것이다. 옥문관은 누란樓蘭과 타림Tarim을 거쳐 서역으로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던, 한대漢代의 유명한 관문이었다.

기원전 100년 무렵(Giles, 같은 책, VII, 552~554 참조) 둔황 서쪽 100여 킬로미터(『통보』, XIV의 슈타인의 기록에 따르면 북위 40° 22', 동경 93° 50' 지점)에 세워진 이 관문은 과주(지금의 안

서현安西縣 남쪽 과주진瓜州鎮. 둔황 북동쪽으로 100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출발해 하미와 투르판 등지를 향하는 북서쪽 우회로가 서역과의 주된 교통로가 되면서 버려졌지만,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 보존돼 있다. 둔황 출신으로 북량北涼 때 사람이면서 특히 저거목진沮渠牧犍 시대(433~439, 『魏書』, 제52권, 7a 참조)에 양주涼州(지금의 감숙성 무위武威)를 다스렸고, 따라서 그 지역을 익히 알았던 감인關隴의 『十三州志』에 따르면, 이미 한나라 때 옥문관의 방어를 포기했을 것이고 주둔군(屯守屯戍)은 옥문관에서 당시 옥문현玉門縣이라 불린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둔황 동쪽으로 250여 킬로미터 거리에, 안서(과거의 과주)와 주천(酒泉, 과거의 숙주) 중간에 역시 같은 지명의 현 하나가 더 있다. (안사고顔師古의 『漢書』 주석, 제28권하, 2a에 있는 關隴의 인용 참조. 813년과 815년 사이에 집성된 원화元和 시대의 지리서 『원화군현도지』, 제40권, 6b에는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원 출처에 대한 언급 없이 재차 등장한다. 『자치통감』, 제213권, 22a, 727년 관련 대목에 주석을 달았던 10세기 문인 송백宋白의 설명 역시 참조할 것.)

옥문현은 627년에 행정상 폐지되었다.(『당서』, 제40권, 8b. 『구』, 제40권, 28a) 그 뒤 티벳인 침략자들의 위협이 있자 옥문은 하나의 “수비군”, 즉 옥문군玉門軍이 되었다. 『당서』, 제40권, 8b는 개원開元 연간(713~741) 옥문군이 설치된 것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710년의 어느 영지令旨에는 이미 “玉門軍使”에 대한 언급이 있다.(『唐大詔令集』, 제130권, 9b. 본서 294, 727년에 관한 본문의 서술과 n. 5 역시 참고할 것.) 『원화군현지』, 제40권, 2a에 따르면 옥문“군軍”은 618~626년에 양공인楊恭仁이 설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화군현지』와 위에 언급한 『자치통감』의 주석은 727년에 티벳인들의 공격을 받았던 이 옥문군이 숙주 서쪽으로 200리 거리에 있었다고 기록한다. 슈타인 컬렉션의 『둔황록敦煌錄』(『대정신수대장경』, no. 2091, 998a, 자일즈Giles의 번역, *J. R. A. S.*, 1914, 703~736)도 마찬가지로 사주의 “옛 옥문관을 주의 동쪽으로” 옮겼음을 언급한다. 옥문군은 3,000명의 장졸로 구성돼 있었다.(『全唐文』, 제23권, 1b, 현종玄宗의 칙령. 여기서 그는 그의 오기誤記다. des Rotours, *Traité des fonctionnaires*, 801, n. 1 참조.) 옥문현은 755년 가서한哥舒翰에 의해 재건됐을 것이다.(『당서』, 제40권, 8b. 『원화군현지』, 제40권, 7a) 그렇지만 759년의 한 간기(슈타인 필사본 5357번. Giles, *B. S. O. S.*, IX, 15) 속에 여전히 “玉門軍副使”란 직함이 보인다. 8세기 말 티벳에 정복당한 뒤 옥문이란 이름은 행정 지명에서 사라졌다가 청대清代에 와서야 옥문현으로 복원됐고, 그 후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왔다. 당대唐代에 옥문현은 숙주(지금의酒泉)에 속하면서 숙주 최서단最西端과 과주 지역의 경계를 표시했을 것이다.(『甘肅通誌』, 1736년 판본, 제3권, 102a 참조.)

옥문관으로 말하자면, 크나큰 역사적 명성을 얻게 된 이 명칭은 당대唐代에 서역 교통로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국경 감시를 담당한 관청이 설치돼야 마땅한 역참들에 붙여진 것이었다. 629년 인도로 출발할 때 현장은 과주에서 북쪽으로 50리 — 약 15킬로미터 — 떨어진, 호로하蘆蘆河(지금의 소록하疏勒河) 기슭의 옥문관을 찾았다.(Stein, “La traverse du dsert par Hiuan-tsang en 630 ap. J.-C.”, 『통보』, XX, 339~343 참조.) 『원화군현지』, 제40권, 9b는 813~815년에 과주

의 행정 중심지(治所)인 진창현晉昌縣(이곳이 티벳 문헌들에 나오는 “瓜州晉昌”이다. Thomas, J. R. A. S., 1934, 93과 Bacot, Documents, 47. 본서 202 참조.)에서 동쪽으로 20보(步, 약 30여 미터) 거리에 옥문관 한 곳이 있었다고 하면서, 둔황 서쪽에 있던 한 대漢代의 “옛” 옥문관(玉門故關)과 애써 구분한다. 歩란 글자가 오자誤字가 아니라면, 이 시기에 “옥문관”이라 불린 국경 관리 역참이 과주 내에서도 진창현의 행정관청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단 말인가? 옥문관(이 있던?) 진창성시(또는 성채?), 즉 玉門關晉昌城을 언급하고 있는 『隋書』, 제84권, 8a(샤반이 번역한 『西突厥史料』 Documents sur les Tou-kiue..., 18. 610년의 일들을 기록한 대목)의 한 문장에서 그런 결론이 나올 성싶기도 하다. 938~942년 고거회高居誨가 호탄에 갔을 때, 그는 당시 중국과 티벳의 국경 바로 앞인, 과주 동쪽의 옥문관을 통과했다.(『五代史記』, 제74권, 4b) 따라서 옥문관은 샤반이 지적(Dix inscriptions..., 67, n. 2)했듯이 수당隋唐시대에는 다소간 “유동적”이었던 것 같다. 우리 필사본에 나온 “玉關”은 하나의 역驛이었고 역도들이 이곳에서 한해瀚海사막(본서 262, n. 1)으로 달아났다고 하는 만큼, 이는 “돌투성이 사막”인 고비사막의 입구(北山, 현장이 말한 “모래강流沙河”『西遊記』에 나오는 표현이다. 역자)로, 과주 북쪽에 위치한 옥문관을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읽고 있는 필사본 문치의 8번째 단편에서 사주의 중국인 절도사는 말하길, 옥관 역도들이 사막으로 도주(내지 탈옥을 도모)한 것을 티벳 재상에게 알리고자 글을 쓴다고 했다. 이 말을 들으면 옥(문)관의 소재지가 과주에 있지 않고 사주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터, 그렇다면 여기서의 옥관은 슈타인 필사본 2669와 6454번의 옥관“향郷”일 것이다. 1944년 『眞理雜誌』(重慶, 제1권, iv)에 발표된, 옥문관과 양관陽關에 대한 향당尙達의 연구가 있지만 입수할 수 없었다. 본서 308의 주와 권말의 보유편, 365~366*도 참조할 것.

*[다음은 「보유편」의 해당 대목을 옮긴 것이다. 역자] 스벤 헤딘Sven Hedin 탐험대가 감숙성에서 찾아낸 한대漢代 목간들의 교정 편집자이자 석학인 라오간勞幹은 1947년에 “Étude sur les vestiges des Deux Passes”(「두 관문의 유적 연구」, Bull. Hist. Phil., Ac. Sinica, XI, 287~296)라는 논고를 발표했다. 그는 이 연구에서 옥문관과 양관의 있던 위치 추정들과 남아 있는 흔적들을 하나하나 검토한다.

라오간은 한대漢代의 옥문현玉門縣이 있던 곳은 청대清代에 복원된 옥문현의 현재 위치와 달랐고, 한나라의 옥문현은 동쪽으로 훨씬 더 먼 곳, 즉 주천酒泉(숙주) 서쪽으로 450리가 아니라 220리, 필시 오늘날 이른바 적금소赤金所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한나라 초기에 최초의 옥문관이 세워진 곳도 바로 그 근처, 아마 지금의 적금협赤金峽이었을 것이라 한다. 알다시피 샤반과 슈타인은 『사기』의 한 구절에 의거해 옥문관의 최초 위치를 둔황 동쪽으로 잡고 기원 전 100년 무렵 서쪽으로 옮겨진 것(『통보』, XIV, 슈타인의 지적)이라는 제안을 이미 했었다. 자일즈L. Giles가 이 설說을 비판했다.(B. S. O. S., VII, 553~554) 이 문제는 라오간이 제기한 주장들에 비추어 다시 검토해볼만 하다.

라오간은 과주 북쪽으로 50리에 위치해 있었고 629년 현장이 지났던 당대唐代 초기의 옥문관을

城⁶⁵⁾ 안에 침입해 판돌判咄(?) 등과 경비를 서던 위병 여럿을 죽인 것이 이달⁶⁶⁾ 11일 사경(四更, 새벽 1~3시)의 일입니다.⁶⁷⁾ 하賀라 불리는 한 백성이 달려와 이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어두운 탓에 그는 (침입자들이) 몇이나

지금의 고육성苦峪城 북쪽 약 50리에 있는 고성古城의 잔해로 보고 있다. 고육성은 주천 서쪽 480리, 둔황 동쪽 300리에 위치한다. 그런데 『원화군현지』가 가리키는 바에 따르면 그 거리에 있는 것은 바로 과주여서, 라오간은 당나라 때의 과주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만 하고, 오렐 슈타인이 추측한 대로 지금의 안서安西 부근의 과주성瓜州城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과주성은 동쪽으로 훨씬 더 먼 곳에, 주천에서 약 600리, 둔황에서 195리 되는 곳에 있다.

738년에 옥문관을 지났던 잠삼쑤參의 시편들에 의하면 옥문관은 8세기까지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옥문관을 과주 동쪽으로 이전한 것은 8세기 말과 9세기 초 사이의 일로 보이는데, 이는 814년 무렵의 문헌인 『원화군현지』를 통해 입증된다. 내가 이용한(본서 270) 금릉서국金陵書局 목판본(1880) 『원화군현지』는 옥문관을 진창현에서 동쪽으로 20보에 위치시킨다. 진창현은 과주의 행정 중심지가 있었던 곳이다. 라오간은 “20보” 대신 그 거리를 “一百五十步”로 본다. 그가 이수치를 또 다른 『원화군현지』 판본에서 찾아낸 것인지, 나는 그 여부를 모른다. 대남각총서岱南閣叢書본에도 역시 “20보”로 나온다. 내가 잘못 안 게 아니라면 최상의 판본은 장구현張駒賢의 비판적 주해가 달려 있는 기보총서畿輔叢書(1887)본으로, 『총서집성叢書集成』, fasc. 3084-3095에 재수록돼 있다. 이 판본(fasc. 3095, p.1165)에는 “20보”로 돼 있으나, 장구현은 주해(같은 곳, p.1184)에서 왕기王琦(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원화군현지』의 인용에 의거한 변형인 “20리”를 거론한다. 훨씬 더 그럴듯한 이 이본異本의 언급이 정당일 가능성은 아주 높다. 리자와步자를 혼동하기란 쉬운 일이었다.

옥문玉門은 스타엘 홀슈타인Staël-Holstein의 호탄어 필사본 중 한 지명地名 목록에서 *Gākāmā'nā*란 형태로 등장한다.(H. W. Bailey, *Asia Major*, II, 1951, 12) 이 필사본은 구스타프 할로운Gustav Haloun에 따르면 865년의 것(같은 곳, 1)으로, 옥문은 할로운이 고증하고 있는 일련의 다른 지명들과 더불어 과주와 숙주 사이에 언급돼 있다. 옥문현縣도 옥문군軍도 9세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던(본서 269, n. 1 참조) 만큼, 이때의 옥문은 옥문관關을 말한 것임에 틀림없다. 역驛과 향鄉은 옥문玉門이 아니라(본서 269, n. 1 참조) 옥관玉關이란 형태로만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65) 분명 성시 외곽을 방어했던 바깥쪽 성곽과 성시 요새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子城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辭海』를 참조하기 바란다.)

66) 7월 8번째 단편 참조.

67) 右件賊今月十一日四更薨大城入子城, 煞却[却으로 수정]監使判咄等數人. 判咄은 (判官의?) 오자일 것이다.

되는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론 마침 수확기였던 탓에 모두들 성 밖에 나가 있었고, 소임자 몇이 성내에 남아 있었으나 그들조차 겁에 질려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⁶⁸⁾ 사태의 추이가 나빠지는 것을 본 소인은 티벳의 대덕을 찾아(일어난 일을) 고하고, (대덕과 상의하여) 함께 위기를 면할 방도를 찾을 요량으로 용흥사龍興寺⁶⁹⁾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날이 밝았습니다. 소인이 밖으로 나가 십여 명의 백성을 모았지만 도적들에 대항하는 데 쓸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맹세컨대 소인은 (맞붙어 싸우느니) 티벳인 절도사[또는 유후사]를 구할 결심으로 무리를 이끌었습니다.⁷⁰⁾ 저희가(안쪽) 자성 남문 아래 당도했을 때는 절도사와 다른 (티벳인 관원들)이 이미 (그들) 처소에 불을 붙인 뒤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칼로 베고 자신들의 칼 끝 위로 쓰러지면서

68) 其夜有百姓賀走報。爲夜黑，不知多少。復百姓收刈之時，盡在城外。城中縱有所由，忙怕藏避。所由는 성의 방비를 “담당했던 자들”이다. 본서 263, n. 5와 Duyvendak, 『통보』, XXXVIII, 299 참조.

69) 龍興寺는 사주의 불교 사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이었다. 사주 사원들의 이름이 적힌 어느 목록을 보면 제일 먼저 용흥사가 언급될 뿐 아니라, 슈타인 필사본 2729번의 간기에서도 승려들 수가 가장 많은 사원으로 꼽혔기 때문이다.(Giles, *B. S. O. S.*, IX, 23) 펠리오 필사본 2250번 뒷면에 있는 비슷한 목록에서도 역시 그렇다. 763년과 764년, 774년(Giles, 같은 곳, 16~18)과 873년(같은 곳, 1032) 등등의 연대가 적힌 여러 간기들에서도 용흥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황후)용의 날아오름”을 뜻하는 龍興이란 이름의 사원들은 관공에서 지은 것이었다. 무武 황후의 찬탈이 있은 뒤, 707년 중종中宗 황제는 2년 전인 705년 즉위 당시 당唐 왕조의 복원을 기리고자 제국의 모든 주에 건립하게 했던 중흥사中興寺(“부흥의 사원”)에 용흥사란 이 이름을 하사했다. (『구』, 제7권, 2a, 4b. *B. É. F. E.-O.*, XXIV, 184 참조. 184쪽의 “686년”은 부주의해서 범한 오류다. “707년”으로 해야 한다.) 바로 이 사원에서 739년의 칙령으로 당 왕조 역대 황제들의 기일에 불교 제례를 봉행케 했다.(『佛祖統紀』, 『대정신수대장경』, no. 2035, 제40권, 375a) 과연 불교는 737년에 사부祠部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됐으니, 결국 다시 당나라의 국교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당회요』, 제49권, 5a) 당대唐代의 용흥사들은 아주 멀리 중앙아시아에 있던 당나라의 속국屬國들, 고성古城지역의 북정北庭(悟空의 전기, Lévi-Chavannes, *J. A.*, 1895, ii, 365. 戒法の 전기, 『宋高僧傳』, 『대정신수대장경』, no. 2061, 제3권, 721a-b), 쿠차와 호탄(Pelliot, *B. É. F. E.-O.*, VIII, 512)에서까지 발견되었다.

70) 公見事急，遂走投龍興寺，覓蕃大德，告報相將逐便迴避。于時天明。公遂出招集得百姓十餘人。並無尺鐵寸兵可拒其賊。公誓衆前行，擬救節兒蕃使. 본서 261, n. 2 참조.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⁷¹⁾ 소인, 조금씩 장정들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계책을 써서 역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야흐로 신神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황천皇天이(죄인들을) 증벌로 다스리심을, 소인은 알았습니다. 범국총과 그 도당은 단 한 명도 틈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⁷²⁾

동도東道(또는 구역)의 봉화대들에서는 아무런 경고도 없었습니다. 이 도적떼들이 저희에게 제 발로 굴러들어 오리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티벳 장수와 티벳인들 일부가 여전히 생존해 있고 일부는 죽었습니다. 그 정확한 수는 모릅니다.⁷³⁾

대덕 앞에서 추궁당한 도적들 중 하나가 자복한 즉슨 대략 이렇습니다. 역참의 수장 왕령전王令詮과 그 일당은 학살과 폭행, 살인을 일삼으며 서쪽으로 왔습니다. 만약 저들(불잡힌 “도적놈들”)이 공연히(사주)성에 투항하면 사주에 머물 수 없을 것을 염려했다 합니다. 해서 그들은 티벳인 관리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⁷⁴⁾

사건의 전말은 그러합니다. 대덕께서 이미 공무 보고를 통해 이를 알려셨습니다. (이번에는) 소인이 위와 같이 삼가 아웁니다.⁷⁵⁾

[12] 편지

이 편지는 7월에 쓴 것으로 돼 있다. 작성자는 편지 수신인이 사절을 보내

71) 及至子城南門下, 其節兒等已縱火燒舍, 伏劍自裁, 投身火中, 化爲灰燼.

72) △漸合集得百姓, 設詐擒獲. 則知神道助順, 皇天共誅. 汜國忠等人, 一無漏網.

73) 東道烽鋪不告煙塵, 莫測[測으로 읽음.]此賊, 有同天落. 今蕃軍將等, 或在或亡, 不知實數.

74) 其賊對大德某畧問. 欸稱驛將王令詮等, 苦尅煞劫西來. 若公然投城, 恐不容住止. 遂謀煞蕃官是實.

대강 번역하자면 그렇다. 불잡힌 자들은 우두머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 같다.

75) 大德△已具牌子申上. 謹具如前. “작은 판, 방문(榜文)”을 뜻하는 牌자는 만청 시대에도 여전히 몇몇 공문서 형식에 의례적으로 사용된 글자였다.

근황을 묻고 도움을 주었던 것과 염려해주심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수신인이 (과주의 티벳인) 절도사에게 권유해 특임 유후를 파견하게 한 일로, 작성자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덕분에 (사주)성은 평온을 되찾았다.⁷⁶⁾ 서한체 양식상의 의례적 문구들은 어느 국무대신에게 보내는 여덟 번째 단편의 것과 비슷하다.

[13] 어느 도독都督에게 쓴 편지

역시 7월에 작성됐고 어느 도독(?)에게 보내는 것으로 전편과 비슷하다.⁷⁷⁾ 전편에서처럼, 편지를 쓴 이는 사자使者를 통해 안부를 묻는 수신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둔황에 일어난 거둬진 화란과 자신의 충정, 백성을 향한 그의 책임감을 애둘러 말한다.

[14] 어느 장수將帥에게 쓴 편지

8월에 작성된 편지로 그 어투가 꽤나 친근하다. “우리가 손을 맞잡았던 게 바로 옛그제인데, 더위와 추위가 번갈아가며 지나길 벌써 여러 번일세그려.” 운운.⁷⁸⁾ 편지의 작자는 그가 동료라 부르는 수신인과 형제 같은 우정을 맺었다.⁷⁹⁾ 뜻하지 않은 사정이 둘을 떼어놓아 한 사람은 동쪽에, 한 사람은 서쪽에 있다. 작자는 그를 생각하고 재회하길 바란다. 어쩌면 작자의 옛 중국인 동료들 중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76) △蒙免[恩으로 읽음.]既忝[添의 이체자.]親隣同憂禍亂. 蒙諮留後發遣專使. 城池獲安, 實賴其力.

77) 使至辱問, 殊慰馳情. 孟秋餘熱. 惟督動靜瓊祐… 督은 都督을 대신한 글자일 것이다.(본서 259, n.

2 참조)

78) (시작은 이렇다. :) 握手如昨, 炎涼屢隔, 운운. 편지 수신인은 어떤 장군이다. …惟將軍動靜靜祐….

79) △蒙粗[?]遣[?]. 同志同官, 惟兄惟弟. 忽然分別, 一東一西. 恨以殊鄉, 各居異域, 운운.

[15] 어느 (중국인) 벗에게 쓴 편지

글쓴이는 편지의 벗과 여러 해 떨어져 있었고 그의 소재를 헛되이 수소문했었다. 어느 날 문득 그 벗의 편지 한 통을 받고 기뻐한다. 글쓴이가 말하길, 철령鐵嶺까지의 길은 멀고 옥관에는 인적이 뜸하다 한다. 그럼에도 그는 벗의 기별이 또 오길 바란다.⁸⁰⁾

[16] 어느 (중국인) 벗에게 쓴 편지

내용은 전편과 비슷하다. 글쓴이는 운산雲山 너머 아득히 멀리 있어 서신을 나누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절절한 심정으로 “목을 길게 빼고” 동쪽을 바라본다.⁸¹⁾

[17] 티벳의 재상에게 쓴 편지

1월에 쓴 것으로, 첫 시작 문구는 여덟 번째나 아홉 번째 단편들의 것과 같지만 공식적 보고서라기보다는 사적 편지처럼 끝맺고 있다.⁸²⁾ 왕과 재상의 은혜로 관리와 백성들은 지금 평온하게 그들의 일에 종사하고 있고, 아무 근심도 없다.⁸³⁾ 글쓴이가 특히 감사하는 것은 일전에 둔황으로 철을 보내준 일이다. 이로써 농기구를 확충한 만큼 더 나은 경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두가 재상의 큰 은혜 덕분이니, 마치 가뭄 끝에 오는 단비와 같고 운운.

80) 鐵嶺路遠, 玉關人稀. 瞻望德音, 心魂幾斷. 玉關은 물론 옥문관으로, 둔황 지역을 가리키는 문어적 표현으로 쓰이곤 했다. 鐵嶺은 너무 막연해서 어디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81) 雲山眇邈, 音信難通. 引領東瞻, 心魂幾斷. 『左傳』, Couvreur 옮김, II, 104 참조. “경공景公은 기대에 차서 목을 길게 빼고 서쪽을 바라보았다.”

82) 謹奉啓起居. 不宣, 謹啓.

83) 么蒙思即日沙州官吏百姓, 特沐贊普鴻恩, 相府仁造, 各居產業, 恒腹[復으로 읽음.]無憂, 운운.

이 필사본 문치는 다각도의 관찰을 요한다.

첫 번째 청원에서 둔황의 중국인 절도사는 티벳에 항복한 뒤 수차레나 노골적으로 반역을 기도했던 둔황 백성을 용서해 주십사 바라면서 티벳 왕에게 불佛사리를 보낸다. 이에 따르면 둔황의 항복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만일 둔황의 항복이 내 그럴듯한 가설대로 787년의 일이었다면 이 단편의 작성 연대는 794년, 그러니까 라싸 논쟁(792~793?) 이듬해가 될 것이다. 왕과 절도사 사이의 메신저 구실을 하는 이들은 (그들 중 한 명의 이름이 확인해주듯이 티벳인 아닌 중국인) 비구승들이고, 절도사는 야만인 군주의 불교적 신심信心을 함축적으로 역설한다. 티벳 왕은 당신의 나라에 불교를 널리 퍼뜨리면서 “법法의 햇살을 부활시켰던” 장본인이고, 그의 중국인 도반道伴은 거듭 계戒를 내림으로써 (티벳?) 승가의 성장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이 암시적 표현들은 한편으로 보면 티송데첸 시대의 티벳에서 불교가 돌연 국교로까지 도약했다는 우리의 생각과 맞아 떨어진다.

그 다음 이어지는 세 편의 단편들도 불교도이자 둔황의 절도사였던 동일인이 쓴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마찬가지로 승려들을 통해 전달된 왕의 교서를 언급하고 있는) 네 번째 단편에서, 둔황이 항복한 지 10년이 흘렀고 자신이 둔황을 다스린 지는 2년이 됐다고 적는다. 그렇다면 이 단편의 연대는 796년이 될 것이고, 작자는 절도사로 임명되자 둔황의 말썽 많은 중국인 신민들을 향한 군주의 노여움을 달랠 목적으로 불사리와 첫 번째 청원서를 티벳 왕에게 보냈던 것이라. 그가 “영광”으로 여겼던, 티벳인 정복자들이 부여한 임무란 편하고 한가한 일이 물론 아니었으니, 필시 티벳인 주인들과 중국인 동포들 모두로부터 심한 원성을 사기 마련인 관직에서 이 절도사가 가급적 빨리 떠날 공리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는 사직하고 은거하려는 중국인 관리들이 으레 써먹었던 고전적 수법에 의지한다. 종교로의 귀의를 허락해 달라 청하는 것이다. 허락이 난다면 전 재산을 사원에 바칠 요량이라며, 그는 왕

과 모 대신의 신심에 호소한다. 종교로의 귀의는 티벳의 통치를 돕는 일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중국인들의 상투적 핑계거리들 중 하나였음에 틀림없다.⁸⁴⁾

84) 적가비翟家碑(『사주문록』, 장부蔣斧판본, 21b. 라진옥 편집본, 13b)에는 당나라 군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784년 이희열李希烈(본서 177, n. 1 참조)을 진압하는 데 참가했던 둔황의 어느 장군의 아들로, 비범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귀의한 적연翟涓이란 인물이 나온다. 그의 차남은 둔황에서 관리가 되고 그의 장남은 역시 둔황에서 승통僧統이 된다.(라진옥, 『막고굴석실비록』의 찬문 참조. 『東方文庫』, 제71권, I, 13)

색소씨 가문의 경우는 한층 더 전형적이다.(870년 무렵의 비문. 『사주문록』, 장부蔣斧판본, 16b 이하. 라진옥 편집본, 10a 이하. 아부키, 『명사여운』, pl. 84, no. 4. 『명사여운해설』, 241 이하) 이 가문은 서기 2세기부터 둔황에 정착한 가문으로, 둔황에서 가장 오래고 가장 유력한 가문들 중 하나다.(石岩, 『敦煌石室畫像題識』, 서문, 17a 참조) 티벳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문중의 수장 색봉진索奉珍은 무관武官으로 침략자에 맞서 싸워 이름을 떨친다. 초야에 묻혀 산 그 아들 색정국索定國은 “頓悟大乘賢”이다. 812년에 어느 사원에서 사망한 색정국은 탑 안에 매장됐다. 그는 세 아들을 두었다. 장자인 색청우索清宇는 티벳인들을 돕기로 해 사주성을 지키는 임무(沙州防城使)를 맡고 “국경의 평화를 지켰다.” 둘째인 색향索香(향은 그의 속호俗號다.)은 의변義婢이란 이름으로 불문佛門에 들어가 사주석문도법률沙州釋門都法律이란 직함을 얻고 지역 승가에서 중요한 지위에 오른다. 그 문하에 수많은 출가 및 재가 제자들이 있었다. 869년 70세의 나이로 입적한다.(라진옥, 전제서, I, 13의 찬문 참조) 셋째인 색청정索清貞은 예禮와 악樂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유명한 유생儒生(禮樂名家)이었던 것 같다. 장자인 색청우의 아들들은 중국의 둔황 탈환에 가담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용맹하기로 특히 이름이 높았고, 장의조가 승전보를 들고 장안에 갔을 때 그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찬문은 奉元戎而歸闕이라 말한다.)

둔황의 또 다른 명문가 음陰씨 가문(이 가문에 대해서는 石岩, 전제서, 서문, 18a-b를 보라.)은 티벳의 둔황 점령 하에서 비슷한 운명을 겪게 된다.(839년의 비문. 『사주문록』, 장부蔣斧판본, 11a 이하. 라진옥 편집본, 7a 이하) 증조부 음사원陰嗣瑗과 조부 음정계陰庭誠, 부친 음백륜陰伯倫은 모두 당나라 무관으로 종사했다. 티벳이 둔황을 정복했을 때 음백륜은 당나라 황제와 티벳 왕이라는 “두 명의 군주 앞에 무릎 꿇어야”(事遇此年, 屈膝兩朝之主) 했다. 그는 “부락대사部落大使”로서 티벳을 위해 일하게 됐다.(贊普啓闕之後, 左衽遷陞. 及宰輔給印之初, 垂祛補職. 蕃朝改受得沙前州道門親表部落大使) 그의 장자 음가정陰嘉政은 일개 재가 불자(處士)로 은거의 삶을 살며 “현재(중국의?) 성스러운 군주와 그 선조 일곱 분을 위해”(爲當今聖主及七代) 막고산莫高山에 석굴 하나를 조성한다. 둘째 아들 음가진陰嘉珍은 곳간과 회계를 담당하는 자로서 티벳인들의 하인이 된다.(본서 240, n. 6) 셋째 아들은 리전離纏이란 이름으로 불문에 들어가 “沙州釋門三學都法律大德”이란 칭호를 얻는다. 그 누이들 중 한 명은 지혜智惠라는 비구니고, 종형제들 중 한 명은 령보靈寶라는 비구다.

다섯 번째 단편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불화 등을 봉송한다고 왕에게 고한다. 이것들을 왕에게 가져갈 임무를 맡은 이들 역시 사문들이다. 필시 중국인들일 이 불교 승려들이 티벳 왕궁과 중국 북서부 사이를 줄기차게 오갔음은 분명한 일이니, 그들은 둔황의 중국인 관리들과 이들의 티벳인 주군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곤 했었다.

이어지는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부터 열두 번째까지의) 단편들은 둔황 내 부인들이 아니라 옥관역(또는 옥관향)이라는 둔황현 관할 내의 한 역참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번역자들의 둔황 습격과 연관된다. 이 번역자들은 그 이름으로 볼 때 언뜻 중국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중 한 명은 자칭 탁발 왕족의 후손이라 주장했다. 탁발은 선비족에서 유래한 유명한 씨족으로 중국 최대의 “아만족” 왕조들 중 하나인 후위後魏 왕조를 세웠으니, 그 명성은 중국 북서부에서, 특히 (청해호 지역의) 토욕혼인들과 당항족(탕구트족Tangouts)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졌다. 역도들의 습격은 7월 11일에 일어났다. 같은 7월 중에, 아니면 필시 습격 사건 직후에 쓴, 수신자가 티벳의 재상인 보고문(여덟 번째 단편)에서 중국인 절도사는 티벳에 항거하는 거둬들인 시도들로 빚어진 연이은 소란들 뒤에 “2년 전부터” 마침내 둔황에 평화가 회복되었는데, 마침 그때 이 새로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앞의 단편들에 담긴 정보와 비교해보면 문제의 사건은 네 번째 단편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같은 해(796년?)에 일어났던 것 같고, 당시 절도사는 이전 단편들을 쓴 인물과 동일인이었던 것 같다. 그의 사직 요청은 아직 티벳인 주인들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나 싶다.⁸⁵⁾ 그가 고하길, 이 번역자들은 지난해(795

85) 토마스Thomas가 J. R. A. S. (1927, 815)에 발표한 티벳어 필사본 단편의 시대적 배경은 아마 이 무렵일 것이다. 토마스의 번역은 이렇다.

“원창도’On-čaŋ-do 궁에서 봉인된 [직서를] 보낸 것은 소상히 듣고자 함이라.”

“[詹(?)]뽕게서 신하들과 함께 사주(둔황) 요새를 장악[티벳의 정복, 787년?]하시니, 통치권을 놓고 벌어진 경쟁에서 [중국인이?] 티벳 신하들 중 도독이자 최고 지휘관[제제르ce-rjer]으로 ...

년?) 사막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그들은 둔황의 중국인 절도사의 고발로 티베트인들에게 붙잡혀 주천酒泉(둔황 동쪽의 숙주)으로 유배당했다. 바로 그곳에서, 이들은 또 한 번 달아났다. 이들은 말과 무기를 훔친 뒤 주천에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둔황까지 전속력으로 내달려 한밤중에 도착한다. 성을 지키던 군졸들은 기습을 당하고 살해된다. — 어쩌면 공범일지도 모를 — 주민들은 곡식을 거두느라 성 안에 없었고, 성 밖의 경작지에서 밤을 보낸다.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절도사를 비롯한 티베트인 군관들은 구조되기도 전에 자신들의 처소에 불을 놓고 자결한다. 그 당시 티베트 전사들의 마음가짐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다. 중국인 절도사의 행보도 못지않게 독특하다. 이 화급한 위기의 와중에 그가 대피하러 간 곳이 바로 둔황 유수의 불교사원이다. 이곳에서 그는 그 이름으로 봐서 고향으로 돌아온 라싸 논쟁의 주역이라 할 수밖에 없는, 우

임명된 최고의 인물을 죽였습니다. 7년이 흘러 ... 죽었습니다.[첫 번째 한문 필사본의 번역자들 말인가? “8년 전부터”이니까, 787년~794년이 되는 것인가? 그 후 은덕을 입어 ... 소신이 도독으로 사주에 왔으니[우리 필사본의 작자가 794년에 중국인 자사刺使로 임명됐다는 것일까?], 엄청난 공을 들여서야 사주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10년 ... 내분이나 갈등이 없었습니다.[둔황의 평온했던 2년이란 794~796년을 말하는 것일까?]

“이롭기 그지없는 선물, 곡식을 폐하께 바치는 일도(명령을 받고 하거나) 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청원을 ... 받아들여주시옵소서 ... 허락해주시옵소서. 이런 연유로 대신[원]첸 세르[Blon] Bchan-bzer와 대신[원Blon] ...이 자필 서명한 ... 보내왔던 것입니다.”

또 다른 티베트어 단편(Thomas, 같은 곳, 840) 하나는 원 뎀세르Blon Bstan-bzer(Bc[h]an-bzer? 본서 281, n. 3 참조)란 어느 도독을 거론하고 있다. 토마스는 자신의 번역에서 사주의 이 도독 제르to-dog rce-rjer를 중국인으로 보았던 것 같지만, 사실 이 인물이 중국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 어원이 중국어인 도독이란 직함은 아마도 튀르크어를 거쳐 티베트 고유의 관직명 체계 안에 수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정작 중국에서는 사어死語가 되었기 때문이다.(본서 197, n. 2) 고로 토마스의 티베트어 단편에 나온 중국인 자사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 단편이 어떤 상황에서 “원창도궁”에서 온 것인지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원창도는 랄빠첸(Ral-pa-can, 815~838)이 태어났던 왕의 처소(Bacot, *Documents de Touen-houang*, 39~42)로, 라싸 인근의 끼Skyi에 위치(Tucci, “Validity...”, 314)해 있었다. 이곳은 『翻譯名義大集』의 편찬이 시작됐을 때 랄빠첸의 부친인 티데송첸Khri-lde-sron-bcan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다.(Tucci, *Tombs*..., 15~18) [보유편, 본서 367 참조]

리의 화상 마하연을 만난다. 중국인 절도사는 그를 가리켜 “티벳의 대덕”, “나라(즉, 티벳)의 대덕”이라 칭한다. 보고서를 보면 절도사는 둔황의 티벳인 관리들을 구할 생각만큼이나 마하연을 구할 공리를 하는 모양새다. 그의 말은 고스란히, 둔황의 티벳인 지배자들과 그 토착 신민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 성직자에게 부여된 역할의 지대한 비중을 드러내준다. 한밤의 활극이 지나간 이른 아침, 계략을 써서 반역자들 여럿을 붙잡는 데 성공했을 때, 삼엄한 감시를 붙여 과주로 이송하기에 앞서 죄인들을 심문하는 이가 바로 마하연이다. 중국인 절도사보다 먼저 티벳 당국자들에게 최초의 공식 보고를 올린 이도 바로 마하연이다. (티벳어를 배우기라도 했던 걸까?)

이 필사본 문치의 후반부 단편들에서 절도사는 티벳인 상관들에게 둔황이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다고 알린다. 습격을 당해 죽은 절도사를 대신하기 위해, 둔황의 절도사보다 상급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과주 절도사가 신임 티벳인 절도사를 파견했다. 한문 텍스트는 이들을 각각 절아節兒(절도사)와 유후(사)留後(使)로 부르고 있는데,⁸⁶⁾ 이는 당대唐代의 관직 체계에서 복수의 주들을 포괄하는 도道들의 책임자로 임명된, 황제가 보낸 관리를 일컫는 직함들이다.⁸⁷⁾ 그 소재지가 명시되지 않은 “동도東道”를 언급하기도 한다.⁸⁸⁾ 아홉 번째 단편에서 중국인 자사는 티벳의 대신에게 둔황의 농민들이 쓸 농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철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열일곱 번째 단편에서는 이 요청을 들어준 그에게 감사한다. 티벳인들은 아마 무기를 만들기 위해 철을 미리 징발해뒀을 것이다.

둔황 사건의 와중에 드러난 대덕 마하연의 독보적인 역할은, 티벳인들에게

86) 펠리오 장서의 티벳어 필사본 1121, 1127, 1235번은 사주의 어느 제제rce-rje(“지휘관”, “통솔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1156번 필사본에는 어느 막뎀dmag-pon(“장군”)과 쎄스spyam(“눈”, 감찰관)이 나온다. Lalou, *Inventaire*..., II(1950)과 본서 281, n. 6 참조.

87) 본서 261, n. 2 참조.

88) 본서 264, n. 2 참조.

점령된 북서 지역에서 중국인 승려들이 행사한 영향력에 대해 다른 많은 문서들이 암시하는 바의 확증에 다름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라싸에서 마하연의 신봉자들 중 한 명은 대덕 “승통”으로 임명되었는데, 티벳 점령 하의 둔황에서도 티벳 왕으로부터 이 직함을 하사받았던 여러 중국인들이 있었다.⁸⁹⁾ 둔황의 중국 명문가들 대부분은 지역 불교 승가에 가문의 대변자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이로써 이 승려들이 티벳인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중에는 중국의 둔황 탈환에서 제일가는 역할을 했다⁹⁰⁾는 것이 어느 정도 설명된다. 라싸에서

89) 본서 34-37과 215, n. 2. [그 중 하나가] 오승통吳僧統[이다.] 순혈 중국인으로, 당나라 관리였던 그 아버지는 티벳에 맞서 둔황을 지키는 데 가담했었다. 젊은 시절 불문에 들어가 맨 먼저 “釋門都法律兼攝引教授”로 불렸다. 10년 넘게 이 직함을 갖고 있던 그는 “또 한 번의 부름”으로 “釋門都校[敎로 읽음]授”란 직함을 받았다. 오승통에게 헌정되고, 명료함 이상으로 대구對句 효과를 노린 비문에 따르면, 두 직함들 중 첫 번째 것은 중국 황제에 의해 수여됐던 것 같다.(上命舉其賢德, 遂使知釋門都法律 운운) 두 번째 직함은 아무래도, 비문이 다음과 같이 요란한 찬사를 늘어놓은 티벳 왕에게서 받은 것이다. “성스럽고 신성한 쯔뽀께서 그 문치文治를 만 리萬里 밖까지 넓히셨으니, 모든 이웃들이 그 치하에 모여든 것을 기뻐했다. 더 이상 국경을 지키느라 근심하지 않았다. 쯔뽀의 위세가 모든 것을 정화했다. 부처님의 광휘가 그의 광채를 더욱 빛냈고 성스러운 구름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화상[오승통]은 청중과 학생들을 [불교로] 이끌 목적으로 [소승의] 다섯 개 학파의 학설들을 자세히 밝혔다. 초심자들의 진일보를 위해 그는 삼승三乘의 기본 교의들을 폭넓게 설명했다. (화상 덕분에) 청중과 학생들은 『유마경』Vimalakīrti-sūtra와 유식Vijñaptimātra의 [가르침들을] 완전히 깨쳤고, 씨줄의 가르침과 날줄의 가르침, 즉 돈오와 점수[의] [방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했다. 이들은 감각되는 것의 공성空性を 체험했고 돈오로써 깨치게 되었다. 이들은 깨달음의 요체를 깊이 이해했고 ‘작용하지 않음’(無爲, asaṃskṛta) 가운데 머물렀다. … 또 한 번의 부름을 받은 그는 석문도교수로 영전했다.”(則聖神贊普, 萬里化均, 四隣慶附. 邊虞不誠, 勢○風清. 佛日重暉, 聖雲補集. 和尚以誘聲聞後學, 宏開五部之宗. 引進前修, 廣說三乘之旨. 維摩唯識, 洞達於始終. 橫宗豎[豎로 읽음]宗, 精研於本末. 加以知色空而明頓悟, 了覺性而住無爲[…]) 又承詔命, 遷知釋門都校[敎로 읽음]授.) 비문에 적힌 직함이 입증하듯이 더 나중에 가서는 승통의 직책도 맡았다. 이 비문은 그가 신자들의 도움으로 칠불七佛에 봉헌된 석굴을 파고 다수의 불화佛畵로 장엄하게 했다고 회상한다. 이 석굴의 조성을 계기로 군주와 대신들의 변영, 이웃 나라들과 화목하길 기원했다는 것도 비문에 뚜렷이 언급돼 있다.(伏願世主處南面之尊, 威武武定, 臣忠安富, 國之政信重和隣…) 쯔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티벳 제국에 대한 이야기이다.[보유편, 본서 367 참조.]

돌아온 노화상 마하연은 틀림없이 티베트인들로부터 공식적인 어떤 종교적 직함을 받았다. 중국인 자사보다 우선시되는 식으로 그 존재감을 인정받았던 것에서 보듯, 마하연은 티베트 왕궁에 오래 체류한 덕분에 지역의 군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위신이 섰을 것이다.

마침 둔황과 과주에 대한 티베트의 통치권은 그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역의 중국인 성직자들에게 호소한 불교도 전사戰士들의 수중에 있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앞서 펠리오 장서의 한 필사본을 통해 보았다시피, 과주 절도사 로실홍걸리실거리論悉灼乞里悉去囉는 특히 둔황의 승려들에게 그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기 위함과 동시에 티베트의 왕과 재상령公宰相令公인 상 티쑤제(尙乞里心兒)의 복을 위한 의식을 봉행하게 했었다.⁹¹⁾ 또 다른 한 편의 필사본⁹²⁾에 의하면 승려들이 “우리 도독都督”으로 부른 한 인물⁹³⁾은 어떤 의례의 비용을 덜 목적으로 “가산家産 일부를 떼어” 내놓으면서,⁹⁴⁾ 이 의례의 공덕이 전해져서 맨 먼저 열렬한 불교도인 왕을, 다음으로 재상 상랍장허를발(상하상 루뵐Zaṅ Lha-bzaṅ Klu-dpal)⁹⁵⁾을, 끝으로 필사본을 쓴 승려들이 그 높

90) 적翟씨, 색索씨, 음陰씨 가문. 본서 275, n. 1. (장의조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었던) 이李씨 가문. 본서 236, n. 1.

91) 펠리오 장서, 2449번 필사본. 본서 239 이하.

92) 펠리오 장서, 2974번 및 3395번 필사본. 이 두 편의 필사본은 (시작과 끝 부분이 없어) 그 자체로 불완전한 편린인 동일한 한 편의 필사본의 (찢어진) 조각들이다. 2449번 필사본과 동일한 장르의 글이지만 글씨체가 보잘 것 없고 판독하기 힘들다.

93) 我都督公. 어쩌면 과주 절도사를 말한 것일 지도 모른다. (과주에서 둔황으로 파견된?) “특사들”이 언급되고 이들이 승려들에게 의식의 봉행을 “명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則有專使等奉爲宰相, 운운)

94) 減割家儲奉資國相, 운운.

95) 宰相尙臘藏噶律鉢. 하상루뵐Lha-bzaṅ Klu-dpal은 여러 티베트 문서들 속에서 중국을 굴복시킨 장군(Tucci, *Tombs*...; 26)으로, “중국의 정복자”이자 일종의 티베트 법전法典 또는 호구조사의 저자(Thomas, *Tibetan Literary Texts*...; I, 287)로, 무티젠뵐Mu-khri bcan-po(= 무딕젠뵐Mu-tig bcan-po. 티쑤데젠의 아들. 9세기 초에 쉐나렉Sad-na-legs이란 이명異名으로 재위했다고 추정되는 인물.) 왕자의 삼촌으로, 중국과 티베트의 국경을 지킨 장군(Thomas, 같은 책, 301)으로 거명

은 지위와 무용을 칭송하는 “동군東軍의” 재상령공인 상 티쑤제(尙乞心兒)⁹⁶⁾를 “장엄하길” 바란다. 다른 필사본⁹⁷⁾에도 역시 또 한 명의 티벳 재상 상결력사⁹⁸⁾의 안위를 위한 의례를 봉행케 하는 론찬몰열이란 재상⁹⁹⁾과 상결실가란 절도(沙)¹⁰⁰⁾가 보인다.

둔황의 이 모든 필사본들에서 상 티쑤제의 이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둔황의 중국인 절도사가 거듭해서 서한을 보낸 익명의 티벳 “대신”(宰相)이란 달리 보면 신원미상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 고위급 인물이 아니었는지

되는 인물이다. 이는 십중팔구 본서 247쪽에 인용된 티벳어 단편에서, 상 티쑤제와 함께 중국인과 드루그인(위구르인?)들에게 커다란 패배를 안긴 것으로 언급되는 “큰외숙”(첸보 상Chen-po Žaṅ) 하상Lha-bzaṅ일 것이다. 우리의 한문 필사본은 이 인물에게 요란스런 찬사를 보낸다. “신성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이..., 삼라만상의 원리들을 음악의 규범에 따라 다스리고(順律呂以理陰陽) 통치의 질서를 온전하게 유지시키는(百官愍紀) 이.” 그는 국경지역에서의 군사 작전들로 특히 명성을 떨치다 그와중에 경미한 병을 얻었다. “도독”이 이 필사본의 불교 의례를 시설했던 것은 한편으론 그의 쾌유를 빌고자 함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도독은 오래 전부터 상하상루 뻔의 각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我都督公長承寵惠, 特沐光暉)

96) 東軍宰相令公尙乞心兒.

97) 펠리오 장서, 3770번 필사본, 네 번째 장.

98) 宰相尙[변용해서 上으로도 씀]結力絲. 펠리오 장서 3770번 필사본의 다섯 번째 장은 론협협열갈 지란 이름의 과주 절도사瓜州大節度使論紇頗熱渴支를 위해 봉행된 어느 의례에 관한 내용이다. 頗은 꺄rgyal에, 熱은 꺄bzer에 대응한다.(822년의 비문 참조.) (『考異』, 제21권, 10b, 842년에 인용된) 『補國史』에 따르면, bzer는 티벳에서 장군의 호칭으로 중국어 郎과 같았다. (郎은 중국의 여러 관직명들 속에 들어갔던 글자로 존경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이 인물은 아마 중국 사료들이 “거물급 수장”(渠帥) 내지 “고위급 장수”(貴將)로 언급하고 있고 787년에 상결찬尙結贊이 평화 협상을 위해 명사鳴沙에서 중국의 적장 마수馬燧에게 파견(본서 291, n. 1)했던 론협열論頗熱(*꺄꺄꺄Blon Rgyal-bzer)과 동일인일 것이다.(『구』, 제196권하, 4a. 버셀역, 493, 『당서』, 제216권하, 2b. 『자』, 제232권, 6b. 『책』, 제980권, 14a) 803년 당나라 조정에 사절로 파견됐던 이 역시 론협열이었다.(『구』, 제196권하, 9a. 버셀역, 510. 『당서』, 제216권하, 4b. 『책』, 제980권, 14b)

99) 宰相論贊沒熱. 과주 도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린첸첸Blon Bc[h]an-bzer가 분명하다.(본서 277, n. 1)

100) 何周[河州?]節度尙乞悉加.(마지막 두 글자는 의심스럽다.) 河州는 감숙성에 있었다.(본서 266)

자문해봄직 하다.¹⁰¹⁾ 더 앞에서 보았다시피¹⁰²⁾ (776년부터?) 둔황을 포위하고 점령했으며 (787년에?) 최초의 티벳인 절도사로 임명됐던 이가 다른 아닌 상 티숨제다. 이어서 그는 최고 반열의 재상¹⁰³⁾에 올랐고 대신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직¹⁰⁴⁾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뛰어난 대신들에게 왕국의 몇몇 지역(복수의 “절도사 관할 지역”을 포괄하면서 중국어로 “道道”라고 지칭된 지역들¹⁰⁵⁾)의 통치를 맡겼던 티벳의 관례에 따르면, 상 티숨제는 줄곧 티벳 제국의 동쪽,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 811년, 지금의 감숙성 남동부에 위치한 세 개 주를 중국으로 반환하는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현종憲宗 황제의 친서는 바로 그에게 보낸 것이다.¹⁰⁶⁾ 812년 장안 서쪽 봉상鳳翔의 중국 자사가 상 티숨제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는 재상인 동시에 “토번동도절도吐蕃東道節度”란 직함으로 불린다.¹⁰⁷⁾ 그로부터 4년 뒤엔 위구르

101) 尚乞-[里(또는律)-]心-兒 = *Zan Khri-sum-rje* (상 티숨제)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토마스가 *J. R. A. S.*, 1928, 98에 인용한 펠리오Pelliot를 참조할 것. 兒를 *rje*의 트랜스크립션으로 본 것은 놀랍다. 8-9세기에 兒의 (공인된) 보통의 발음은 **ñzię*였다. 그러나 북서부 지역에서 *ñz-*는 당시에 *z-*로 발음됐던 것 같다.(羅常培, 『唐五代西北方音』, 164) [*b*]zer는 늘상熱(옛 발음은 **ñziä*)로 옮겨졌다. 이 시기의 중국-티벳어 문헌들을 보면 티벳어 *j-*에 해당하는 것은 [당대 중국어 발음의] 첫 자모字母 *t'š-*이거나(**t'šjä* 正 = *jeñ*, 라상배, 같은 책, 170) 첫 자모 *d'*이다>(**d' i* 持 = *ji*, 같은 책, 193) 티벳어로 옮긴 『千字文』을 보면 兒를 *zi*로 옮겨 적었다.(같은 책, 191) 만일 티벳어 필사본들의 제제 *rce-rje* (본서 277, n. 1과 278, n. 1)가 중국어 節兒(**tsiet-ñzię*, 본서 261, n. 2)와 대응했다면, 우리로서는 兒=*rje*에 대한 또 하나의 예를 얻는 셈이다. (본서 283, n. 3에서) 확인된 형태지만 乞里心兒는 티숨제르 *Khri-sum-bzer*라는 형태와 대응할 수도 있다.

102) 본서 174-177.

103) 宰相. 822년 비문 속의 흰뽀 *blon-po*에 부합하는 직함이다. (이 비문에 따르면 *blon-po*는 티벳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다.)

104) 尚書令, 中書令, 令公은 “최고의 재상”을 뜻하는 티벳어 흰첸뽀 *blon-che[n] [-po]*의 그럴듯한 등가어들이다. 『당서』(제216권상, 1a)는 *blon-che[n] [-po]*를 大相으로 옮긴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재상”을 의미한다.(본서 241, n. 5와 247, n. 4. Laufer, 『통보』, XV, 81 참조.)

105) 본서 264, n. 2 참조.

106) 본서 225, n. 3. 이 서한에서 상결심야의 직함은 吐蕃宰相이다.

107) 본서 265-266. 그렇지만 어쩌면 이 편지에서 상 티숨제는 재상이란 직함으로만 언급된 것일지

죽을 토벌하는 원정에 나서 그 수도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¹⁰⁸⁾ 819년에 그는 지금의 녕하寧夏 남동쪽 염주鹽州의 포위공격에 참전한다.¹⁰⁹⁾ 821년의 당-토번 회맹조약 체결 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틀림없이 중국 관련 현안을 전담한 전문가로서, 티벳 궁정의 불교도 조연자(པཌལ་ཅེ་ན་པོ་Dpal-chen-po)와 협력해 사전에 장안으로 보낸 조약문을 작성했던 이가 다름 아닌 상 티숨제다. 이 조약은 821년 11월 8일 장안에서 체결됐다.¹¹⁰⁾ 그렇지만 이듬해(822년 5월 30일) 티벳에서 거행된, 조약 체결을 기념하는 의식에 그가 참석했는지는 확실치 않다.¹¹¹⁾ 하기에 이 의식에서 당唐을 대표했던 사절 유원정이 티벳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을 때, 그는 지금의 감숙성 하주河州에서 당시 도원수로 동쪽의 “절도(들)”인 100명도 더 되는 티벳 장군들을 지휘했던 상 티숨제의 영접을 받은 일이 있었다. 상 티숨제는 제장諸將들을 대하大夏 계곡에 모아놓고는 중국 사절 앞에서 엄숙하게 조약문을 읽게 했고 그 규정들을 지킬 것을 엄히 명했다.¹¹²⁾ 같은 해, 822년에 그는 위구르족 토벌 원정의 선두에 다시 모습을

도 모른다. 이 편지의 공동 수신인으로 “吐蕃東道節度論語都(또는 論語都)”라는 다른 한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 석연치 않은 문장이다.

108) 『구』, 제196권하, 11a. 『당서』, 제216권하, 7a(버셀역, 519, 521). 본서 289~290과 290의 n. 2 참조.

109) 본서 172, n. 2.

110) 본서 229, n. 1과 247, n. 4.

111) 나이트內藤虎次郎는 (『研幾小錄』, 340에서) 회맹 조약의 티벳인 서명자들을 티벳어와 중국어로 거명하고 있는 라싸 석비의 측면 비문 문구들 중 네 번째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상 티숨제의 중국어 이름을 판독했다고 주장한다. “天下兵馬都元帥同平章事尙起心兒.” 그러나 그가 발표한 탁본을 보면 문제의 바로 그 대목은 완전히 판독불가다. 라진옥이 석비의 이 부분을 판독하면서 읽어낸 거라곤 직합과 尙이란 글자뿐이다. 라상배는 언급 없이 지나친다. 라우페와 다치바나 立花秀孝가 판독했던 비문의 티벳어 부분에도 이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나로선 버셀과 라상배가 발표한 탁본들에서 ○奇心兒란 문자들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티벳어 이름은 여전히 판독이 어렵다. 상 티숨제가 라싸의 맹세 의식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든 만큼 조약문에 그 이름이 올랐을 수 있다.

112) 본서 266. 『구당서』의 해당 구절은 이상하지만, 이에 따르면 유원정이 하주에서 상 티숨제를 만

드러낸다.¹¹³⁾

티벳 점령 하의 둔황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분명한 이 막강한 재상이자 도원수가 열성 불교도였다는 점,¹¹⁴⁾ 이 점만큼은 이미 언급된 문서들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런 문서라면 거론된 것 외에도 다른 것들을 더 보낼 수 있다. 둔황의 한 티벳어 필사본을 보면 상 티숨제는 중국어 이름을 가진 어느 화상을 저녁 만찬에 초대해 선물을 한 아름 안긴다. 화상은 지금의 감숙성에서 불법佛法을 가르쳤고 이제 중국으로 갈 채비를 했던 것 같다. 상 티숨제는 화상의 후임자를 찾는 일로 근심했다. 이 후임자는 아마도 중국 화상의 티벳인 제자였던 것 같다.¹¹⁵⁾ 역시 둔황에서 출토된 한문 필사본 한 편은 상 티숨제가 아마도 그의 생애 말년에 “기거할 곳으로 선택”했던 모 불교 사원이 둔황

난 것은 앞서(初) 티벳에 갔을 때라고 한다. 『당서』에 의하면 유원정이 하주에서 만난 인물의 이름은 탑榻(또는 塔) - 장藏(상 딱[?] - 상Zaṅ Stag[?] - bzañ)인데, 이것이 십중팔구 상 티숨제의 본명일 것이다. 티숨제Khri-sum-rje는 하나의 직함이기 때문이다. 『책부원귀』는 “도원수 상탑장尙榻藏”과 “宰相 尙乞心兒”가 오직 한 명의 동일인일 뿐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113) 『당서』, 제216권하, 6b. 버셀역, 522.

114) 9세기 초, 불교를 수호하겠다는 카르쑈Karchung 칙령에 서약했던 대신들 가운데 두 명의 티숨제Khri-sum-rje 껍하speg-lha와 한 명의 티숨쎄르Khri-sum-bzer 도젠mdo-bcan이 등장한다.(Tucci, *Tombs...*, 54)

115) 펠리오 장서의 티벳어 필사본 996번. Lalou, *J. A.*, 1939, II, 511~517 참조. 이 필사본은 배우썩 화상(Be'u-sin hva-śaṅ, 保興화상?)의 제자인 남케닝뽕(Nam-ka'i śnīn-po, Ākāśagarbha, 虛空藏)라는 어느 화상의, 일종의 정신적 계보다. 배우썩은 안서安西(구자龜茲 지방)에서 온 선禪의 대가(로 중국인, 또는 그 이름이 말하듯 중국어 구사자)였다. 안서에서 그는 인도 출신으로 안서에 와 거기서 입적한, 아단덕(阿丹德, A-rtan-hyver)이라는 스승의 제자였다. 이번에는 배우썩이 안서를 떠나 사주와 감주 지방으로 왔고 숙주에서 입적했다. 그의 제자 맨화상(Man hva-śaṅ, [『토번승쟁기』는 망화상葬和尚으로 표기함. 역자])은 종가Coṅ-ka(?)에서 가르쳤다. 그가 중국에 가려 하니 데뤄bde-blon(“복된 재상福相”) 상 티숨제 마르부mar-bu(“아들, 제자”)가 그를 초청했고, 대신할 누군가를 정해 달라 청하며 선물들을 바쳤다. 맨화상은 (티벳인?) 제자 남카Nam-ka(또는 남케닝뽕)를 천거했으니, 필사본은 이 인물이 티쑹데젠의 재위 시(797년)에 생존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아까샤가르바는 다른 티벳어 사료들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성내에 건립 중이라 말한다. 둔황의 어느 식자가 쓴 이 필사본 조각에는 “도원수상서령都元帥尙書令”의 조상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¹¹⁶⁾

황명으로 대슬슬이란 고신을 하사받은 티벳의 상서령 상기륜심아(상 티숨제)가 성광사를 [건립하면서 얻은] 공덕을 칭송하는 글.¹¹⁷⁾ 티벳 속령 옛 둔황 백성

116) 예전에 펠리오 장서 한문 필사본 2765번으로 분류되던 이 필사본은 펠리오 장서 티벳어 필사본 1070번이 되었다. 그 앞면의 첫머리에 얼마간의 티벳어 문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티벳어 문장들 뒤엔 834년(1월부터 4월까지)의 불완전한 중국식 달력이 앞면을 채우고 있다. 이제 분석할 찬문은 필사본 뒷면에 제법 수려한 필치로 적혀 있다. 종이는 심하게 마모됐고 그 길이는 29cm다.

117) 大蕃勅尙書令賜大瑟瑟告身尙起律心兒聖光寺功德頌. 勅이란 단어는 당대唐代의 의전 규약에서 황제의 명에 따라 수여된 직함들에 따라 붙는 말이었다.(R. des Rotours, *Traité des examens*, 250) 告身은 관리들에게 주었던 직첩 내지 임명장을 가리켰다. 고신은 두 부符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중 한 부는 이를 발행한 관청에 보관되었다.(같은 책, 44, 219) “고신을 하사받은”이란 따라서 관부官符를 소유한 사람임을 의미한다. 현대 알다시피 당나라 때의 티벳에서 관리들은 符 또는 관직 위계상의 서열에 따라 달라지는 장식章飾을 소지했으니, 조금씩 다른 그 목록들이 한문 문헌들에 보존돼 있다. 『당서』, 제216권상, 1b(버헬역, 442)에 따르면 이 공식적 표장標章들(官之章飾)은 “착용한 자의 지위를 변별하기 위해” 팔 앞에 부착돼 있었다.(綴臂前以辨貴賤) 그 서열은 다음과 같았다. 내림순으로

①瑟瑟

②金

③金塗銀(도금한 은)

④銀

⑤銅(구리 또는 청동)

이들 서열은 매 등급마다 다시 상하로 나뉘어 있었으니(差上下), 모두 합하면 10등급이었다. 『책부원귀』, 제961권, 15b와 『通典』, 제190권, 10a(銅은 熟銅, 즉 “세공된 구리 또는 청동”)으로 적혀 있다.)와 『당회요』, 제97권, 2a에 이 목록이 나오며, 그 크기는 세 치이고 모직 옷이나 털옷 위, 어깨 앞쪽이나 상박上膊에 부착했다고 명시한다.(各以方圓三寸, 褐上裝之, 安膊前, 以別貴賤) 하지만 『책부원귀』, 제961권, 17a는 송궐감뽀 시대 티벳 제국의 편성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구절에서 “작위爵位”들을 변별할 때 쓰는 고신 목록 하나를 내놓는데, 이 목록에서는 금金 대신 진주가, 金塗銀 대신 황동이 등장한다.

두○ 지음.¹¹⁸⁾

- ①진주(寶珠)
 ②瑟瑟(大, 小)
 ③銀(大, 小)
 ④硃[鎭]石(황동 또는 놋쇠. 大, 小)
 ⑤銅(구리 또는 청동. 大, 小)

금과 황동이 모두 티벳 [관부]의 표장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것, 이는 한편으로 『자치통감』, 제 209권, 42a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709년 금성공주를 데리러 온 두 명의 사절들 중 한 사람은 슬슬부瑟瑟符였고 다른 한 사람은 금부金符의 소지자였다. 다른 한편으로 금직한 황동 고신을 받은(授大鎭石告身) 장군들을 언급하는 펠리오 장서 3829번 필사본도 이를 확인해 준다.瑟瑟에 대해서라면, 라우페Laufer가 그 어원을 이란어, 십중팔구 속디아어로 보았던(Sino-Iranica, 516) 이 용어는 “티벳에서 매우 귀중히 여겨 남녀가 머리 장식품으로 썼던”(『당회요』, 제97권, 1b. 『통전』, 제190권, 9b) 일종의 보석을 가리킨다. 그 정체는 불확실하다. 章鴻釗(Lapidarium Sinicum, 1921. B. É. F. E. -O., XXIV, 288 참조)와, 더 최근에는 리드Read와 C. Pak(“Minerals and Stones”, Bull. Pek. Soc. Nat. Hist., 1928, III, ii, 23)이 그 보석을 사파이어로 보는가하면, 허스Hirth와 샤반은 터키옥玉으로 보았다. 티벳어 둔황 필사본 1089번의 다음과 같은 상륜(ṣaṇ-lon=ṣaṇ-blon, 尙論)의 서열(Stein, B. É. F. E. -O., XLI, 436, n. 2 참조)을 신뢰한다면 허스와 샤반의 말이 맞을 것이다.

상륜첸ṣaṇ-lon chen-po,	“위대한 상륜ṣaṇ-lon”
상륜유이이게ṣaṇ-lon g.yu'i yi-ge-pa,	“터키옥 ‘증서’를 소지한 상륜”
상륜세르기이게ṣaṇ-lon gser-gyi yi-ge-pa,	“금 증서를 소지한 상륜”
상륜타멘이게ṣaṇ-lon phra-men yi-ge-pa,	“보석(?) 증서를 소지한 상륜”
상륜월기이게ṣaṇ-lon dñul-gyi yi-ge-pa,	“은 증서를 소지한 상륜”
상륜라갠기이게ṣaṇ-lon ra-gan-gyi yi-ge-pa,	“황동 증서를 소지한 상륜”
상륜상끼이게ṣaṇ-lon zaṇs-kyi yi-ge-pa,	“동 (또는 청동) 증서를 소지한 상륜”

이게yi-ge라는 용어의 본뜻은 “글자, 문자”지만 여기서는 각종 관부들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옛 문헌 『빠마탕익』(Padma than-yig, Thomas, Tibetan Literary Texts, I, 277-285)의 한 대목에 의거해 그것이 티벳 군대의 각급 부대 또는 루락ru-lag=이 소지했던, 터키옥과 동으로 만든 “기록(물)”(익창yig-chaṇs)과 같은 것 아닌가 자문해볼 수 있다.

관직 위계 제도와, 여러 상이한 직책에 수여된 장식들로 그 등급을 외적으로 구분하려는 생각은 중국의 발상이 티벳으로 건너온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차이점들이 있었다. 『구당서』, 제196권상, 6b(버셀역, 466)에는 730년에 현종玄宗 황제가 장안의 황궁에서 티벳 사절 한 명의 알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사절은 금성공주를 데려가기 위해 710년에 이미 중국에 온 적이 있었고(중국) 문자도 알고 있었다. 황제는 그에게 선물로 자색 옷 한 벌과 금(으로 장식한?)

이 필사본 서두의 각운이 맞지 않는 미사여구들 가운데에는 “연대蓮臺의 상서로운 전조”, 다시 말해 련대사(“연화대의 승원vihāra”)라는 둔황 사원에 대한 암시가 있다.¹¹⁹⁾ 찬문은 재상의 무공과 불교적 신심을 동시에 기린다.

요대와 “어대魚袋” 하나를 하사했다. 티벳 사절은 옷에 다는 이런 장식이 티벳에 없고(無此章服) 이토록 귀한 상을 감히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어대를 받지 않았다.

고고학자 하라다原田가 “中國唐代的服裝與首飾”(『文學院雜誌』, *Journal of the College of Literature*, 동경대학출판부, IV, 1921, 57 이하)이란 연구에서 취합한 문헌들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이 착용했던 장식은 곧은 물고기 모양(魚符)이었다. 좌우 두 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 왼쪽은 궁에 보관되었다. 관리나 고관이 입궁할 때면 두 쪽을 맞추어 오른쪽[*붙어 원문에는 왼쪽으로 돼 있다. 오식으로 보인다. 역자]을 소지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물고기에는 소지자의 관직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辭海』, 「亥集」, 56에 인용된 『演繁露』에 따르면 어부를 소지한 자들은 어서魚書라는 임명장 사본도 하나씩 받았다.) 황태자의 어부는 비취로, 다른 왕자들 것은 금으로, 관리들 것은 청동으로 만들었다. 어부는 주머니(魚袋)에 넣었는데, 관직 서열상 가장 높은 세 개 등급의 어대엔 금장식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등급 것엔 은장식이 있었고 소지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주머니를 요대에 매달았다. 가족으로 만든 요대에는 금속 꾸밈새(鈎) 장식이 있었고 여기에 걸쇠를 달아 요대를 매었다. 이 꾸밈새의 소재나 개수 역시 소지한 사람의 서열에 따라 달랐고, 이에 대한 규정 자체가 당나라 시대 내내 계속 변했다. 674년의 어느 조령(『당회요』, 제31 권)이 아홉 개 품에 대해 적용한 그 규정은 아래와 같았다.

1~3품, 13개 金鈎와 玉鈎 (또는 金玉鈎?)

4품, 11개 金鈎

5품, 10개 金鈎

6~7품, 9개 銀鈎

8~9품, 9개 鍮石(황동)鈎

그 외 일반 관리들, 7개 銅(또는 靑銅)鈎 (또는?) 鐵鈎

鍮石(황동)이 무소(犀. 쇼소인正倉院의 반서斑犀다. 『東齋修行』, 제1 권, 8번 및 11번 도판 참조.) 가족으로 대체된 때도 있었다. 관리들의 서열은 관복 색깔로도 역시 구분되었다.

118) 大蕃右燉煌郡布衣寶○. 마지막 글자는 너무 흐릿해서 해독이 어렵다. 수식어 右(“오른쪽의, 서쪽의”)의 의미는 모호하다. 필사 古로 보고 “옛 둔황군”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본서 287, n. 3 참조.) 布衣란 용어는 (비단옷이 아닌) “베옷”으로, 관리가 아닌 평민들을 말할 때 쓴다. 두씨 가 문은 둔황에서 찬문이나 비문 등을 짓는 일을 전문으로 맡았다. 본서 250, n. 2 참조.

119) 草秀蓮臺之瑞, 人風鯁直 운운. 본서 255, n. 2 참조. 어쩌면 불교가 두루 백성들의 품행에, 아니면 특별히 재상의 덕성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을 두고 한 말일지 모른다.

“무훈으로써 그는 사된 교의들을 용감하게 물리친다. 찬란한 업적으로써 많은 이들을 정법에 귀의시킨다.”¹²⁰⁾ 그의 직함은 이렇게 돼 있다. “칙령에 따라 임명된 상서령공 겸 티벳의 도원수, 육군의 지휘관, 대슬슬이신 상 티쑤제.”¹²¹⁾ 그는 불사佛事를 일구어 자신의 주군과 부처님께 바친다.¹²²⁾ “둔황 옛 군의 성 안”에 거처를 정한 다음, 그는 거기에 성광사를 건립했다.¹²³⁾ “신성한 빛의 승완”이란 뜻이다. 이 명칭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신성한 군주”, 즉 티벳 왕께서 온 우주를 비추는 해와 달과 별의 “세 빛”을 관장하신다. 상서령공은 성은의 자비로운 빛을 받고, 성덕의 광휘는 둔황 사막의 “류사流沙”에까지 퍼진다. 하여 “신성한 빛聖光”이라 이름한다.¹²⁴⁾

다음으로 상 티쑤제의 선조들에 대한 찬문이 있다. 그의 증조부는 재상이었으며 높은 지위에 올랐다. 티벳의 국정을 운영함에서 큰 몫을 했던 인물이다.¹²⁵⁾ 조부 상기립장¹²⁶⁾은 칙시중勅侍中이자 대슬슬이었다.¹²⁷⁾ 그는 전장에

120) 成勳, 則勇破邪原. 勳効, 則多歸正法.

121) 勅尙書令公兼統六軍甲兵霸國都元帥賜大慈悲告身尙起律心兒. 티벳 장수들에 관한 이런 류의 문서들에 왕왕 등장하는 “육군”이란 필시 티벳의 관군을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에 불과할 것이다.(본서 288, n. 6 참조.) 고대 중국에서 왕은 여섯 개 군대를 거느렸다.(『周禮』, 에두아르 비오 douard Biot 역, II, 142) 당나라 시대의 “육군”은 “궁 북쪽宮北”의 군대들로 황제의 보위를 담당했다.(R. des Rotours, *Traité des examens*, 235. *Traité des fonctionnaires*, 58)

122) 黃金布地, 白璧邀工. 進直道以事君, 傾眞○而向佛. “황금을 땅에 펼친다黃金布地”는 말은 아나 타펜다다(Anāthapiṇḍada, 給孤獨)가 금으로 땅을 뒤덮어가며 기원정사Jetavana를 샀던 일을 빗댄 것이다. 白璧은 “하얀 옥”이란 뜻으로 황금黃金과 대비를 이룬다. 이 문장은璧을璧으로 보고 종교 건축물의 “벽들을 하얗게 칠하기 위해 장인들을 고용하다”로 읽어야 하는 게 아닌 답에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장인들을 고용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필사본에는 붓다와 티벳 왕에게 뵈기를 바치는 이중의 봉헌이 시종일관 나온다.(본서 241~246 참조.)

123) 爰乃卜宅燉煌古郡. 州城內建造聖光寺一所. 石岩의 『敦煌石室畫像題識』, 서문, 16a에 의하면 둔황에서 “발굴됐고” 현재 청해의 군별 마보방馬步芳이 (아직 생존해 있다면) 소유한 1017~1022년의 한 탑파stūpa에 관한 기記(天禧塔記)에 성광사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것이라 한다.

124) 聖主統三光之明, 無幽不照. 令公承九天之寵, 肱股奉陽. 近霑聖德之弘, 遠沐恩暉之重. 率賔咸服, 觀國之光. 燭照流沙, 稱聖光寺也.

125) 曾皇祖, 敕宰輔, 賜大告身. 諱. 牂水長流, 旣儕臣於舟楫, 盤根宰鼎, 貴任重於鹽梅. 乘軒畏夏日之

서와 마찬가지로 궁정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상 티숨제의 작고한 아버지(?)[필사본의 先門이 아버지를 뜻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물음표를 쓴 것이다. 130번 주를 참조하라. 역자] 상찬마는 부상서령¹²⁸⁾이자 슬슬이었다.¹²⁹⁾ 필사본은

威. 變瓊[?]問春前之喘. 宰輔는 宰相의 고어체 동어의다. 직함 뒤에 휘諱자가 나온다. 중국에서 비문이나 찬문 등을 적을 때의 관례가 그렇듯이 직함 다음에는 고인의 인명을 적어야 할 것이나, 필사본에 이 이름 자체가 없다. 더 뒤로 가 봐도 상 티숨제의 조부와 부친의 이름들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베껴 쓴 것(본서 194, n. 1 참조)인 이 필사본에서 공경의 의미로 이 이름들을 삼가 밝히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그렇지만 필사자가 한 칸의 공백으로 이 생략을 알리지 않았던 것은 이상하다. 휘자 다음의 문장은 대략 이런 의미다. “쟁(Gcañ, Brahmaputra)강의 영원한 흐름 속에서, 그는 배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사공과 같았다.(훌륭한 재상이란 은유다. 『書經』, Couvreur역, 153 참조.) 술한 역경에 처해서도 조연자로서, 그는 소금과 자두로 맛을 낼 줄 알았다.(마찬가지로 좋은 재상의 은유다. 『書經』, 같은 책, 158 참조.)” 운운.

126) 尙己立藏. 티벳어로 상티상Žaṅ Khri-bzan? 둔황의 티벳 연대기[인 『西藏王室世系牒』: 『토번승쟁기』 참조. 역자]에는 704년에 재상이었고 721년에 사망한 한 인물로 티상딱잡Khri-bzan stag-cab이란 이름이 나온다.(Bacot..., Documents, 40, 46) 822년 비문의 서명자들 중엔 상기립찬(尙綺立贊, 상티젠Žaṅ Khri-bcan. Laufer, 『통보』, XV, 73)이란 이름이 보이지만, 그 연대로 봐서 이 인물을 상 티숨제의 조부와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127) 皇祖父尙己立藏, 勅時中, 大瑟瑟告身, 諱. 弼承霸業, 世祿良家. 居朝諍處理之能. 出戰任輪輻之重. 時는 틀림없는 동음이의어 侍의 오류일 것이다. 시중侍中은 문하성門下省의 장으로, 중국 관직 체계에서 최고위직들 중 하나이자 중서령中書令과 동급의 관직이었다. Des Rotours, Traité des fonctionnaires, 131 참조.

128) 십중팔구 뽀체고망blon-che mgo-maṅ, 본서 183, n. 4 참조.

129) 勅臣相國先門尙贊磨, 副尙書令, 瑟瑟告身, 諱. 寔豫樟聳幹, 處宇宙長材. 橫浪海鯨鱗, 吸江淮不測. 운운. 두 번째 글자는 亡(“사망한”)일 수 있다. 첫머리의 네 글자는 아마도 착오일 것이다. (勅은 “왕의 명으로 임명된”이란 말인데, 그렇다면 副尙書令 앞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를 가리키는 데 先門이란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맥락에 따르면 여기선 상 티숨제의 부친을 가리킨다고밖에 볼 수 없다. 어쩌면 門은 卿의 초서체를 부정확하게 표기한 것일지 모른다. 先卿은 작고한 부친을 일컫는 통상적 호칭들 중 하나다. 諱(“돌아가신 양반의 생전 이름”) 다음은 이런 의미다. “참말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들 중 하나인 녹나무로 세운 기둥 같았다.” 운운. 같은 풍의 문장들이 이어진다.

*『토번승쟁기』는 日로 읽었지만 펠리오 장서 티벳어 필사본 1070번의 표기를 확인한 결과토로 표기돼 있다. 없는 한자다. 글자 획이 지워지거나 손상됐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문장 전체의 의미가 불확실한 만큼 불분명한 형태 그대로 놔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역자)

그의 정복들, 그가 곤경에 처했던 어느 “이웃 나라”(중국일까?)를 위난에서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도움을 줬던 일을 예둘러 말한다.¹³⁰⁾ 필사본 말미에는 상 티쑤제에 대한 (미완未完의) 찬문이 담겨 있다. 주로 그의 군사 원정과 영토 정복에 관한 것이다.¹³¹⁾ “북쪽에서는 예리한 창을 들어 랑산을 휩쓸었다. 서쪽에서는 높고 큰 산 위로 올라 아홉 개 씨족의 야만인 군대를 쳐부수었다. 흉노족 … 국경에서는 현왕賢王들을 추격해 패주시켰다. 선우의 막사에서 사조射?의 귀인들을 사로잡았다. 맨머리의 야만인들은 달아났다.¹³²⁾ …”

130) 跨秦右地方。外不敵驍果。救隣國艱虞。起義兵而濟。 “그는 진(섬서陝西의 옛 명칭)의 서쪽에 있는 땅을 점령했다. 밖에서는 누구도 그의 용맹함에 대적할 수 없었다. 곤경에 처한 이웃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는 호의로 원정군을 보내 도왔다.” 784년 주자朱泚의 난 당시 티벳인들이 당나라에 도움을 줬던 일을 말함이 분명하다.(본서 177, n. 1과 182, n. 3, 291, n. 1 참조.)

131) 統六軍以長征。廣十道而開闢。 “十道”는 “六軍”(본서 287, n. 1)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식 표현일 뿐이다. 당唐 제국은 열 개의 “道” 내지 省으로 나뉘어 있었다.

132) 北舉攬槍。掃狼山一陣。西高太白。破九姓胡軍。獫狁○邊。逐賢王遁竄。單于偃[帳으로 읽음]下。擒射鵰貴人。科頭進走。 운운. 필사본은 전쟁의 참상을 묘사하는 몇몇 관용적 표현들로 끝난다. 랑산은 황하강 하투河套의 북쪽, 지금의 우라트Urat족 지역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는 필시 어떤 “문학적 비유”에 불과하다. 기원전 119년에 흉노족을 정복한 광저병霍去病 장군은 狼居胥山에서 제사를 모셔(封) 그 승리를 기렸다.(『史記』, 10b. 제111권, 5b. 『漢書』, 제94권, 9a) 이 산을 랑산(『中國古今地名辭典』, 商務印書館出版)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의 녕하寧夏 인근으로 보는 이들(다키가와瀧川資言, 『史記會註考證』, 도쿄, 1933, 제110권, 53)도 있다. “아홉 개 씨족의 야만인들”이란 『당서』의 저자들이 아홉 개 씨족으로 분류하고 있는 튀르크족 내지 위구르인들이다. 소무(昭武. 아랍어로 Schāba, 페르시아어로 Schāwa?)라는 아홉 개 속독(粟特) 가문(昭武九姓. Chavannes, Documents sur les Tou-kiue…; 134 참조.)일 리 없다. 이 씨족들이 “서쪽에” 있었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의미를 갖는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티벳이 아니라 둔황과 관련된다.(보유편, 본서 368-369 참조.)

高太白이란 표현은 문제의 군사 원정들이 중국 서부에 위치한 산악지역들에서 있었음을 단적으로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太白(금성金星)은 장안 남서쪽 진령秦嶺山맥(終南山)의 최고봉(약 4,000m) 이름이다. 옛 문헌들에 따르면 이 봉우리는 무공산武功山에 닿아 있었다. (장안 서쪽, 오늘날의 무공현武功縣은 이 산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武功은 “군사적 공로”를 뜻하는데, 태백산과 무공산은 흔히 함께 언급되곤 한다.(예컨대 商務印書館出版, 『中國古今地名辭典』, 141b에 인용된 『水經注』) 고로 高太白은 상 티쑤제의 높은 군사적 공로들을 동시에 아우르는

그 어투가 아무래도 둔황의 중국인 아침꾼들의 빈말 같은 이 마지막 구절들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실증적인 거라곤, 상 티쑤제가 훈족(흉노)의 후예들로 여겨진 “아만인들”, 즉 튀르크 위구르족이나 토욕혼인들과 싸웠다는 것이 전부다. 알다시피 상 티쑤제가 위구르 토벌 원정을 여러 차례 지휘하긴 했다. 그러나 중국 사절과의 회담들에서 그가 즐겨 응수하곤 했던 대로 상 티쑤제는 위구르족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 허약함에 다만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 뿐이었다.¹³³⁾ 상 티쑤제가 주로 공들인 일은 물론 중국인들에 대적하는 것이었다. 중국인 식자는 이 점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중국 문제 전문가이자 당번唐蕃 국경지역의 절도사로서 상 티쑤제는 그 아비 상찬마尙贊摩의 뒤를 이었던 것이 틀림없다.¹³⁴⁾ 이미 본 대로 상찬마는

암시 또는 비유일 수 있다.

험운獵狁은 중국에선 튀르크족의 선조들로 여겨지는 흉노(훈Huns)족의 옛 이름이다. 현왕賢王, 즉 “어진 왕”은 *tou-k'i*(튀르크어 *doghri*?)라는 칭호의 번역으로, 한대漢代의 한족漢族과 흉노족 간 전쟁담에서 자주 언급된, 흉노 제국 최고위 관리들의 직함이다.(Chavannes, *Mém. hist.*, I, LXVI. de Groot, *Die Hunnen der vorchristlichen Zeit*, 55 참조.) 선우單于는 흉노족 군주의 칭호였고, 사조(射鵰, “수리를 쏘아 잡는 명사수”)란 역시 흉노족을 일컫는 수식 어구다. “귀한 사람”이란 뜻의 貴人은 (황제의 후궁을 일컫는 칭호이기도 한데) 『史記』, 제109권, 1b(de Groot, 같은 책, 94 참조)의 한 구절을 잘못 차용해서 나온 말 같다. 『史記』의 이 대목은 기원전 150년 무렵 한나라 경제景帝의 어느 환관(中貴人)이 장수 이광李廣의 흉노 토벌 원정에 따라나섰다가 흉노의 “독수리 사냥꾼들”(즉, 활쏘기에 능한 자들)에 의해 부상을 입었고 이 사냥꾼들이 다시 이광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히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 133) 본서 282-283 참조. 유원정과의 한 회담에서 상 티쑤제는 816년에 별 어려움 없이 위구르족을 그들의 수도 부근까지 몰아붙였음을 상기시키고, 그토록 허약한 족속을 티벳보다 더 명예롭게 취급하는 중국을 나무란다.(『구』, 제196권하, 11a. 『당서』, 제216권하, 6b-7a. 버셀역, 519-521)

- 134) 尙贊摩. 원래의 티벳어 이름으로 여성형인 상젠마¹³⁵⁾ *Ṣaṇ Bcan-ma*가 아니라 상젠바¹³⁶⁾ *Ṣaṇ Bcan-ba*여야 할 것이다. 투르케스탄에서 발견된 어느 티벳어 군사 문서는 그 수신자가 “주군 젠바 Bcan-ba”다.(Thomas, *J. R. A. S.*, 1933, 396) 둔황의 티벳 연대기 속에 나오는 이름 역시 상젠바¹³⁷⁾ *Ṣaṇ Bcan-ba*다.(Bacot..., *Documents*..., 65) 이 이름은 분명 하나의 직함에 불과하다. 펠리오 장서 2555번 필사본(본서 293, n. 1)에서 상찬마는 上贊摩射婆藹이라 불린다. 그런데도 알다시

768년 이전부터 하서와 룡우, 즉 둔황이 자리한 광대한 중국 북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권한을 가진 티벳의 “동東[도道] 절도”로 임명되었다.¹³⁵⁾ 768년에 상찬마는 티벳의 빈주邠州 정벌군의 선두에 선다. 장안에서 북서쪽으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빈주에서 중국인들은 그에게 패배를 안겼다.¹³⁶⁾ 펠리오

피 당대唐代 북서지방 중국말의 티벳어 트랜스크립션에서 *m*-으로 시작하는 중국어 음절이 비음(-*n*, -*ŋ*)으로 끝났던 경우를 빼곤 중국어 초성 *m*에 상응하는 티벳어는 언제나 *b*- (또는 *'b*-)다. 고로磨(磨) = 티벳어 *ba*다. 이 등가 관계는 당대 북서지방 발음의 특수성에 의거한 것이었다. 북서지방에서 *m*-은 *mb*-로 발음됐었다.(라상배, 『唐五代西北方音』, 17, 22, 143과 본서 25, n. 9 참조.)

135) 본서 264, n. 2 참조. 상찬마는 “762년부터 (중국) 국경을 번번이 침입한 일로 뛰어난 공을 쌓은 뒤 퇴역을 청했다”(『당서』, 제216권하, 1a. 버셀역, 482) 상실결尙悉結의 후임으로 이 직책을 맡았다. 상찬마는 765년 9월 티벳인과 당항족과 토욕혼인 등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야만족 유목민 군대가 장안을 향해 침입했던 일을 논한 한문 사료들 속에 이미 언급된다. 이때 봉천奉天(장안 북서쪽 75km, 지금의 섬서성 건현乾縣)과 예천醴泉(봉천의 동쪽)을 점령했던 티벳 장수들 가운데 상결식[과] 찬마尙結息贊摩(또는 磨)가 있었다.(『구』, 제196권상, 10a. 『당서』, 제221권상, 8b. 『책』, 제987권, 2a) 버셀(버셀역, 479)과 라우페(『통보』, XV, 106, n. 1)는 이 대목에서 단 하나의 이름, 상결식찬마만을 보았다. 하지만 상찬마에 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당서』, 제216권하, 1a(768년)의 한 구절에서, 그는(상尙자 없이) 찬마로 지칭된다. 다른 한편 『자치통감』, 제223권, 55b, 765년에는 찬마란 이름에 나란히 적힌 이름으로 상결식 대신 상결실尙結悉이 나온다.(『구』, 제11권, 6a의 尙品息은 오식임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 상결식 또는 상결실이 다른 아닌 상실결이고, 상찬마가 중국 북서부의 티벳인 절도사로서 그 뒤를 곧바로 계승했던 게 아닌지 자문해볼직 하다. 尙結息은 상결식Žaṅ Rgyal-zigs에 들어맞으니 그 표기 형태는 맞을 것이다. 둔황의 티벳 연대기(Bacot..., Documents..., 65)에 따르면 762년에 경사京師(ken-si. king-che. “수도”, 장안: 중국 북서부 방언에서 중국어를 티벳어로 옮길 때 king은 항상 ken으로 옮겨졌다.)를 점령했던 티벳의 장수들로 상결식(Žaṅ Rgyal-zigs = 尙結息)과 상통젠(Žaṅ Ston-rcan = 尙息東贊), 상젠바(Žaṅ Bcan-ba = 尙贊磨)와 뽕따다(Blon Stag-sgra = 論息諾羅)가 거명되었다. (위에 열거한) 한문 문헌들을 보면 이 중에서 앞의 세 명은 765년 장안을 위협했던 장수들의 이름 가운데 언급된 이들이다. 고로 尙結息贊摩는 분명 “상결식Žaṅ Rgyal-zigs[과] 상Žaṅ 贊巴Bcan-ba”에 대응한다. 아래 이어지는 각주에서 보다시피 중국인 필사자들 때문에 이 이름들은 뒤죽박죽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136) 『자치통감』, 제224권, 62a에 의거하고 『구』, 제11권, 10b의 보충 설명을 보면 상찬마는 768년 10월 11일에 빈주邠州(지금의 섬서성 빈현)를 점령했으나, 이튿날인 10월 12일에 빈녕鄯寧(섬

서와 감숙)의 도절도사 마린馬璘이 상찬마의 2만여 군을 격퇴했다. 『자치통감』은 “尙贊摩”로, 『당서』, 제216권하, 1a는 “贊摩”로, 『구당서』, 제196권하, 1a는 尙悉摩로 적고 있다. 『당서』, 제216권하, 1a, 768년 이하 대목에서도 尙悉摩가 당나라 조정에 “다시 온(復來)” 것으로 언급되고, 『책부원귀』, 제976권, 4a는 尙悉摩란 이름의 한 인물이 769년에 사절로 장안에 있었고 그를 위한 연회가 열렸다고 기록한다.

이 이름들이 전해지는 와중에 분명 혼동이 끼여들었다. 783년 청수에서 체결된 당번 회맹조약을 준비할 때 “대상大相”(blon che) 尙結息은 경질되고 그의 “부상副相”(blon che mgo-man?)으로 중국과 더 타협적이었던 尙結贊이 그를 대신했다.(본서 183, n. 4 참조.) 여기서 尙結息(Žaṅ Rgyal-zigs? 822년의 비문에서 結이 rgyud의 번역이었다면 Žaṅ Rgyud-zigs? Laufer, 『통보』, 1914, 78. 하지만 Pelliot, 『통보』, 1915, 15도 참조하라.)은 『구당서』, 제196권하, 2b, 3-5(버셀역, 488)와 『책부원귀』, 제980권, 12b의 표기다. 『당서』, 제216권하, 1b, 13은 尙悉結로 적는다. 십중팔구 768년 무렵까지 중국 접경지역의 군절도사였던 인물일 것이고 상찬마는 그를 이어 바야흐로 이 직책을 맡았을 것이다. 상찬마의 전임자는 직책에서 물러난 뒤 틀림없이 “대상”이 됐을 것이다.

尙結贊(Žaṅ Rgyal-bcan?)에 관해서라면 이 인물의 이름은 정확한 것으로 보이며, 782년부터 796년 사망할 때까지 중국 사료들 속에서 그의 이력을 꽤 규칙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당서』, 제216권하, 4b. 버셀역, 506) 상결찬은 783년 1월(2월 20일)에 청수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7월에 장안에서 이를 재확인했던(『구』, 제122권, 1b, 제125권, 2a, 제196권하, 2b. 버셀역, 488. 『당서』, 제216권하, 2a. 『자』, 제228권, 29b. 『책』, 제981권, 11a, 13a) 인물이고, 주자의 반란을 진압할 목적으로 784년 당나라에 티벳의 지원군을 보냈던 인물이다. 당나라는 원군의 파병에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는 보상받지 못했고, 이 일로 중국에 반감을 품게 됐다.(본서 177, n. 1과 182, n. 3 참조.) 그리하여 상결찬은 감숙 남동부와 섬서 서부, 황하강 하류를 침략해 786년 말에 점령했다.(당시 그는 여전히 대상이었다.) 그 다음엔 鹽州(지금의 녕하 남동부)와 夏州(섬서 북부)에 몇몇 주둔군만 남기고 동계 숙영을 위해 787년 초에 주력부대와 함께 명사鳴沙로 철군했다. 자일즈는 명사가 둔황(B. S. O. S., VII, 562)이라 믿지만 그렇지 않다. 명사는 지금의 녕하 남서쪽, 황하 하투의 서쪽 지류에 있었다.(『자』, 제232권, 3b, 6b8, 7a5. 『구』, 제196권하, 4a. 버셀역, 493 참조.) 상결찬은 시기심을 이용해 국경지역 당나라 군 수장들을 이간시켰고, 당나라 밀정들을 활용하면서 장수들이 서로 반목하도록(反間) 충동질하여 청수 조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당나라 황제의 전권사절단을 평량(平涼. 감숙, 지금의 녕하 남부)으로 유인하고는, 787년 6월 5일 매복하고 있다가 사절단을 붙잡았다.(본서 182, n. 3 참조.) 789년에 남조南詔는 상결찬의 “흉악한 모략질”에 대해 불평했고, 티벳인들에 맞서 지금의 운남雲南과 사천四川 접경지역(崑[또는 嵩]州의 臺登)에서 중국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구』, 제222권상, 3b) 중국인들에게 크게 패한 이 전쟁에서 상결찬은 결장서서(乞藏庶庶, Khri-bzan-...)란 이름의 아들(진

장서 필사본들 중 약간 이른 시기(762년 무렵)¹³⁷⁾로 그 연대를 산정해야 하는, 숙주 자사가 상찬마에게 보낸 한 통의 서신이 있어 그 전문을 여기 분석한다.¹³⁸⁾

[제목:] 숙주 자사 류신벽을 위해 남쪽의 어느 티벳인에게 회답으로 쓴 편지, 두오 씀.¹³⁹⁾

중국 자사는 서신 교환 상대가 보낸 론실린중¹⁴⁰⁾이라는 “평화의 사자使者”가 한 통의 편지와 은반銀盤을 갖고 당도했음을 알린다. 자사는 상찬마사파악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의례적인 계절 인사말(편지를 쓴 시기는 1월이다.)을 전한다.¹⁴¹⁾ 다음으로 그는 이 서한의 목적이 특히 숙주를 겨냥해 티벳인들이 도발한 당번唐蕃 전쟁을 끝내기 위해 티벳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밝힌다.

짜 아들이거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 하나를 잃었다.(『구』, 제196권하, 7a. 버셀역, 503. 『구』, 제122권상, 3b. 『자』, 제233권, 17b)

상결찬의 이력은 몇몇 행적들(영토 정복, “어려움에 처한 이웃 나라”를 지원)에서 상 티숨제의 찬문이 상찬마에 관해 들려준 이야기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한편으로 “尙結贊”이란 이름은 한문 문헌들 속에서 충분히 밝혀져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 상결찬이 “대상”이었던 반면 상찬마는 “부상”일 뿐인데다 대슬슬의 품계에도 이르지 못했으니, 이는 “상결찬”이란 인물의 비중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두 이름은 거의 틀림없이 별개의 인물을 가리킨다.

137) 본서 301, n. 1과 302, n. 2, 303, n. 6을 참조하라.

138) 이 필사본 전문은 펠리오 장서 2555번 필사본이 실려 있는 긴 두루마리의 앞면 끝에 있다. 2555번 필사본에 대해서는 본서 306, n. 3을 보라.

139) 爲肅州刺史劉臣璧答南蕃書. 寶吳. 남번南蕃(“남쪽의” 티벳)은 마땅히 숙주와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서 267의 주 참조. 두寶씨 가문에 대해서는 본서 250, n. 2를 참조할 것. 오吳를 이름으로 쓰다니 기이하다.

140) 論悉蘭琮, 윈씨쥬Blon Srid-con?

141) 和使論悉蘭琮至, 遠垂翰墨, 兼惠銀盤. 覩物思賢, 愧○○分○○. 首春尙寒. 惟上贊摩射婆萼, 動納清勝. 臣璧盡忠之○, 餘何足言? 본서 290, n. 2 참조.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자사는 현종(玄宗, 712~756)¹⁴²⁾의 재위로부터 시작해 양국 관계의 지난 변천사를 잠시 상기시킨다. 그의 말인즉, 현종의 즉위 이래 당은 티벳과의 선린 정책을 취했고 “그리하여 양국은 오직 한마음일 따름이었다.”¹⁴³⁾ 당나라 황실의 공주가 티벳에 갔고¹⁴⁴⁾ (두 나라 모두 자국) 영토(의 지역명들)를(석비에) 새기면서(이렇게 정해진 국경을) 침범하지 않기로 맹세했다.¹⁴⁵⁾ 이에 따라 혼인으로 맺어진 양국 간의 동맹은 지리적 현실로도

142) 당대唐代의 관례(본서 231, n. 1)에 따라 사후에 추증된 칭호가 아니라(822년의 비문에서처럼, 데라모토寺本婉雅, 『大谷學報』, 제10권, III, 556, 566 참조) 그의 생전에, 즉 742년 3월 22일(『당서』, 제5권, 9a 참조)에 받은 존호로 지칭된다.

143) 昔我開元聖文神武太上皇帝, 登極之際, 與贊普神君契合。[...]併兩國一心.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실은 현종이 재위하기 이전의 일들이다. 현종은 재위 기간 전반부에는 티벳에 우호적인 그 어떤 정책도 채택하지 않았다.(본서 5, 227)

144) 公主下降於紫霄之中, 遠適於黃河之外. 금성공주의 혼인(710년).

145) 鐫銘列土, 誓不相侵 운운. 당나라가 금성공주와의 혼인을 승낙하기 직전, 신룡神龍 2년(706년) “효화孝和 황제”(孝和는 705~710년 재위한 중종中宗의 사후 존호들 중 하나다. 『구』, 제7권, 7a 참조.)의 치세 때 당나라와 티벳 국경을 정하는 조약 하나가 맺어졌고 석비에 이를 새겨 넣었다.(『당서』, 제216권상, 6a와 버셀역, 460의 714년 기록에서 이 조약 관련 언급들을 참조. 『책』, 제981권, 6a. 『전당문』, 제999권, 3a. 같은 조약임이 분명한데 그 연대가 경룡景龍 2년, 즉 708년으로 잘못 적혀 있다. 아마도 실수일 것이다. 이 조약은 『구』, 제196권하, 2a와 버셀역 486의 781년 기록에도 언급된다. 『당서』, 제216권하, 1b. 『책』, 제980권, 12b, 제981권, 10b) 그 후로 티벳인들은 여러 번 거듭하여(특히 714년에는) 금성공주의 중재로 조약을 갱신하려 했다. 하지만 730년에야 비로소 새로운 국경 조약이 원칙적으로 체결됐고, 734년에는 조약 문안을 새겨 넣은 석비들이 당과 티벳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녕西寧에서 라싸로 가는 길에 있는 적령赤嶺에 건립됐다.(본서 185, n. 3 참조.) 이 석비들의 정확한 건립 연대는 사료들마다 다르다.(730년, 733년, 734년?) 그 연대를 확정하려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구』, 제8권, 12b, 13b, 14b. 『구』, 제196권상, 6b. 버셀역, 466. 『구』, 제196권상, 7a. 버셀역, 468. 『당서』, 제216권상, 7a. 『자』, 제213권, 25b, 27b~28a. 『책』, 제979권, 9a[비문碑文]와 제981권, 8a~b) 822년에 유원정은 이 조약의 한문 석비가 얹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티벳어가 적힌 석비만이 온전히 서 있었다. 그는 적령의 위치를 장안에서 3천 리 거리의 석보성石堡城 서쪽이라 기록했다.(『당서』, 제216권하, 6a. 버셀역, 531, n. 39와 본서 318, n. 2 참조.) 숙주 자사의 이 편지에서 거론된 것은 아마 이 두 번째 조약(730~734년)이 맞을 것이다. 편지에서 언급된즉, 금성공주의 혼인(710년) 이후를 말하기 때문이다.

공고해졌다.¹⁴⁶⁾ 석비에 적힌 조약(문)이 아직도 보존돼 있다. (이 모든 것이 고작) 반세기밖에 안 된 일로, 우리와 그리 먼 이야기도 아니다.¹⁴⁷⁾

(그러나) 727년에 왕을 아랑곳 않는 (티벳의 장수) 실낙라悉諾邏¹⁴⁸⁾가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조약의 맹세를 저버려 군사를 일으켰고, 거대한 사막을 건너와 과주를 점령했다.¹⁴⁹⁾ 그는 주민들에게 흙을 쌓고 나무를 모으게 해 옥문

146) 是知舅生[甥의 오기로 보임.]義國, 天然有之, 운운.

147) [...]碑契猶存, 五十年間, 其則何遠.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서한은 숙종(肅宗, 756~762년)이 재위할 때로 그 연대를 잡아야 한다. 어쨌든 티벳인들이 숙주를 점령한 때인 766~767년보다는 앞선다.(본서 171, n. 2) 그러니까 706년의 조약이나 710년 금성공주의 혼인, 아니면 713년 현종이 즉위한 때로부터 50년이란 소리일 것이다.

148) 이 인물이 한문 사료들 속에서 얻은 이름은 悉諾邏恭祿이다. 이는 음성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도 [Bacot, et al.의] *Documents de Touen-houang...*, 47~48과 150에 나온 딱다공록 Stag-sgra Khoñ-log일 수밖에 없다. 원래의 발음은 낙다공록Snag-sgra Koñ-log이 될 것이다. 발음상의 이 변칙은 첫 번째 비음을 폐쇄음으로 변형시키는 북서부 중국어 발음 경향으로 설명이 될 것이다.(*nāk 諾 > ndāk > dāk. 따라서 悉諾는 닝sdag 또는 딱stag에 해당함.) 중국 사료에 따르면 실낙라공록은 727년 9월 26일 과주를 점령한 다음 과주 자사를 포로로 잡고 마을을 약탈했으며 성벽을 부순 뒤 물러났다. 곧이어 그는 (과주 동쪽의) 옥문군玉門軍을 공격했고 상락현(常樂縣, 과주 서쪽)을 포위했다. 상락현이 장기간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견디니 티벳인들이 철군했다. 그러자 당나라 황제는 신임 과주 자사를 임명했는데, 이 신임 자사가 성을 재건하고 주민들을 다시 모았다. 실낙라悉諾邏로 말하자면, 당唐의 하서 절도사는 밀정들을 동원해 실낙라가 당과 담합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티벳인들에게 그를 밀고했고, 이에 티벳 왕은 실낙라를 불러들여 처형했다. 이듬해 또 한 명의 티벳 장수가 과주를 다시 공격하지만 중국인들에게 격퇴당했다.(『구』, 제8권, 11a, 제103권, 2b, 제99권, 3b~4a, 제196권상, 5b. 버셀역, 462~463. 『당서』, 제5권, 6b, 제101권, 2b, 제133권, 2b, 제216권상, 6b. 『자』, 제212권, 22a 이하) 따라서 749년 코코노르 호수 부근의 석보石堡에서 가서한哥舒瀚이 사로잡았던 이는 또 다른 실낙라(『자』, 제216권, 51b. 본서 296 참조.)이고, 소비蘇毗족 왕의 아들로 755년 당唐에 항복했던 실낙라도 있다.(본서 38, n. 3) 와델Waddell이 발표했던 대로 포탈라궁의 석주 비문들에는 842년 왕조의 위기에 일역을 담당했을 딱다루공Stag-sgra Klu-khoñ이란 인물이 언급된다.(J. R. A. S., 1910, 1269) 『당서』, 제40권, 7a(버셀역, 539)의, 8세기 중엽의 노정路程에 따르면 코코노르와 라사의 길 중간에 “실낙라역悉諾邏驛”이란 역참 하나가 있다. 바로 이곳이 그 씨족의 세력권이었을 것이다.

149) 둔황 북동쪽, 지금의 안서安西 부근.

군玉門軍¹⁵⁰⁾의 성을 침수시켰다. (물에) 쪼개진 산이 흙물을 토해냈다.¹⁵¹⁾ 그가 스스로를 전쟁 영웅으로 여기면서 국경지역을 어지럽히니, 그 해악이 점점 심해져 6년 내지 7년은 족히 가는 손실을 입혔다.¹⁵²⁾

편지는 이어 튀르크족 출신으로 당나라 장수였던 가서한이 이끈 군사원정의 승리들을 상기시킨다. 가서한은 “8년 내지 9년간”(747~754년 무렵) 티벳인들을 “아주 못살게 만들었던” 인물이다. 그는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코코노르까지 가서 소금 호수의 한 섬에 병사들을 집결시켜 티벳에 맞섰다. 그는 여러 곳을 정복하고 다섯 군데에 요새(城)를 지었다.¹⁵³⁾ 당시 그 전쟁으로 국경

150) 과주의 동쪽, 과주와 숙주 사이. 본서 269, n. 1 참조.

151) (흙으로 쌓은) 성城벽의 하부를 잠기게 해서(灌) 무너뜨리기 쉽게 만들려고 흙과 나무로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왔다는 이야기 같다. 이 방법은 중국에 익히 알려져 있었다. 기원전 225년 진시황 휘하의 장수 왕전王翳은 위魏나라 수도 대량大梁을 “물에 잠기게 하려고” 황하의 물을 끌어왔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다.(引河溝灌大梁, 大梁城壞) 『사기』, 제6권, 4a. 샤반Chavannes의 번역역은 II, 121 참조.

152) 去開元十有五載, 悉諾邏不恭王, 違天背盟, ○振干戈. 橫行大漠, 陷瓜州. 黎庶聚土積薪, 灌玉門軍城, 決山噴浪. 自以爲軍戎大壯, 擾攘邊陲. 爲害滋深, 已六七年矣. 실나라가 일으킨 혼란 자체는 “6년 또는 7년”까지 지속될 수 없었다. 한문 사료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과주를 침략한 후에 처형됐기 때문이다. 이 서한의 작자는 아마 727년의 과주 침략부터 734년의 조약 체결 때까지의 당번唐蕃 전쟁들 전체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153) 及哥舒瀚出將天寄, 擢旆擁關西之師, 稜威奮伐. 窺龍駒[駒]島, 入苑秀川. 開地數千, 築城五所. 謀力雲合, 指麾從風. 使蕃不聊生, 亦八九年矣. 당대唐代的 역사서들에 가서한(사서史書들은瀚을 본서 297, n. 2에서처럼 삼수변三水邊 없이 翰으로 적는다.)의 일대기가 나온다. (『구』, 제104권, 4b~6b. 『당서』, 제135권, 1a~3a. 『자』, 제215권, 46b 이하와 버셀역, 473~475 참조.) 그는 튀르크인 내지 더 정확히는 튀르키시(突騎施, 哥舒는 그의 부족명이었다.) 아버지와 호탄인 어머니(『당서』에 따르면 호탄 왕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당나라 안서도호부安西都護를 위해 일했고 구자(龜茲, Koutcha. 당시 안서도호부의 소재지였다. 프랑케Franke가 *Gesch. des Reiches*, III, 399에서 말하는 지금의 감숙성 안서가 아니다.)에서 살았다. 나이 마흔에 부친이 작고하자 가서한은 장안에 와서 3년을 머물렀다. 이어 747년 말에 랑주涼州와 감숙 사이 대두군大斗軍(des Rotours, *Traité des Fonctionnaires*, 799 참조.)의 부사副使로 들어가 하서절도사(감숙 남동부, 랑주에 소재) 왕수王達를 위해 일했고, (아마 랑주 지역에 있었을) 신성新城에서 티벳인들과 전투를 벌였으며, 룡우(감숙과 녕하 등등)의 장군 및 부절도사로 임명되고 나서 다시

정식 절도사가 되었다. (『당서』의 집필자들이 내용을 너무 요약해서 적은 나머지 『당서』, 제216권상, 8a³는 가서한이 743년부터 롱우의 절도사로 임명됐다고 말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가 롱우 절도사에 임명된 것은 747년 12월 25일이었다. des Rotours, *Traité des Fonctionnaires*, 845, n. 2 참조.) 이듬해인 748년부터 가서한은 코코노르 호수 기슭에 신위군神威軍이라는 “군영”을 “구축했다.”(築神威軍靑海上. 본서 186, 라싸를 오가는 길에 자리한 천위군天威軍을 말한다.) “군영”(軍)은 여기서 본래적 의미의 경비대가 주둔했던 진지 또는 요새를 뜻하는 것 같다. 『당서』의 『兵志』(제50권, 4b. des Rotours역, 같은 책, 785)에 따르면 군軍은 국경의 경계를 맡은 경비대들 중에서도 더 강한 부대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편지의, 가서한이 쌓았다고 하는 다섯 개 요새(城)들이란, 당대唐代的 엄밀한 군사용어로 볼 때 城이 軍보다 덜 중요한 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이 軍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당서』와 des Rotours, 같은 책) 게다가 사서들은 748년에 “망아지와 용들의 섬”(駒龍島. 다음 아닌 우리의 서한에 언급된 섬이다. 말을 대량 사육한 몽골족 혈통의 토욕혼인들이 코코노르에 정착해 동절기에 그곳에서 용들이 수태시켰다고 여겨진 암말들을 방목했기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됐다. 『구』, 제198권, 4b. 『당서』, 제221권상, 5b)이라 불린 코코노르의 한 섬에 지어진 요새를 지칭하는 데 城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가서한은 이렇게 코코노르 연안의 티벳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 그들을 공격하고 쳐부수었으며 그들의 수장 悉諾羅를 잡아(749년 여름. 『자』, 제216권, 51b와 『책』, 제986권, 24b 참조.) 석보성石堡城에 가두었다. 석보성은 호수 동쪽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741년부터 티벳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다.(『자』, 제214권, 39a) 티벳인들을 물리친 뒤 가서한은 이곳에 신무군神武軍이라는 “군영”을 설치했다.(des Rotours, 전게서, 809, n. 1 참조.) 751년부터 753년(또는 『당서』, 제5권, 11a와 『자』, 제217권, 59b~60a에 따르면 754년)까지 그는 티벳인들이 다수의 요새를 구축해두었던 구곡(九曲. 코코노르 호수 남동쪽, 황하에 인접한 지금의 파연巴燕 일대) 전 지역을 정복한 다음 거기에 군영과 현縣들을 설치했고, 신책군神策軍과 완수군宛秀軍이란 군영을 “구축(築)했다.” 마지막의 완수군은 (宛 대신 苑으로) 우리의 편지에 언급돼 있는데, 지금의 청해성 내 괩주(廓州. 지금의 서녕 이남, 황하와 접함. des Rotours, 전게서, 810, n. 2) 서쪽에 위치했었다. 신책군은 동쪽으로 더 멀리, 지금의 감숙성 남서부에 위치해 있었다. 『당서』, 제50권, 4b와 제216권상, 8a(버셀역, 473), 그리고 『자치통감』, 제217권, 59a의 주석(疏義)에 따르면 신책군은 조주洮州 서쪽, 지금의 임담臨潭 인근, 고란皋蘭(蘭州) 남쪽에 있었다.(des Rotours, 같은 곳, 810, n. 1 참조.)

사료들의 기술에 따르면 가서한이 정복하고 개척한 지역은 지금의 청해성 동부와 감숙성 남서부에 걸쳐 있었다. 753년부터 가서한은 747년부터 갖고 있던 롱우절도사직에 더해 하서절도사직까지 겸했다. 754년에 소비蘇毗족 왕자 실낙라의 항복을 받아낸 이가 바로 그였다.(본서 38, n. 3) 그러나 그는 과로로 건강을 해쳤고, 같은 해인 754년 요양을 위해 장안으로 가야 했다. 755년 말에 안록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장안의 자택에서 휴양 중이었다.(『자』, 제217권, 63a)

이 유린당하고 티벳인들이 말도 못할 고초를 겪었다 한들 이는 스스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가서한의 군사원정들은 실낙라의 침략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니까. 사마귀(실낙라)가 등 뒤의 참새(가서한)를 짐작도 못한 채 매미(과주)를 사냥한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는가.¹⁵⁴⁾

글쓴이는 말한다. 하기야 재앙이 행복을 덮으려 오고 실패가 성공을 감추려 오기 마련이니, 망하고 흥함은 다 그 때가 있는 법이다. 얻는가 하면 잃기도 하니, 세상만사가 무릇 그러하다.¹⁵⁵⁾ 바야흐로 그는 평화론적 입장을 개진한다. 온 생명의 아버지인 하늘과 그 어머니인 대지가 서로 나뉘면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낳았으니, 만약 한 물건(一物)이라도 손상시킨다면 하늘과 땅의 조화를

안록산은 일전에(752년에) 장안에서 가서한을 만난 일이 있었고, 둘의 출신이 비슷함을 들어 그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기까지 했다. 알다시피 안록산은 “세랑디양 *sérindien*”, 즉 서역인(胡) 아버지와 튀르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들 한다. 『安祿山事蹟』에 따르면 더 정확한 생부를 알 수 없고, 그가 태어난 뒤 그 어미는 안씨 성을 가진 어느 “胡”에게 개가改嫁했다. 이 안씨는 서역인, 아마도 이란인이었을 것이다.(하라다 요시토原田淑人, 『西域發現の繪畫所見衣飾の研究』, 『東洋文庫論叢』, 제4권, 74와 des Rotours, *Traité des Fonctionnaires*, 712, n. 4 참조.) 가서한이 안록산의 제안에 응하지 않자 둘의 사이는 틀어졌다. 756년 1월 18일 안록산이 낙양洛陽을 점령하자 가서한은 장안을 방어하기 위해(하서, 롱우, 삭방朔方 등) 북서부에서 긴급 동원된 군대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1월 27일. 『구』, 제9권, 9b 참조.) 그는 756년 7월 9일 장안으로 진입하는 통로인 동관潼關의 입구 령보靈寶에서 패해 안록산의 손아귀에 놓이게 됐다. 가서한이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록산은 얼마 안 있어 낙양에서 그를 처형했다. 『金石萃編』(제90권, 권말)에는 753년 무렵 감숙성 란주蘭州 지역에 건립된 어느 석비에 의거해, 가서한이 티벳인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들을 기리는 비문의 편린들이 전제돼 있다. 754년 무렵 가서한에게 헌정한 장문의 시에서 두보杜甫는 티벳인들에 대한 그의 승리를 찬양했다.(投贈哥舒開府翰二十韻. 『杜工部詩』, 『四部叢刊』本, 제15권, 14a~16b) 하지만 나중에는, 령보 전투에서 패한 가서한이 최후를 맞은 뒤 759년에 지은, 두보의 가장 유명한 시편들 중 한 편(『潼關吏』, 같은 곳, 제14권, 6a)의 마지막 시구詩句에서는 그를 비난했다. 죽기에 앞서 찬탈자에게 항복했으니 그 패배가 한층 더 수치스럽다는 거였다. des Rotours, 전게서, 845, n. 2와 본서 「보유편」, 369~370도 참조할 것.

154) 『莊子』, Wiegier 옮김, 『道敎』, II, 377 참조.

155) 向若無悉諸邇先侵, 豈見哥舒翰後患? 有同螳[螳으로 봐야 함.]螂捕蟬, 不知黃雀在其後矣. 蓋知禍福相掩, 盛衰更隲. 廢興有時也, 得常道也.

해치는 것이다. 병장기와 살인을 애호하는 것은 하늘의 선한 뜻에 반反하니 화禍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땅의 의로움에 반하니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중국과 티벳의 적개심과 무력 충돌과 살육은 바로 거기서 말미암은 것이니 이 얼마나 한탄할 일인가! 중국인 자사의 외침은 그렇다.¹⁵⁶⁾

이어 말하길 자신이 한참 어리석고 둔할지라도, 그로선 중국과 티벳의 국경에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장래의 먼 계획을 제안하고 불가침 구상을 토의하고 싶으니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상찬마에게 권한다.¹⁵⁷⁾ 도의에 입각한 설득 다음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논변이 이어진다. 그의 말인즉 티벳은 동으로는 코코노르 호수의 한 모퉁이¹⁵⁸⁾를 차지하고 있고, 서로는 황하의 (원류인) 협곡에 닿아 있다.¹⁵⁹⁾ 남으로는 철령이 굳건히 지켜주고 북으로는 설산이 뽀뽀이 막아선다.¹⁶⁰⁾ 라싸 저 너머로는 곤륜崑崙산맥까지 이르고, 곤륜 옆으론 수산물

156) 且天者父也, 地者母也. 父母之閒而生萬類. 若損一物, 天地爲之傷和. 好同[用으로 봐야 함.]干戈, 愛其殺戮, 違天之慈, 得無禍乎? 違天之義, 得無害乎? 使兩國反覆, 兵戈相誅, 莫不由此. 良可悲也. 유교적 평화론이다.

157) 臣壁[壁으로 읽음.]不才, 城[誠으로 읽음.]無遠識. 願奉安兩壘之長計, 論不侵之遠謀. 希稍覽也.

158) 隅, 바다(코코노르는 중국어로 靑海라 불린다.)의 한 언저리. 『書經』, Couvreur 역, 54 참조. 여기서 이 용어는 우주의 끝 가장자리들에 해당한다.

159) 한대漢代 이후 중국인들은 호탄강이 황하의 원류들 가운데 하나라고 믿었다. 822년 유원정이 사절로 티벳에 다녀오고 나서야 비로소 황하의 발원지를 티벳 동쪽으로 보는 설이 널리 인정받았다.(Chavannes, *B. É. F. E.-O.*, III, 230, n. 3 참조.) 그러나 옛 설을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으니, 예를 들면 둔황 지역을 다룬 9세기 말 지리서의 편린에 이런 옛 설이 보인다. 이 지리서 편린은 자일즈가 번역했다. M. Giles, *B. S. O. S.*, VI, 831.

160) 且吐蕃東有靑海之隅, 西接黃河之險. 南有鐵嶺之固, 北有雪山之牽[牢로 읽어야 함]. 설산, 즉 “눈 덮인 산”은 히말라야의 번역으로 불교문학 및 문헌 등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가리킬 때 쓴다. 하지만 중국 서부에 위치한 여러 산들과, 특히 오늘날의 지명으로 하면 리히트호펜Richthofen 산맥의 명칭이기도 한데, 이 산맥의 만년설은 감숙과 청해 경계, 랑주와 숙주 사이를 지나 둔황에 이르는 길의 남서부까지 이른다. 당대唐代的 몇몇 주석들에서는 기련祁連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산맥이다.(Chavannes, *Documents...*, 133, n. 2) 게다가 당대唐代에는 설산이란 명칭으로 더 광대한 산맥을 가리켰던 것 같다. 『敦煌錄』은 남쪽에서 둔황으로 흘러드는 감천甘泉의 발원

을 물로 운반해서 돛단배로 늘 뒤덮여 있는 월越과 통한다.¹⁶¹⁾ 소와 말을 물으로 (운반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골짜기를 (오간다.) (티벳의) 여러 고장은 전사들로 넘치고 영토는 광대하며 국경은 자연적으로 보위되니, 그 면적이 수만 리에 이른다. 제 백성을 건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티벳은 갖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아쉬워 성들을 공격해 작은 이득을 구하며 영토를 탐해 사람에게 해를 입힌단 말인가? 하늘이 용납지 않고 신들이 벌할 일이다.¹⁶²⁾

지가 설산이라는 산이라고 기록한다.(『大正』, no. 2091, 997c. 자일즈역, *J. R. A. S.*, 1914, 703~736) 손해제孫楷第가 연구해 『圖書季刊』(*Q. Bull. of Ch. Bibl.*의 한문본), III, iii, 1936년 9월에 발표했던, 장의조에게 헌정된 어느 변문變文(펠리오 장서 2962번 필사본)에 따르면, 위구르족에게 가는 중국 사절단 일행이 856년에 “눈 덮인 산의 남쪽 발치에서”(雪山南畔) 습격과 약탈을 당했다. 일행 중 한 명은 달아났고 사주에 당도해 장의조를 만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원화군현지』, 제40권, 4b와 9b는 설산이 진창晉昌(과주)에서 남쪽으로 160리, 장액張掖(감주)에서 남쪽으로 100리에 있었다고 기록한다. 당대唐代의 다른 문헌들(『後漢書』의 주해, 제2권, 8a. 자일즈, *B. S. O. S.*, VI, 843 참조.)은 “설산으로도 불리는” 기련산을 이주伊州 북쪽에 위치시키는데, 그렇다면 이는 하미Hami 부근, 지금의 타시불락Tash-Bulak 북쪽에 솟아 있는 칼릭 탁(Karlik-tāgh, “눈 덮인 산”)일 것이다.(Stein, 자일즈의 인용, 같은 곳) 현대의 지명 사전들은 운남雲南과 사천四川 등지의 또 다른 설산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서한에서 이 명칭은 틀림없이 감숙甘肅의 오아시스들, 량주涼州, 감주甘州, 숙주肅州, 과주瓜州, 사주沙州를 따라 남서쪽에 뻗어 있는 산계山系 전체를 가리킨다. 이 편지가 작성된 시대에 이 오아시스들을 아직 중국인들이 관할하고 있었으니, 이 산맥은 실제로 당시 티벳의 북쪽 국경들 중 일부를 형성했다.

161) 邇娑之外，極乎崑崙。崑崙之傍，通乎百越。水運海物，輻輳空。 “百越”은 원래 중국 남부와 안남의 인도차이나 반도 해안지방에 살던 주민들이다. 崑崙은 아시아 고지대 산악지역 아니면 인도차이나와 인도네시아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책』, 제961권, 16b(吐蕃傳) 참조. “장하(藏河, Gcañ-po, Brahmaputra)는 물이란 물은 모두 거두어 라싸에서 남동쪽으로 삼백 리를 흘러간다. 장하는 남南으로 곤륜의 나라(들)를 관통한다...” 숙주자사, 아니 그의 편지를 대필한 식자의 지리적 관념은 확실히 그리 정확하지도, 그리 믿을만하지도 않았다. 혹시 티벳과 버마의 교역 관계에 관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티벳이 바다까지 영토를 넓힌 것으로 그들이 상상했던 것일까?

162) 平陸牛馬萬川。群國富兵衆。土廣而境遠自然。方圓數萬里之國，足可以爲育養。何要攻城而求小利，貪地而損人？此天道所不容，神明之所必罰。 문장과 구두법句讀法은 불확실하다. 논법은 『墨子』의 「非攻」(“공격을 삼가다”)장, Forke 옮김, 266 이하의 것과 비슷하다. 불교적 암시가 전혀

이제 상찬마라면 티벳 왕의 충신들 중 한 명으로, (티벳의) 동도(지방) 절도(군사 관할지)를 여럿 점하고 있다.¹⁶³⁾ 그런 그가 어찌하여 화해정책을 채택할 것을 왕에게 건의하지 않는가? 국경에서 무기를 거두어 땅에 씨앗을 뿌리게 하고, 중국인들의 원한과 분노를 종식시켜 혼인동맹으로 맺어진 두 나라의 우의를 회복하는 것, 이런 계책이야말로 지속적인 결실을 맺게 할진저. 그저 한 때에 그친다면 값어치 없는 일이라. 사사로이 이익을 도모하고자 주군의 비위를 맞추고 벼슬을 얻고자 아첨한다면, 이는 제 나라를 해치는 신하로 처신하는 것이지 결코 충절과 올곧음을 보인 것일 수 없다.¹⁶⁴⁾

숙주 자사는 이어 755년 12월에 일어나 료수遼水와 유연幽燕(지금의 하북성河北省)부터 당 제국 수도권首都圈 내의 황하와 낙하洛河 연안까지, 중국 북부 전역을 유린했던 “최근와”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을 떠올린다.¹⁶⁵⁾ 티벳인들은 중국과 혼인으로 맺어졌음에도 난을 평정하기 위한 군사적 원조를 함에서 무능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난을 이용해 중국인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기에 여념이 없기까지 했으니 심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다.¹⁶⁶⁾

없는 것은 이런 류의 외교문서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50년 뒤에 한 티벳 수장의 환심을 사려는 당나라 관리가 어김없이 불교적 논변에 기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는 있다.

163) 본서 264, n. 2 참조. 『당서』(본서 290, n. 3)에 따르면 762년 이후에야 비로소 상찬마는 상실결에 이어 티벳의 “동도절도”가 되었다.

164) 今上贊摩爲蕃王重臣, 秉東道數節. 何不諫王以治國之道, 安社稷之計, 罷甲兵於兩壩, 種黍於原野, 止漢家之怨憤, 通男生[甥으로 봐야 한다.]之義國? 此萬世之計也, 不獨一時而用之. 若順君以安私, 諂媚而求位, 此殊[珍 또는 殘으로 봐야 한다.]國之臣也, 忠良之所不爲.

165) 傾[頃으로 읽음.]安祿山背恩, 史思明構亂. 結党[=黨]遼水, 扇動幽燕. 敢以狂兵稱杆河洛. 동쪽 수도 낙양은 756년 1월 18일 역도들의 수중에 떨어졌다. 같은 해 7월 14일 현종은 서쪽 수도 장안을 버리고 몸을 피했다.(『구』, 제9권, 9a~10a. 『자』, 제217권, 65a와 제218권, 3a)

166) 外生[甥이 맞다.]未能以助兵靜亂, 反更侵魚[漁로 봐야 한다.]襲人之危. 深不義也. 外甥[=사위], 즉 “결혼한 누이의 자녀”란 티벳 왕을 말한다. 『당서』, 제216권상, 8a(버셀이 번역하지 않은 대목으로, 755년 이하)는 안록산의 난과 숙종肅宗 재위(756~762) 초반 동안 중국에 대한 티벳인들의 태도를 이렇게 요약한다. “안록산이 난을 일으켜 가서한이 하(서)와 룡(우)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동관을 지키러 동쪽에 오니, (하서와 룡우의) 제장諸將과 그 휘하 부대들은 난을 평정하

는 데 골몰했다. 그 무렵 이 부대들을 행영行營이라 불렀다. 국경이 텅 비고 지키는 이 없으니 티벳인들은 이 국면을 이용해 폭력과 약탈에 열중할 수 있었다. 지덕至德(756년. 연호의 변경이 8월 12일에 공포됐다.) 초에 티벳인들은 수주(州, 지금의 서창西昌. 만청滿清시대의 寧遠으로 四川 남서쪽. 『당서』의 본기本紀, 제6권, 1b는 수주의 점령을 755년으로 잡는다.)와 위무(威武, 神威軍과 神武軍. 본서 295, n. 2와 370 참조.) 등 여러 성을 점령했다.(取州及威武等諸城) 그들은 (코코노르 동쪽의 요충지) 석보石堡(본서 295, n. 2)를 점령했고, 이듬해(757년) 사절단을 보내 도적떼들(즉, 역도들)의 진압(에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고 (당唐과의) 친선을 돈독히 하자고 했다. 새 황제인 숙종肅宗은 이 사절단의 방문에 대한 답례(報聘)로 급사중給事中 남거천南巨川을 파견했다. 그러나 바로 같은 해에 티벳인들은 각주(廓州, 지금의 청해성 서녕西寧 남쪽)와 패주(霸州, 지금의 사천성 리번理番, 成都 북서쪽)와 민주(岷州, 지금의 감숙성 남부 민현岷縣) 등지와 (코코노르 남쪽의) 하원군河源軍 및 (감숙 남쪽의) 막문군莫門軍을 공격해 점령했다. 사절들은 여러 번 와서 평화를 제안했다. (숙종) 황제는 (이 제안들에) 성의라곤 없음을 제대로 알았지만, 당시로서는 (안록산의 난에서 비롯된) 위기에 대처(함에서 동맹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재상宰相 각자의郭子儀와 소화蕭華, 배준경裴遵慶 등에게 티벳인들과 조약을 체결하라는 령을 내렸다. 하지만 조약은 성사되지 못했다. 762년 티벳인들은 립조(臨洮, 감숙성皋蘭 남쪽)를 덮쳤고 진주(天水, 감숙성 남동부, 섬서성 부근)와 성주(甘肅성成縣), 위주(甘肅성平涼縣) 등지를 점령했다.(陷臨洮取秦成渭等州)”(본서 171, n. 3 참조.)

『책부원귀』, 제956권, 8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한다. “천보天寶 말(755년)에 나라의 위난에 대처하고자 하(서)와 룡(우)와 삭방(朔方. 寧夏와 어얼뒤쓰鄂爾多斯 등 지역이었다.)의 전군全軍을 동원했고 그러자 티벳인들이 (장안 북서쪽, 지금의 섬서성) 빈주邠州 전역을 점령했다.” 『책부원귀』, 제963권, 15a의 또 다른 구절에 따르면 756년 8월(8월 30일~9월 28일) 숙종이 난을 피해 령무(靈武. 청대淸代의 靈州, Ningxia 남쪽)에 있었는데, 여기서 그의 즉위를 기리는 의식이 8월 12일에 열리자 위구르와 티벳인 수장들이 차례로 와서는 동맹을 맺고 난의 진압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티벳인들은 757년 2월(『책』, 제963권, 15b)에도 이를 재차 제안했다. 이때 황제는 장안 서쪽으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봉상鳳翔에 안거하면서 환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 757년 9월(당唐은 9월 중에 장안을 되찾았다.) 숙종이 남거천을 사절로 티벳에 보냈다는 『당서』의 기록은 바로 이때 있었던 일이다.

우리의 서한이 확인하듯이, 티벳인들의 제안은 필시 위험천만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57년 11월 13일, 위수渭水에서 장안 서쪽으로 흐르는 풍수豐水 강변의 향적사香積寺 인근에서 당唐 태자의 지휘 아래 역도들을 괴멸시키고 이튿날 장안을 탈환했던 군대들을 언급하면서, 한문 사료들은 (이 토벌군의 주력이었던) 위구르족과 세랑디아인(서역西域인, [Chavannes, Documents sur les Tou-kiue…, 158, n. 4 및 299 참조])들, “남쪽 야만인들”(南詔)과 “아랍인들”(大食人)을 꼽지만 티벳인들은 거론하지 않는다.(『구』, 제10권, 4b. 『자』, 제

허나 (보위에 계신) 우리 황제¹⁶⁷⁾께서 황하 북쪽으로 피신해¹⁶⁸⁾ 그곳에서

220권, 19a)

167) 我乾坤大聖光文武孝感皇帝. 두 글자만 아니라면(元 대신 乾을 썼고 光과 文 사이에 天이 실수로 누락됨.) 이것은 759년 2월 3일 아버지인 현종이 아들인 숙종(756~762) 황제에게 내린 존호다. 숙종은 재위 말까지 이 존호를 갖고 있었지만, 762년 5월 16일에 갑자기 서거하기 몇 달 전, 761년 10월 23일에 반포한 어느 칙령에서 이 존호가 여전히 자신에게 합당치 않다는 뜻을 밝히긴 했다.(『구』, 제10권, 7b~10b. 『당』, 제6권, 3a, 4a) 이 존호는 현종이 758년 2월 17일 숙종에게 하사한 존호 光文武大聖光文武孝感皇帝(『구』, 제10권, 6a. 『당』, 제6권, 3a)와는 약간 다르다. 따라서 우리의 서한은 확실히 759년 이후의 것이고, 대종代宗에 대한 그 어떤 암시도 없는 걸 보면 아마도 대종이 즉위(762년 5월 18일)하기 이전으로 그 연대를 잡아야 할 것이다.

168) 麟躍鳳翔, 龍飛河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일각수가 봉상으로 뛰어올랐고 용이 황하 북쪽으로 날아올랐다.”는 말이다. 河(東)과 朔(方)을 의미할 수 있는 河朔은 여기서 삭방절도사朔方節度使가 있던 靈武(지금의 Ningbo 남쪽, 황하 하투지역)를 예들려 표현한 것이다. 이곳은 장안을 포기한 뒤 미래의 숙종이 피신해 안록산의 난의 평정을 도모하고, 756년 8월 12일 황제 즉위를 선포했던 곳이다. 숙종은 757년 3월 4일부터 봉상에 있으면서 장안을 되찾기 위한 — 주로 야만인들로 구성된 — 그의 군대를 그곳에 집결시켰다. 이 군대가 향적사의 대전투를 개시하기 위해 757년 10월 29일 출정했던 곳, 숙종에게 장안으로 가는 문을 다시 열어준 곳이 바로 봉상이다. 12월 8일 숙종은 장안으로 돌아갔다.(『구』, 제10권, 4b. 『자』, 제219권, 15b와 제220권, 19a, 21b) 우리의 서한은 靈武에 앞서 鳳翔을 언급하고 있으니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적은 게 아니다. 장안을 떠난 현종이 봉상에 머물렀던 것은 맞다. 하지만 “일각수를 뛰어오르게” 하기는커녕, 그는 봉상에서 폐위당하는 처지가 됐다.

756년 7월 14일 장안을 버린 뒤 현종과 그 아들, 즉 미래의 숙종은 16일에 장안 서쪽으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마외馬嵬에서 헤어져, 현종은 서쪽으로 갔고 숙종은 북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봉천奉天, 영수永壽, 신평新平 — 지금의 섬서성 乾縣, 永壽縣, 郿縣 — 을 지났고, 녕하의 靈武로 가기 위해 다시 (지금의 감숙성) 안정安定으로 갔다. 7월 17일 현종은 부풍군扶風縣에서 멈추었고, 18일부터 20일까지 부풍군扶風郡에 머물렀다. 부풍군의 행정 관청이 봉상에 있었다. (그래서 756년부터 758년까지 부풍군의 명칭은 봉상군이었다. des Rotours, *Traité des Fonctionnaires*, 683의 주 참조.) 거기서 현종은 사천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나, 이는 안록산에 맞선 싸움을 포기하는, 정말이지 “일각수의 도약”과는 전혀 판판인 그런 결정이었다.(『구』, 제9권, 10a~b와 제10권, 1b. 『자』, 제218권, 3a~5a)

鳳翔을 “불사조가 날아올랐다”는 하나의 표현으로 해석해봄직하고, 틀림없이 이 편지를 쓴 이도 그런 중의重義적 유희를 염두에 두었겠지만, 그러나 河朔과 대구를 이루고 있음은 鳳翔이 하나의 고유명사임을 가리킨다.

황실의 위엄을 다시 보이셨다.¹⁶⁹⁾ 황제께서는 부풍扶風의 정예군과 중앙아시아의 호전적 유목부족들에 힘입어 군권軍權을 회복하셨다. 그는 역도들을 모조리 멸했다.¹⁷⁰⁾ 장안 일대의 질서를 회복하고 당唐의 위엄을 되살려 속국屬國 백성들이 그 앞에 재차 몸을 굽히게 하고, 병장기를 거두게 하여 평화와 복과 번영을 만방에 다시 꽃피게 했다.¹⁷¹⁾ 티벳과 같은 동맹국이라면 이야말로 마땅히 기뻐할 일이다. 이 기쁨을 기탄없이 드러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오직 티벳과 중국을 가르는 경계선뿐이다.¹⁷²⁾

이어 자사는 상찬마를 설득해 숙주를 위협하는 모든 기도를 만류하려 애쓴다. 자사의 말인즉, 숙주는 일개 작은 고을에 불과하다. 산이 가파르고 길은 좁다. 물도 부족해서 가는 곳마다 짹짹한 모래발뿐이다. 그 크기라고 해봐야 이

169) 披日月而昇九天, 挂星辰而朝万國.

170) 帝於是鞬扶桑弓, 拄[杖으로 읽어야 함.]倚天劍. 龍騰於國九五. 師出以六軍. 權扶風銳兵. 驅[驅로 읽음.]大窳[宛으로 읽음.]曉[曉로 읽음.]衆. 雷鼓震, 逆党[黨으로 읽음.]殘除. 부풍은 여전히 봉상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고을의 명칭이다. 756년 8월 27일의 한 조령에서는 부풍을 봉상군이라 한다고 했다.([『자』, 제218권, 7b) 앞서(본서 301, n. 2) 보았다시피 숙종이 장안에서 황위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봉상에서 군대를 재규합한 덕분이다. “전사 유목민들인 大窳”은 장안을 탈환했던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군대다. 大窳는 페르가나Ferghana의 옛 이름이었고, 이 군대 중에 실제로 페르가나에서 온 병사들이 있었다.(본서 300, n. 1 말미에 언급된 Chavannes을 참조)

171) 乾坤霧收. 河洛雲卷. 百蠻稽顙[顙으로 읽음.]而來貢. 九夷匍匐而稱[稱]臣. 休士馬於函閔. 倒干戈於長府. 率土歌堯舜之年. 海內樂成康之代. “황하와 낙양 위 암운을 걷어낸 일”, 즉 757년 장안 일대의 탈환(낙양은 12월 3일 수복됨)을 말하면서, 762년 무렵의 이 편지의 글쓴이는 그가 익히 알고 있던 근래의 일들을 예들려 말했다. 하지만 그가 “병사와 병마들을 (낙양과 장안 사이) 함관函關에서 쉬게” 했고 “창과 방패를 장(안)의 창고에 눕혔다.”고 덧붙이거나, 요순과 성강 같은 옛 성왕들의 시대인 양 다시 온 태평성대를 칭송했을 때, 그는 너무 멀리 나갔고 장밋빛 미래를 그렸던 셈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안록산의 공모자 사사명이 얼마 안 있어 낙양을 당나라로부터 다시 취해 761년까지 점령했고, 그 아들 사조의史朝義는 763년 초에 가서야 비로소 굴복했으니, 이 거대한 반란의 종식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763년이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당나라의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763년 11월에는 티벳인들이 장안을 점령했다.

172) 既爲男生[=甥]計開析歡, 限以兩壘難由面歡. 미심쩍은 번역.

백 리를 넘지 않으니, 군대와 병마가 주둔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님은 분명하다.¹⁷³⁾ 자사는 상찬마가 3년 전 7월 15일에 숙주를 “방문”했던 일을 상기시킨다. “누추한 내 고장에 방문하심에, 이를 빛내기 위해 공의 대군이 멀리서 오는 수고를 했습니다.”¹⁷⁴⁾ 틀림없이 티벳이 침입한 일을 좀 더 외교적 문투로 표현한 것일 텐데, 당시의 “방문” 때 자사는 “방문자”에게 연회를 제공함은 물론 약소하나마 자원을 이용하게 해주었고, 그와 더불어 술잔을 옆에 두고 두 나라의 병무와 “구생舅甥의”, 그러니까 중국 황제와 티벳 왕의 우호관계를 논했었다 말한다.¹⁷⁵⁾ 이 토론이 있고 나서 (상)찬마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군대를 물리려 했고, 이후로도 정녕 자신의 언약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자사가 부끄러움을 토로하고 결코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칭송하는 그 넓은 안목과 높은 인품을 상찬마는 그렇게 증명했다.¹⁷⁶⁾

뒤이어 자사는 그의 상관으로 (숙주를 관할한) 러묘라 하는 하서의 (군)절도사를 칭찬하기 시작한다.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의 재능, 담대함과 관용을 찬양한다. 그는 용맹을 좋아하면서도 매우 어질다. 지혜가 높으면서도 사리에 두루 통달한 정신의 소유자다. 그가 “깃발을 쥔 지”, 다시 말해 군절도사의 직무를 시작한 지 4년, 지역 전체의 환경이 달라졌다.¹⁷⁷⁾ 그는 병사들의 고된 의무를 가볍게 여겨 군사 원정을 일체 허락하지 않았다. 식견을 갖춘 군주의 나라(티벳)에 할 일이 있음을 기뻐해 국경을 성실히 지킨다. 그 인간애와 절제심이 실

173) 且肅州小郡，山險路陝。境少泉澤，周圍磧鹵。地方不過三百里，素非士馬候憩[憩로 읽음]-之所。

174) 三年以前，七月十五日，勞贊摩大師遠辱敝邑。

175) 竭金河單[單? 解?]酌[?]. 論兩國甲兵。傾東門淡杯，叙舅生[甥이 맞다.]義好。석연치 않은 원문, 어림잡은 번역. “金河”나 “東門”이란 용어들이 연회가 열렸던 장소와 관련이 있을까?

176) 一言道感，便沐迴軍。期不再來，果副明信。則知贊摩量廣而器深，節高而志大。懷其愧也，何嘗忘之？

177) 五涼이란 감속성을 뜻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4세기와 5세기에 감속 지역을 다스렸던 5대량涼 왕조(前涼, 後涼, 南涼, 北涼, 西涼)에 빗댄 말이다. 『辭海』, 『子集』, 154a에 인용된 張九齡(서기 740년)의 시구와, 우리 서한의 글쓰기가 기억했던 것으로 보이는 시구(兼擁旄於五涼) 참조.

로 이와 같도다!¹⁷⁸⁾

178) 今我河西節度使呂公, 天假奇才, 神資武畧. 包推海量, 含藏是非. 好勇而至仁, 上智而宏達. 擁旄四載, 變五涼. 愍戰仕之勞, 不忍征伐. 謹明主之國, 謹守封疆. 其愛人也如是, 其不貪也如此.

절도사 려공은 누구인가? 하서절도사 직함은 756년 7월 9일 려보에서 패배할 때까지 가서한이 갖고 있었다.(본서 295, n. 2) 사마광은 『자치통감고이』(사부총간본, 제14권, 6a)에서, 754년 장안에 은거해야 했던 무렵의 가서한이 하서와 룡우의 절도사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자치통감고이』, 제218권, 5b에 인용된) 『玄宗實錄』의 기록에 따르면 756년 7월 25일 현종 황제는 사천四川으로 가는 도중 왕사례王思禮가 평량平涼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보고받았다. 안록산의 난이 하서의 이민족(『자치통감』의 한 주석에 의하면 튀르크족) 주민들 사이에 야기된 분쟁에 관한 정보였다. 그 부족민들은 가서한을 따라 중원으로 떠난 자기 수장(都護)들이 려보에서 패함으로서 죽었다고 믿고 그 후계를 다투는 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장들은 려보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현종은 당시 하서병마사河西兵馬使이던 주필周泌(이체자仇, 泌=秘, 역자)]이란 자를 하서절도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주필은 예전에 왕사례와 더불어 북서지역에서 가서한 휘하에 있었다.(『구』, 제110권, 5a와 『당서』, 제147권, 1a 참조.) 동시에 현종은 팡원요彭元耀(또는暉)를 룡우절도사로 임명했다. 두 절도사에게는 이민족 수장들과 함께 그들의 임지로 가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들은 현종의 아들을 알현하기 위해 려무(寧河)를 거쳐 갔을 공산이 크다. 왜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자치통감고이』, 제13권, 13b에 인용되고 『구』, 제10권, 2b가 의거하고 있는) 『肅宗實錄』에, 숙종이 즉위일인 756년 8월 12일 려무에서 몇몇 인사 조치를 했을 때 그 두 사람을 절도사로 임명한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3일 뒤인 8월 15일, 당시 보안普安(成都 북서쪽, 지금의 劍閣)에 있던 현종 황제가 새로운 인사 조치들을 했는데, 그중에는 풍왕공豐王琚를 무위, 즉 량주 도독 겸 하서와 룡우와 안서(세랑드Sérinde)와 북정(투르판 지역)의 절도사로, 그러니까 당나라 북서부 국경지대 전체의 군권을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한 일이 있다.(『구』, 제9권, 10b. 『당서』, 제5권, 12b. 『자』, 제218권, 6b~7a) 하지만 현종은 이 무렵 아들에 의해 사실상 황위를 박탈당한 처지였으니 이 임명은 효력을 갖지 못했다. 하서절도의 소재지인 량주에 당도한 이는 주필이었고, 수개월 뒤인 757년 2월 10일 현지 주민들이 일으킨 폭동의 와중에 그는 그곳에서 살해됐다.(『구』, 제10권, 3b. 『당서』, 제6권, 2a. 『자』, 제219권, 14b)

최칭崔稱(또는 僞)이라는 절도사의 판관判官이 이 폭동을 진압해 757년 3월 17일에 량주의 절서가 회복됐다.(『당서』, 제6권, 2a 참조.) 하지만 주필의 후임자는 757년 6월 1일에야 겨우 임명됐던 것 같다.(『구』, 제10권, 4a와 제108권, 4b, 제146권, 4a. 『당서』, 제126권, 5a와 제172권, 4a) 이 신임 하서절도사의 이름은 두홍점杜鴻漸으로, 꽤 유력한 인물이었다.(『당서』에 그의 일대기가 전한다.) 숙종이 봉상에서 임명할 당시 병부부시랑兵部副侍郎이던 그는, 756년에 자신이 다스리던 려무에서 숙종을 영접한 뒤 숙종의 즉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숙종은 그를 하서의

머나먼 사막에 오래 놔두지 않았으니, 안록산의 도당들로부터 장안 일대를 되찾자마자(757년 12월) 그를 지금의 호북성湖北省의 형남절도사荊南璽度使로 보냈다. 이것이 758년의 일(『자』, 제221권, 32a)이었고, 그는 769년에 죽었다.(『구』, 제108권, 5a. 『당서』, 제126권, 5b)

두홍점의 후임으로 하서절도에 임명된 이를 역사는 기록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덕종德宗 재위시의 조세개혁으로 유명한 재상 양염(楊炎, 727~781)이 관직 생활 초기에 우연한 일로(량주 관할 하의 두 현縣들 중 하나인) 신조神鳥의 현령이자 하서절도사의 서기 이태간李太簡이란 자와 술을 먹은 뒤 주먹다짐을 한 일이 있었다. 하서절도사가 몸소 이 일에 개입해야 했다. 이 절도사의 이름은 려승분呂崇賁(양염의 일대기, 『구』, 제118권, 5a. 『당서』, 제145권, 5b)으로, 이가 바로 우리 필사본의 “呂公”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양염의 주먹다짐이 언제 일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려승분이(『구』, 제10권, 2b에 따르면) 포주(蒲州. 황하 굴곡부의, 지금의 山西省 永濟縣) 자사나(『자』, 제218권, 6b에 따르면) 포관蒲關(포주 인근에 위치한 황하의 관문) 방어사防禦使로 재임하고 가서한 휘하에서 려보전투에 참전(『구』, 제110권, 5a. 『당서』, 제148권, 1a 참조)한 뒤, 756년 8월 12일 숙종 즉위 시 관내절도사關內節度使에 임명되면서 安化(감숙의 동쪽 끝, 지금의 慶陽)에 주재하게 됐음을, 우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 알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關內라고 하면 원래 지금의 섬서 북부, 장안, 감숙 동부, 녕하 남동부를 포괄했다.) 그의 이름이 다시 보이는 것은 772년으로, 이 때 그는 영남嶺南(지금의 兩廣, 즉 광둥성과 광시성 지역)절도사와 광주廣州도독이 되지만(『구』, 제11권, 14b) 773년 광주에서 가서한의 한 아들 손에 피살된다.(『구』, 제11권, 15a, 제122권, 2a, 제157권, 1b. 『당서』, 제6권, 8b, 제138권, 4a. 『자』, 제224권, 67a) 관내절도사로 임명된 756년과 영남절도사로 임명된 772년 사이에, 또 다른 하서절도사 양지열楊志烈에 앞서, 두홍점의 뒤를 이은 하서절도사가 그였다는 것은 아주 그럴듯한 생각이다. 두홍점이 하서절도 직을 떠난 것은 757~758년이고 양지열이 그 직을 맡은 것은 763년이다. 양지열은 764년에 량주를 티벳인들에게 넘긴 다음 감주甘州로 피신해 있다가 765년에 죽임을 당했다.(『구』, 제196권상, 10a, 3 참조. 절도사 양지열을 구하고 하서에서 돌아온 마린馬璘은 763년 말 장안에서 물러난 티벳인들을 봉상에서 무찔렀다. 『당서』, 제6권, 6b와 『자』, 제223권, 53b, 제224권, 58a. 764년 말에 하서절도사 양지열의 군대는 려무에서 툴로스(Tölös, 鐵勒) 수령 복고회는僕固懷恩에 패했다. 『구』, 제196권상, 10a와 버셀렉, 479, 『당서』, 제6권, 7a, 제216권상, 8b. 764년 티벳인들이 량주를 공략하니 양지열은 감주로 달아났다. 그는 765년 10월 감주에서 피살됐다.) 사실 려승분은 759년에 하서절도사로 임명돼야 했다. 이 해에 두홍점의 후임으로 래전來瑱이란 자가 임명됐는데, 이 관리가 군사적 사건들로 인해 중앙에 계속 붙들려 있어 절도사로 부임할 수 없었고, 또 다른 직책이 그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당서』, 제144권, 1a. 래전의 일대기) 이 시기에 마침 려승분이 하서에 있었고 절도사 직을 맡기기 위해 그가 선택됐음이 분명하다.

이 필사본의 “呂公”은 4년을 봉직했다. 만일 려승분이 759년에 두홍점을 이어 절도사가 됐다면

고장에 완전한 평온이 깃든 이즈음 상찬마가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니 이야말로 시의적절하다. 자사는 이 다행스러운 조치가 “철이나 바위처럼 굳건하” 유지되고, 더 이상 서로 공격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기원한다.¹⁷⁹⁾

편지는 의례적 관용어구들로 끝난다. 자사는 맑은 바 소임을 다하느라 상찬마를 사적으로 만날 수 없음을 애석해 한다. 장군 한 명¹⁸⁰⁾이 이 답신을 상찬마에게 전할 것이다.¹⁸¹⁾

돈황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형편 닿는 대로 다루다보니 이 역사적 해설이 다소 잡다해졌다. 내 이야기가 주제를 벗어나 흐르기 일쑤였던 것은 변명하자면 돈황 문서들 일부가 갖는 현장성, 지난 전쟁의 와중에 그 문서들을 읽었을 때 날 사로잡은 현재성 때문이라고 해야겠다. 무릇 역사란 그 현재성으로 해서 되살아나기 마련 아닌가? 결론 삼아 나는 이번에도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어느 돈황 필사본¹⁸²⁾에 실린 두 부류의 미공개 연속 시편들 중에서, 당대唐代 티벳

이 서한의 연대는 762년이 되고,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다른 연대기적 지표들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

179) 頃緣大定 恩布遐荒. 今所和來正合其日. 願爲鐵石永罷相侵. 必也二三, 其如天道. 마지막 문구는 약속이나 서약의 관용구일 것이다. “변절할 때마다 하늘의 정의에 따른 [징벌이] 있으리!” “二三”이란 표현은 변덕스런 언행을 뜻한다.

180) 將軍璠旰. 그 다음에 오는 한자 白은 트랜스크립션으로 보이며, 이름의 일부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그리 분명치 않아서 고유명사가 아닐 수도 있다.

181) 限以封守, 言會無由. 但增瞻雲山, 仰德雄極. 珍重珍重. 謹勒. 將軍璠旰白還答. 不具. 肅州刺史劉璧臣[臣璧?]頓首.

182) 펠리오 장서 2555번. 이 필사본은 폭 27cm의 아주 긴 두루마리로, 종이 질이 나쁘다. 훼손이 심해서 그럭저럭 투명한 종이를 덧대 땀질했지만 필사본을 좀 편하게 읽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앞면은 똑같이 작고 고른 정자체 글자들로 된, 갖가지 텍스트들로 가득 차 있다. 시편들과 다른 여러 텍스트들 맨 앞에 있는 것은 특히 747년 공장孔璋이 이용李邕를 대신하여 죽기를 청하고 자 현종 황제에게 올린 유명한 표문(孔璋代李邕死表)이다. 이어 나오는 텍스트들이 여기서 분석된 첫 번째 연작시 18수로, “[북방] 이민족의 피리 연주곡 18수”(호가십팔박胡笳十八拍.[*불

에 있던 중국인 포로들의 심경을 여실히 들려주는 시들을 몇 수 골라 읽을 것이다. 이 시편들이 걸작은 아니지만, 제아무리 볼품없는 시까지도, 그보다 더 생생한 것이란 도대체 없다. 시편의 작자들은 유감이지만 알 수 없다. 그래도 티벳의 중국인들이 으레 처했던, 이방의 주인을 섬겨야 하는 노예된 처지와 오랑캐 나라로의 유배와 설상가상으로 고산지대로의 유배라는 삼중고 앞에서, 화상 마하연이나 서문을 쓴 왕석이나 함께 추방된 다른 많은 일행들의 것이었을 그 심정을 이 익명의 작자들이 정확히 — 또 매우 상당히 암시적인 투로 — 옮겼으리라 추측할 수는 있다.

어 원문에는 筋가 茄로 표기돼 있지만, 펠리오 장서 2555번을 확인하니 筋로 적혀 있었다. 폴 드 미에빌도 당연히 필사본을 직접 보면서 이 대목을 옮기거나 번역했을 터, 茄 표기는 드미에빌의 착오라기보다는 이 저작의 편집상의 실수 아니면 조판상의 오식으로 보인다. 역자.] 당대唐代의 음악 작품 제목이다. Courant, *Essai historique sur la musique classique des Chinois*, 165, n. 8과 171 참조.)란 제목이 달려 있다. 이어 다른 시편들이 나오고, 마지막엔 숙주 자사가 상찬마에게 보낸 것으로 본서 292~306에 번역했던 762년의 편지가 있다.

뒷면에는 맨 먼저 다른 필적의, 대개는 작자미상인 여러 시편들이 온다. 그 중 한 수는 잠삼(岑參, 8세기)의 시이고, 다른 한 수는 마운기(馬雲奇)의 시다. (마운기의 이 시는 이백(李白)이 상찬했던 안진경(顔真卿)의 제자로 8세기의 위대한 서예가인 회소(懷素)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앞면의 시들과 비슷한 필적과 먹으로 쓴, 이 책에서 분석한 두 번째 연작시들이다. 그 뒤에 또 두 편의 텍스트가 있는데, 하나는 왕희지(王羲之)의 짙막한 산문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황제가 지은 시다. 뒷면 말미는 텍스트 없이 여백만 있다.